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시립걸포자이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김포시
프로그램명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총 괄	이지영
기획 및 운영	박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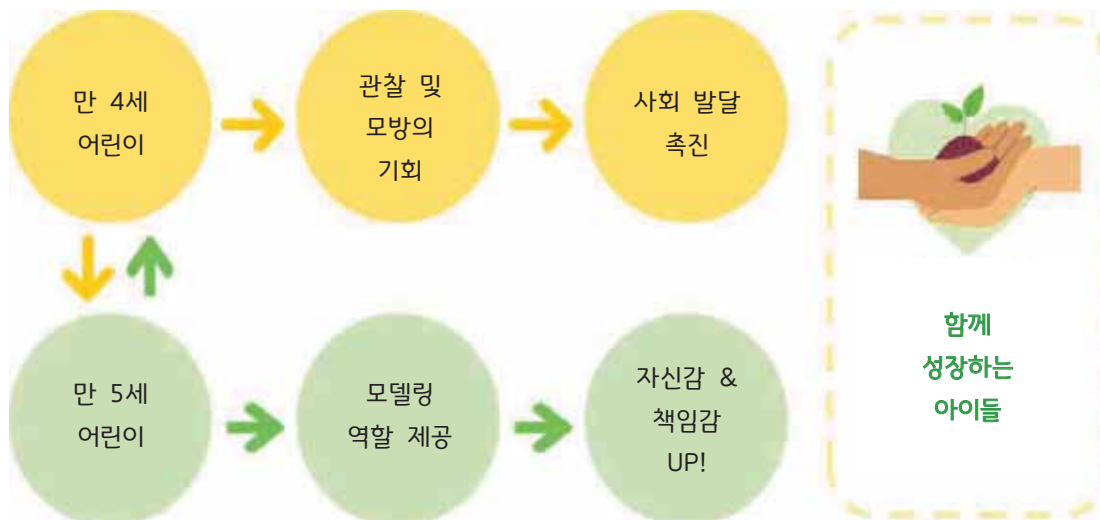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생애 그 어떤 시기보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폭넓은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영유아기에 또래와 조력하는 경험은 어린이의 사회성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타인을 수용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 개성적이고 사회적인 인재양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핵가족화, 저 출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외동아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 역시 가정 내 대인관계 폭이 좁아지고 있으며 과거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나이의 어린이들 간 서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연령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물리적·사회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고 또래와 조력하는 경험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경험하고 및 리더쉽 키우는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 4세 어린이와 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혼합 연령 프로그램**인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하였다.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주도하는 유아(만5세)와 반응하는 유아(만4세)어린이의 놀이 및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도하는 유아는 자신감을 향상하고 반응하는 유아는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타인을 수용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개성적이고 사회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 다른 연령의 또래와 여러 방면으로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 형성을 돕는다.
- 또래와 조력하는 경험을 통하여 유아간 Scaffolding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을 도모하고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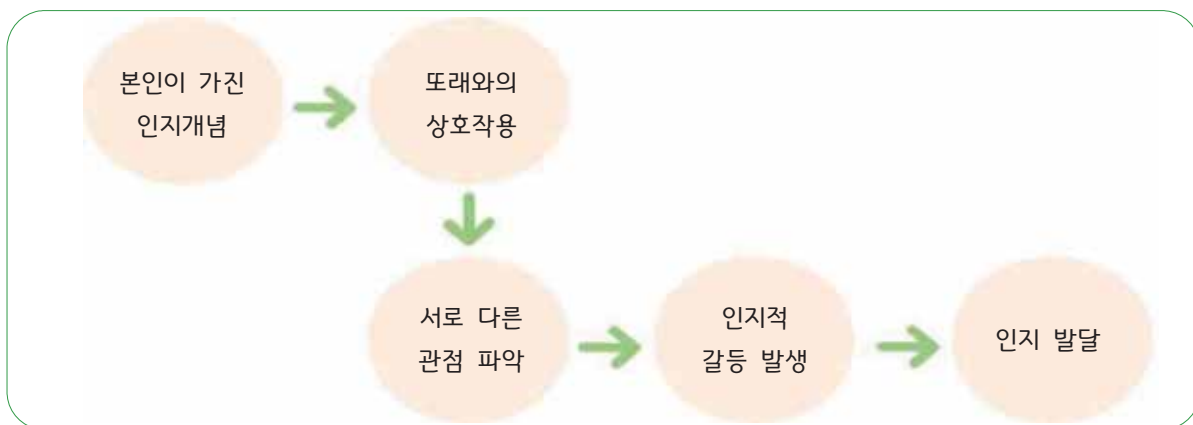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1) 인지발달 이론에 입각한 프로그램 운영배경

유아기의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갈등을 반드시 겪게 되며, 갈등 안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나와 타인의 의견을 서로 고려하며 협력해나가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처럼 또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과 협력은 유아의 인지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으며 또래의 상호작용이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Vygotsky는 유아는 순위형제, 더 유능한 또래 혹은 성인과의 협동학습을 통한 비계설정(Scaffolding)을 통해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더 유능한 또래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근접발달지대(ZPD)로 까지 학습과 발달을 유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기에 긍정적이고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은 유아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며,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2017, 김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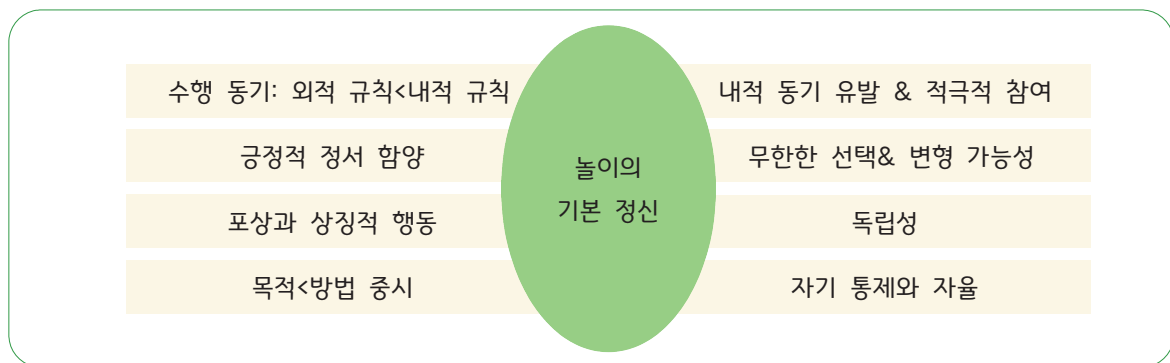
또한 Piaget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상대와 상호작용을 할 경우 인지적 갈등이 발생하고 이 때 능력차이가 크지 않은 유아 간에는 자발적으로 상호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인지적 성장이 촉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지발달 수준차이가 크지 않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인지적 갈등은 유아의 문제 해결방법의 수정, 변화를 가지고 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아의 인지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처럼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자발적인 토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유아의 인지발달과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에서는 유아들이 형님-동생이 함께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 스스로 놀이의 주체가 되어 또래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놀이를 매개체로 하여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유아가 스스로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얼마나 놀이 할 것인지, 어떤 방법과 매개체를 사용해 놀이할 것인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놀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끌어 보고자 한다.

2) 발현적 교육과정에 입각한 프로그램 운영배경

‘어린이는 놀면서 배운다.’ 놀이 중심과정에서 어린이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지금 어린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진짜 흥미는 무엇인지, 개인의 관심인지, 다수의 관심인지 등 어린이의 목소리를 읽어내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관찰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린이의 개별 수준, 사전 지식이나 경험의 정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에서 발현된 놀이에서 유아의 진짜 목소리를 읽어 냈다면 교사는 어린이가 놀이를 주도적으로 진행, 확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념이나 지식, 기술, 태도 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어린이의 놀이나 활동을 관찰한 후 그 맥락에 어린이가 발달 시켜야 할 핵심 개념을 고려하여 목표, 내용, 방법을 결정한다.

이처럼 교사와 어린이가 공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권한의 균형을 이룬다면 더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놀이를 통한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교사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놀이를 통해 끊임없이 탐색하고, 발견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흔히 성인이 가진 ‘아이는 배워야 할 것에 둘러싸여 지식을 습득하는 존재이다.’라는 생각과 달리, 어린이들은 스스로 마주치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만들어내는 주체이자 학습의 주체인 유능한 존재이다. 또한 놀이는 어린이의 삶 자체이며, 영유아교육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맥락이다. 어린이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놀이의 주체가 되었을 때 이 경험은 배움으로 연결된다. 배움은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에서 발현되고 이에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되어 어린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그 효과를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들의 놀이는 위와 같은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의 자유놀이는 놀이를 통한 성장과 발달, 학습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활동 속에서의 놀이, 교사의 적절한 노력과 지원이 필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에서 시작한 놀이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어린이가 적절한 환경의 지원을 받으며 주도적으로 탐색, 탐구하고 이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 교사 역시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동안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어린이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하며 자신의 역할을 실천해나가면서 교사 개인으로써 전문성을 함양,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 기간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프로그램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계획 및 실행되고 있다.

2) 활동 대상

만 4세 어린이와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혼합연령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연간

월	주제	예상 놀이 주제	협동 놀이 활동	월	주제	놀이 주제	협동 놀이 활동
3월	우리들은 하나!	우리 반 식구들		9월	결실의 계절 '가을'	풍요로운 가을	 우리들은 환경 지킴이
		서로서로 사이좋게	짜궁 형님 동생과 사이좋게	10월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짜궁과 가을을 찾아라!
4월	깨어나는 계절 '봄'	봄을 느껴요	 함께 산책을 가요	11월		'어린이와 함께 정하는 주제'	집에 있는 장난감 공유하기
5월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어린이와 함께 정하는 주제'	 협동 작품 만들기	12월	나눔이 꽃피는 계절 '겨울'	기쁨을 나누는 겨울 /새해	함께 만드는 장난감
6월	성장의 계절 '여름'		 팀별 토의&발표하기	1월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어린이와 함께 정하는 주제'	형님 동생 마니또 놀이
7월			 함께 만드는 놀이 공간 1	2월	형님 (초등학생)이 되어요	즐거웠던 우리 반	함께 장기자랑을 준비해요
8월	푸르른 여름	 함께 만드는 놀이 공간 2	형님(초등학생)이 되어요				

4) 활동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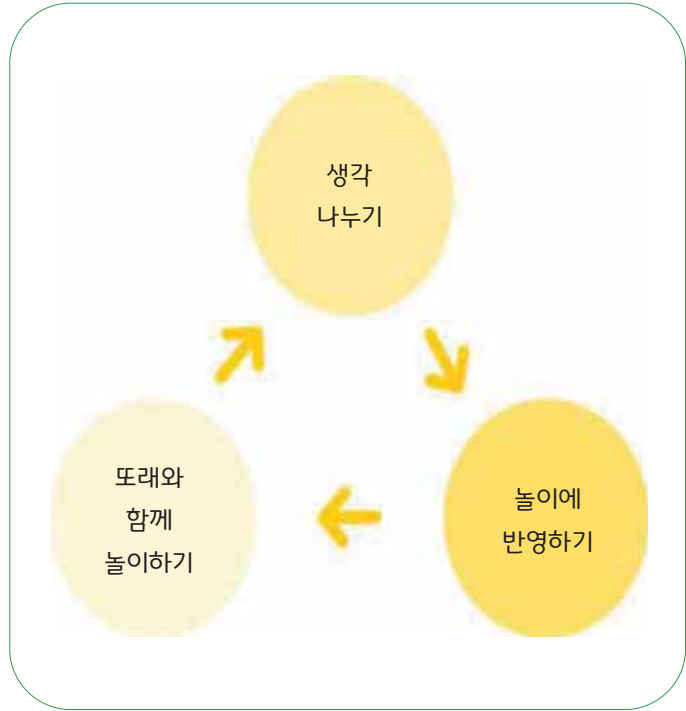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프로그램의 활동 방법을 어린이의 관점과 교수 학습 방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놀이 과정 속 본 프로그램의 과정은 크게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 '생각 나누기', '놀이에 반영하기'로 진행된다.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에서는 또래와 함께 자발적으로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생각 나누기' 과정에서는 토의, 토론, 상호 작용 등을 통하여 놀이 상황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놀이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놀이를 통해 배운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

'놀이에 반영하기' 과정에서는 위의 과정을 놀이에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유아들이 함께 생각한 결과를 함께 놀이에 적용하고 놀이 속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



5) 교수학습 방법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놀이와, 놀이 속 배움을 보다 이끌어내기 위하여 교사는 다음과 같은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놀이 속 배움 씨앗 심기	놀이 속 배움 새싹 발견하기	놀이 속 배움 물주기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놀이 속 배움 열매 맺기
교수 학습 과정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에서 시작한 놀이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일상생활이나 놀이 속에서 어린이의 관심사 중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놀이에 대해 발견하고 선별한다.	어린이의 놀이 속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환경이나 자료, 모델링 등 놀이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놀이 속에서 적절한 환경적 지원을 받으며 주도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들의 놀이 속 배움 및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이를 가정이나 다른 반어린이와 공유 한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우리집에 있는 개미에 관련된 자료를 도래 앞에서 소개하고 함께 개미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지고 온 개미 관련 자료를 함께 보기도 하고, 종이나 재활용품, 막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개미를 만들어보기도 하며 함께 생각하고 알아간 것에 대해 표현하였다.
형님인 만 5세 어린이가 새롭게 알게 된 글자로 표현한 것을 동생인 만 4세 어린이가 형님의 도움을 받아 읽어보는 등 형님-동생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함께 탐구하고 표현하는 개미 놀이, 교사는 아이들의 흥미를 보다 확장하고, 개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아가기로 했다



놀이 속
배움
열매
맺기

개미에 대한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함께 하며 다양한 개미의 구조, 먹이 등 각자가 알고 있는 개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함께 이를 공유하며 즐거움을 느꼈다.
또한 형님-동생간의 이야기 나누기, 미술 등의 표현활동을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나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조절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아이들의 배움을 공유하고자 교사는 놀이 신문을 통하여 가정에 아이들의 놀이를 공유하였고 아이들의 흥미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두 번째
놀이 이야기

개미집

: 개미는 어디에 사는 걸까? 개미집이 궁금한 아이들

놀이 속
배움
씨앗 심기

“개미는 어디에 사는 걸까?”, “형 근데 개미가 잎을 옮겨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개미집에 가지~”, “언니 근데 왜 개미는 개미집에 가는 걸까?”, “집에 먹이를 모아야 하니까!”
“개미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개미집에는 어떤 개미들이 살까?”.....

개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질수록 개미들이 살고 있는 개미집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커졌다.

놀이 속
배움
새싹
발견하기

교사는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개미집에 대해 관찰하고 알아보며 개미집의 구조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개미 사회를 보며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교사는 이러한 흥미를 지원하고자 책, 영상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개미 키우기 키트를 제공하여 개미가 직접 굴을 파는 모습에 대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알게 된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술 재료를 활용하여 함께 협동, 거대 개미 굴 그림을 그려볼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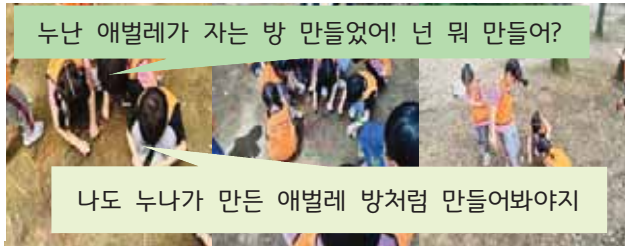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서로 함께 개미집을 관찰하며 새롭게 관찰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 아이들은 궁금한 점을 서로 묻기도 하고, 힘을 합쳐 블록이나 미술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이러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이러한 아이들의 흥미를 지원하고자 교사는 인근 숲에서 아이들과 실제 개미집을 찾아보기도 하고 개미집을 색끈을 이용해 표현해보는 등 아이들의 흥미를 지원하였다.



누난 애벌레가 자는 방 만들었어! 넌 뭐 만들어?

나도 누나가 만든 애벌레 방처럼 만들어봐야지

놀이 속
배움
열매
맺기



“여기는 먹이 창고야!” “여긴 애기들을 돌봐주는 유모 개미가 있어”

“청소하는 개미 역할도 중요해!” “병정개미도 중요하지!” “와 개미들은 정말 서로 돕고 사는구나”,

“맞아 서로 도우면 더 힘도 세지고 힘든 것도 할 수 있어”

“근데 개미들의 집이 미로 같지 않아?”

각각 굴마다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개미들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며 각각의 장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서로 협동하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해내는 개미들의 모습에 대해 알아가는 아이들! 아이들은 서로 힘을 합쳐 개미굴의 모습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협동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협동에 대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동시에 작은 곤충인 <개미>의 모습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놀이 이야기

꼬불 꼬불 미로가 궁금해
:개미집에서 미로로 흥미가 변화한 아이들

놀이 속
배움
씨앗 심기

“선생님 개미집이 미로처럼 되어있어요” “어 진짜 이리 저리 꼬불꼬불해”

개미집에 대한 아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늘어감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리저리 미로처럼 꼬여있는 개미집에서 ‘미로’의 요소를 찾아갔다.

놀이 속 배움 새싹 발견하기	미로는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동시에 흥미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탐구심을 기를 수 있는 매체이며 미로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은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르고 협동하는 과정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으로 이러한 아이들의 미로에 대한 관심을 함께 미로를 구성하고 표현하며 함께 지원 하고자 하였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이러한 아이들의 미로에 대한 관심을 보다 확장할 수 있도록 교사는 다양한 단계의 미로 책과 미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유아들이 가진 미로에 대한 개념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미로에 대해 아이들과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미로에는 함정이 필요해” “그리고 미로는 입구와 출구가 있어야 해” “누나 입구랑 출구가 뭐야?” “입구는 들어가는 길이고, 출구는 나가는 길이지~” “아! 나 알아! 우리 누나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화살표로 표시 돼 있어” 서로 다른 미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아이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표현하고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아이들의 미로에 대한 생각을 듣고, 미로를 표상한 것들을 살펴보던 교사는 이러한 미로에 놀이를 보다 확장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학기 초부터 흥미를 가지고 놀이를 하던 놀잇감인 카미봇으로 미로 탈출 놀이를 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누나, 카미봇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이 화살표 (↓) 를 누르면 뒤로 갈 수 있어” 블록으로 만든 미로 놀이와 미로 탈출 놀이를 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방향 감각을 익히고 코딩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것을 물론 협동하여 미로를 만들어보며 다양한 미로의 요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또 이와 동시에 형님 동생 간 놀이를 통해 서로 돕고 협의하며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래 여기에 무서운 공룡들이 있는거야 형, 여기 함정을 만들면 어때?  
놀이 속 배움 물주기	아이들의 미로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아이들은 미로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는 이러한 아이들의 미로에 대한 흥미를 기반으로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별로 협동하여 미로를 그려보고 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이 속 배움 열매 맺기	우주 미로는 어때? 무슨 미로 그럴까? 우리팀이 만든 미로는 아이들은 토의시간에 미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의견을 모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힘을 합쳐 협동 그림을 그리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하는 태도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네 번째
놀이 이야기

함께 만드는 미로놀이터
: 교실에서 놀이터, 다시 교실로 함께 만드는 미로놀이터

놀이 속
배움
씨앗 심기

“미로를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을까?” “미로를 바깥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놀이가 이어질수록 아이들은 미로를 더 크게 더 멋지게 만들고자 하였다. 블록으로, 커다란 종이를 서로 이어 붙여서, 아이들은 미로에 자유롭게 표현하며 즐거움을 느꼈다. 아이들은 놀이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수록 바깥놀이터에서 하는 미로 놀이에도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또래와 바깥놀이터에서 미로 놀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놀이 속
배움
새싹
발견하기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 대한 니즈를 확인한 교사는 교실과 다른 놀이터에서 미로 놀이를 하는 과정이 어린이들이 공간적 특성을 실험해 가며 규칙을 만들면서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 속 고민을 지원하고자 교사는 마스킹 테이프, 분필로 미로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다수결을 통해 정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수결로 정해진 내용처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아이들은 또래와 함께 서로 도우며 마스킹 테이프를 미로 길을 구성해보기도 하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만들거나 함정을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타임워치 등을 사용하여 누가 가장 먼저 미로를 탈출하는지 시합을 해보기도 하였다

“놀이터에서 미로놀이를 하니까 미로공원에 온 거 같아”

“우리 반에도 이렇게 커다란 미로가 생기면 좋겠어!”

놀이터에서 진행되는 미로놀이가 진행되며 이번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진행한 미로 놀이를 다시 어린이집 안에서 함께 하고자 하였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흥미를 지원하고 확장하고자 공간을 한정 짓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 복도와 교실에 자유롭게 미로를 구성해볼 수 있도록 했다.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나는 꼬불꼬불한 길도 만들 거야!”, ”난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 막을래.”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 나 미로를 하고 아침에 오는 거 기다려져!”

놀이터에서 만든 미로는 또 다시 교실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함께 만든 마스킹 테이프 미로놀이를 등 하원 길과 교실에서도 함께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정해보고, 보다 주도적이고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놀이 속에서 유능감을 느끼고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였다.

놀이 속
배움
새싹
발견하기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미로놀이!
아이들이 미로 놀이를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더 재밌고 더 어렵고, 더 신기한 미로놀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미로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아~주 커다란 미로를 만들면 어떨까?"
"나도 유튜브에서 큰 미로 봤어" "나도 고양이가 미로 가는 거 봤는데"
"얼마큼 크게 만들게?" "아주 크게 대왕만큼 크게!"

놀이 속
배움
물주기



교사는 이러한 아이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아이들이 말하는 '거대한 미로'가 나온 영상 자료를 함께 보고 아이들에게 박스를 가정에서 모아오자 제안하고 교사는 이러한 아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놀이 시간에 형님-동생, 친구들과 어떤 미로를 만들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고 다수결을 통하여 함께 만드는 미로의 주제를 선정해 보았다.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미로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만들까? 어떤 미로를 만들지 함께 정한 아이들, 아이들은 함께 만들 미로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꾸밀지 고민하였다.
그리고 형님-동생과 짝을 정해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고 크레파스, 붓, 아크릴 물감 등 여러 가지 미술 재료로 박스를 칠해보았다.



놀이 속
배움
새싹
발견하기

"박스를 뜯으면 어때?" "박스를 뜯어서 연결하니까 더 긴 미로를 만들 수 있어"
"박스가 납작해지면 이런 모양이네~" "납작한 박스 종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허팝은 박스랑 서로 연결해서 세웠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지지대를 만드니까 진짜로 벽이 세워지네!"
함께 모으고 색칠한 박스를 연결해서 미로를 만들어가는 아이들.
하지만 크기가 다른 박스를 이어 만든 미로는 예상보다 짧았다. 아쉬움을 느낀 아이들은 교실 안에 어떻게 하면 더 크고 긴 미로를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하였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교사는 아이들의 니즈를 수용하고 함께 힘을 합쳐 놀이 공간을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며 협동심과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다.

놀이 속
배움
새싹
발견하기



아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든 <꼬불꼬불 미로 놀이터>! 아이들은 <꼬불꼬불 미로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보물 찾기를 하고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터널 놀이도 하며 다양한 즐거워하였다.



동물이 되어
숨바꼭질을 해요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상자와 상자가 연결하면 미로가 되는구나!"

"벽과 벽이 만나 길을 만나네!"

"꼬불꼬불 미로를 길게 만들어야지!"

아이들은 길고 꼬불꼬불한 미로를 만들기 위해 박스를 뜯어보기도 하고 평면이 된 박스를 테이프로 연결하여 벽을 세우고 연결해보았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함께 힘을 합쳐 놀이 공간을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며 협동심을 기르고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 획득한 아이들. 미로 놀이터를 만들고 함께 놀이 할 수록 아이들은 새롭게 미로를 구성하고 변형하며 즐겁게 놀이하였다.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교사는 미로 놀이터를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미로를 만들 수 있을까?" "기어가는 길이 있으면 어떨까?"

"함정이랑 괴물이 있으면 좋겠어."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할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미로를 만들 수 있을 지 각자 생각을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 아이들은 서로 협의한 내용을 실제 놀이에 적용하며 더욱 더 놀이에 심취하였다.



아이들은 함정을 스스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교사가 자료로 제공한 터널을 이용해 숨을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보고 보다 주도적이고 자유롭게 놀이하며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놀이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유능감을 느끼고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였다.

놀이 속
배움
새싹
발견하기

"우리만 놀기에 너무 이 놀이터가 재밌어"

"다른 동생들도 초대하면 좋겠다!"

"누굴 초대하면 좋지?"

아이들은 미로 놀이터가 지속 될 수록 함께 만든 미로놀이터에 동생 반이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하였다.

놀이 속
배움
물주기



◀아이들이 만든 입장권

교사는 이러한 아이들의 니즈를 수용하고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만 3세반 동생들을 초대하여 보물찾기를 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아이들이 만든 보물 상품권▶

놀이 속
배움
꽃
피우기



동생들아 우리
미로놀이터에 놀러와



입장권 보여주세요~

입장권을 만들고 만3세 동생 반에 초대를 하러 간 아이들
아이들은 동생들 앞에서 우리가 만든 미로놀이터에서 보물찾기를 할 것임을 알리고, 초대 한 당일
매표소 직원, 미로 찾기 도우미, 상품 교환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함께 하였다.

놀이 속
배움
열매
맺기



아이들은 미로 놀이를 하며 출발점과 도착점, 탈출하는 길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아이들은
함정과 막다른 길 등 다양한 미로의 요소에 대해 탐구하였다. 또한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주체가 되었다.

미로 놀이를 함께 하거나 미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나와 타인의 차이에 대해 알고 더불어 생활
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미로를 만들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공동의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는 과정을 경험하며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유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의 배움을 공유하고자 교사는 놀이 신문을 통하여 가정에 아이들의 놀이를 공유
하였고 아이들의 흥미를 격려해주시기를 요청 드렸다.

III. 활동평가

1. 활동 평가

1) 유아의 변화

어린이들은 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 형님 동생과 함께 수평적 상호작용, 수직적 상호작용을 함께 겪으며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자신보다 유능한 어린이의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래를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체적인 참여자로 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유능감과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었다.

2) 교사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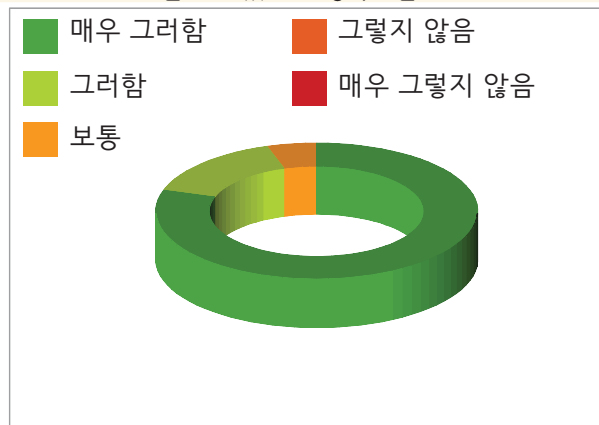
교사는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는 맨 처음 교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래간의 배움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직면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난관을 교사의 개입이 없이도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이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과 상호작용해 나가면서 유아의 신체와 정신이 단일연령반 보다 더욱더 전인적으로 성장 및 발달해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가정의 평가

본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교사는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 2023년 08월 28일 ~ 09월 01일
- 조사 대상 : 만 4-5세 유아
- 조사 방법 : 설문지
- 응답 인원 : 14가정

1. 가정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사회성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가정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인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였는데 형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가 더 밝아지고 그 전에 관심이 없던 글자나 그림 그리기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 *** 가정
- 초등학교 가는 준비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동생들을 챙기면서 동생을 알려줘야 한다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등 아이가 의젓한 모습을 보여 동생과 함께 하는 1년이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000 가정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본 프로그램은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일상을 놀이와 연계하고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기관 내에서 형님-동생간의 관계를 형성, 서로 상호보완 하는 관계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혼합연령 프로그램**은 영유아가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심화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다.

따라서 본 기관에서는 이러한 혼합연령 프로그램을 만 4-5세에서 만 3-4세, 4-5세 반 운영 혹은 만 3-5세로 확장하여 유아반을 운영, 유아가 형님 동생끼리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과정에 함께 하며 일상생활이 놀이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하며 이에 대해 놀이의 가치와 놀이 속에서의 배움, 놀이에서의 의미를 전달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할 예정이다.

2)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본 프로그램처럼 서로 다른 연령의 어린이들이 함께 놀이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 교사 및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과정이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끼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고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스스로 주도적인 놀이 주체자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로 혼합 연령을 운영하기 전 먼저 교사가 혼합 연령에 해당하는 개별 연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에서는 교사 학습 동아리 및 연수 등으로 혼합연령학급 교사로서 학급 및 수업 운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 서로 다른 연령 중 어느 한 연령이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혼합연령학급의 수업 및 행정을 위한 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혼합연령학급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번째 또래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 및 사회성 발달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운영하기 전 교사가 아이들을 직접 교수하는 것 이외에도 유아-유아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서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리적, 인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V. 참고문헌

-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2011.
- 형님, 동생의 우애 깊은 마음 뜰 실천 탐구 김수희 (인성교육실천 사례 연구대회 보고서). 2017.
- 혼합연령학급 효율적 운영 방안. 이진화, 민정원, 엄지원(육아정책연구소). 2014.
- 「발현적 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사례집」 김은영, 김희진, 김연경, 파란마음. 2021.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삼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안성시
프로그램명	내가 GREEN(그린) 지구
총 괄	오현숙
기획 및 운영	한우리, 권채린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는 영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으로 가정, 교육 기관 등의 미시체계를 언급하였다. 특히, 영유아의 일상생활은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Rogoff, 1990).

인간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유아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의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환경부, 2008).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최고기온 기록 경신이나 자연재해 발생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어린이는 단순히 보호해야 할 수혜자를 넘어,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정책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이란,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유아 또한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그 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에 자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환경문제에 대한 영유아의 자주적인 참여를 위해 교사는 유아의 경험과 흥미를 중심으로 유아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행동하는 실천적 단계를 포함하여 유아가 삶의 방식과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서현정 외, 2018)

우리는 유아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영유아가 직접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고민하며 기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지구는 유일해’라는 특색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지구는 유일해’ 활동을 경험해 나가며 유아들은 점차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교사가 계획한 외,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호기심을 표현하거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등 유아가 주체가 되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생활 습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진정한 놀이는 유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발성, 긍정적 정서, 재미있고 즐거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변형, 변화에 대한 융통성, 상상적 요소,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만족, 유아가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또다시 시작하며, 언제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이 과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의미이다(김명순, 2018).

우리는 유아들의 이러한 관심이 진정한 놀이로 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변화가 현재는 작지만, 미래에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거라 기대하며 교사 주체의 ‘지구는 유일해’ 활동에서 시작하여 유아의 흥미를 기반한 경험 중심 환경 프로그램인 ‘우리가 GREEN 지구’ 활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2023.03 ~ 진행중

2) 활동대상 : 만 3세 유아반 (20명)

지구는 유일해(환경특색프로그램)

듀이는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실제로 해본다는 것으로, 실행해보고 느끼고, 불편하기도 하고, 행복해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새것으로 대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라 함으로써, **경험 중심 교육에서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또한 환경문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어린이집에서는 환경문제와 환경보호 실천, 일상생활 속 습관 변화에 대한 **유아와 가정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구는 유일해’ 활동이 계획되어 실행되고 있다.

월	환경 기념일	활 동	가 정 연 계
3	세계 물의 날	물 아끼기 미션 빙고!	우리가족 물아끼기 빙고!
4	지구의 날	삼정 그린코아 소등캠페인!	소등캠페인에 참여해요
5	바다의 날	우리동네에 바다의 날을 알려요!	엄마, 아빠와 함께 금식천 플로깅
6	환경의 날	여기 거북 클로버 지키기 대작전!(플라스틱제할용)	안성시 산내를 환경축제 참여하기! 우리가족 환경 중요 대잔치!
7	세계 인구의 날	마트에서 녹색제품을 찾아요!	우리집 녹색제품은 어디있을까요?
8	에너지의 날	나만의 에너지 효율등급마크 만들기	우리집 에너지효율 1등은?
9	자원순환의 날	우리동네 자원순환가게!	폐건전지, 플라스틱을 모아요
10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스스로 뽀빠!(전반없는 날)	천연 조미료 만들기
11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삼정 녹색 장터! 어나바다!	엄마와 함께 녹색장터에 가요
12	세계 토양의 날	나만의 휴지심 텃밭 만들기	우리동네 휴지심 모으기!
1	지구야, 사랑해	페트병 불령대회	페트병을 모아요
2	세계 습지의 날	친환경 제품을 알아보아요!	우리집 친환경 제품 인증하기!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다양하다. ‘지구는 유일해’ 활동은 매달 환경 기념일을 기념하며 다양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행되고 있다. 활동을 실행하며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유아가 주체가 되어 활동이 연계, 확장되었다.

▶ 세계 물의 날



물 부족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이야기 나누고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양한 물절약 실천방법 중, ‘양치컵 사용하기’를 가정과 기관에서 실천해보았다. 양치컵 사용하기를 실천한 이유는 유아들이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변화하고, 지속이 가능할 정도로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의 물절약 실천을 위해 다양한 물절약 실천 방법을 안내하는 ‘그린빙고’ 미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선생님 비가 와요! 빗물을 모아요!”



비가 오는 날씨에 관심을 가지고, 빗물을 모으는 유아들의 모습

기관과 가정에서 물 절약을 경험해본 유아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선생님 빗물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빗물을 모으면 물을 절약할 수 있어요” 등 산책 중 고여있는 물을 보고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물 절약 실천을 떠올린다.



모아진 빗물로 놀이하는 유아들의 모습

빗물 모으기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는 지속되었으며, 어린이집 앞 마당에 아이들 얼굴이 그려진 ‘빗물 모으기 컵’을 두고, 가정과 연계하여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며 그 흥미를 이어갈 수 있었다. 모인 빗물은 물감 놀이, 염색 놀이로 시작되어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물 그림 그리기, 얼음 그림 그리기로 확장되어 다양한 놀이 지원 자료로 사용되었다.

▶ 지구의 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무엇인지, 지구의 날에는 어떤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어린이집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 현수막을 유아들이 직접 만들고 어린이집 주변에 게시하며 ‘소등캠페인 알리기’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가정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모바일알림장을 통해 ‘지구의 날기념 지구 2행시’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부모님께서는 제로웨이스트 상품(설거지바, 나무칫솔, 친환경 수세미 등)을 선물하여 제로웨이스트 상품에 대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지구의 날 소등행사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었다.



“선생님! 상자로 놀이할 수 있어요!”



지구의 날 주간 배달 용기를 줄이는 취지에서 재활용품을 지원받고 아이들과 재활용품 미술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아들이 재활용품을 놀이자료로 활용하고, 그 모습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가정에서의 재활용품의 지원이 활발해지고 지속되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또한, 재활용품에 관심이 높아지는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행사, 놀이 자료에서 친환경화를 실천하고 있다.

식목일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화분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지피 팻으로, 일반 일회용봉투가 아닌 생분해가 가능한 봉지로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 바다의 날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에는 바다가 없어, 바다 대신 어린이집 근방에 위치한 하천과 지역 호수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가정에 안내하였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바다의 날의 의미와 해양 오염의 심각성,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바다의 날을 알리기 위한 어깨띠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바다의 날 알리기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가정연계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호수를 소개하고, 가족과 함께 플로깅을 실천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참여 가정에는 환경 동화 ‘인어와 나’를 선물하였다. 또한 토양과 해양을 위협하는 ‘아이스팩’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지역 시장에 나누는 자원순환에 참여해보았다.

▶ 환경의 날



바다의 날을 지나며 유아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기 거북 클로버’ 동화를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보호 실천을 목적으로 병뚜껑 모으기 실천 및 거북이 구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가정연계 활동으로는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가 함께 제작한 ‘우리 함께 지켜요’ 동요로 ‘가족 환경 동요 대잔치’를 열어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는 무엇인지 노래를 통해 표현해 볼 수 있는 동요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플로깅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 “엄마, 아바랑 플로깅을 해보았어요!” 등의 표현에 따라 부모님과 어린이집 주변 하천을 플로깅을 실천해보았다.

환경의 날은 전 세계적인 환경 축제로 지역사회에서 유아들이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 가정에 소개하고 참여를 권유해보았다.



특히, 본 어린이집에서 체험하는 활동(목재체험, 식판세척서비스, 로컬푸드, 자연친화프로그램 등)과 참여 부스의 공통적인 내용이 많아 사전에 부모님들께 공지하였고, 어린이집의 활동을 가족이 함께 경험해볼 수 있어 지역축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 수 있었으며 가정에 어린이집의 환경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선생님 나 어제 비누 만들었어요!”



지역축제에 다녀온 유아들이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였다. 그러던 중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활동 ‘커피박 비누 만들기’ 활동을 알게 되었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커피박 비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부모참여 수업으로 커피박 비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외 다른 환경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을 통해 가정에서 환경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를 확인하고,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안내할 수 있었다.

‘지구는 유일해’ 활동은 교사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연계·확장하며 어린이집, 부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의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환경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부모의 참여가 높아지고, 어린이집의 활동, 자료, 답례품 등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습관의 변화와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유아 주도적 활동의 시작

‘지구는 유일해’ 활동을 지속하면서 유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미세먼지는 어때요?”, “자외선은 왜 나쁜거예요?”, “건전지는 어디에 버려요?”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과 “여기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고 싶어요” 등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지원요청 안내문 및 학부모 댓글 예시]

공구 놀이를 하던 중 유아들은 장난감을 고치는 흉내를 내어보거나, 공구를 보고 “나 건전지 갈 때 보았어요!” 등의 사전경험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의 지원을 요청하여 ‘실물 공구와 고장난 장난감’을 지원받았다. 이때, 아이들의 성취감을 위해 건전지 교체가 필요한 장난감 위주로 지원을 받았다.



실물 공구로 장난감을 수리하는 유아들



직접 수리한 장난감으로 놀이하는 유아들



탐색 기간을 보낸 후, 유아들과 함께 실제 공구를 이용해 건전지를 교체해 보았고, 건전지를 교체해도 다시 작동하지 않는 장난감들이 있었다. 건전지를 다시 끼워봐도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자 유아들은 장난감에 금세 흥미를 잃었고 장난감은 주인을 잃었다. 누구에게 선택받지 못한 고장 난 장난감을 보고 한 유아가 묻는다.

고치지 못한 장난감은
어떻게 해야해요?



▶ 교사의 고민 및 지원

사실, 교사도 장난감이 고장 나면 사용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해 버리거나, 장 깊숙이 넣어 두었는데 유아의 질문에 고민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에게 “사용가치를 잃었으니 이제 버리자”라고 말해줄 수는 없고, 좀 더 환경적으로 유아들에게 의미가 있는 방법으로 장난감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마침, 안성시에 '장난감 수리 병원'이 개소하였고, 관련 기관인 안성시 시니어 클럽에 견학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어르신 4명이 작업하시는 공간으로 20명의 유아들이 한번에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어르신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방문해주시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어린이집으로 방문해주신 장난감 수리 병원 할아버지,할머니]

어린이집에 방문해주신 어르신들께서는 공구함을 구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속에서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공구까지 설명해주셨다. 또한, 아이들에게 실제 장난감 수리 병원처럼 고장난 부분을 접수 받고, 신청받아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장난감은 고쳐주셨고, 그렇지 못한 장난감은 센터로 가지고 가셨다.

▶ 지속가능성

2주가 지나 어린이집으로 장난감이 돌아왔고, 유아들은 고쳐진 장난감을 보며 즐거워했다. 오랜 기간 함께 고쳐보려 노력하고, 탐색해서인지 내 장난감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니어 클럽 '장난감 수리점 병원'에서는 삼정 어린이집의 문의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 방문 수리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과 인형을 기부받아 수리하여 나눔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본 어린이집은 장난감 수리 병원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고장 난 장난감을 나눔 받아 다시 지역의 그룹홈, 아동보호시설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고쳐진 장난감을 또래와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다양한 놀이에 활용하며 건전지를 바꾸는 일이 많아졌고, 장난감에서 나온 폐건전지를 휴지통에 버리려는 유아를 말리는 교사를 본 한 유아의 호기심에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



왜? 건전지는
휴지통에 버리면 안되요?

▶ 교사의 고민 및 지원

폐건전지 속 망간, 수은,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소각 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어 휴지통에 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5살 유아에게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기란 어려움이 있었다. 미디어 자료나 교사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유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민을 거듭한 후에 '자원순환가게'에서 폐건전지 20개를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준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자원순환가게가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 놀이의 시작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하면서 나온 폐건전지가 꽤 되지만, 아이들이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체하는 데 건전지의 수량이 부족하였다. 가정에 지원요청을 하여 건전지를 지원받았고 아이들 20명이 한 개씩 새 건전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모아졌다

다온반 공지

[폐건전지 교환]

다온반에서 아이들과 장난감을 고치며 나온 폐건전지를 모아두었더니 그 양이 꽤 많아져, 7월4일 (화)에는 대전동 성당 안에 '자원순환가게'에 폐건전지를 가져다주고 새 건전지를 받아 돌아올 예정입니다. (폐건전지 20개당 새건전지 1세트) 혹시 가정에 폐건전지가 있으실 경우 어린이집으로 7월 3일 (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폐건전지 가정 지원 요청 및 건전지를 교환하러 가는 유아들의 모습]

유아들은 모아온 폐건전지를 자원순환가게 선생님께 드리고 새 건전지를 받았다. 받아온 새 건전지는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다시 고장 난 장난감의 건전지를 교체하며 놀이 자료로 사용하였고 장난감에서 나온 폐건전지는 유아들이 스스로 휴지통이 아닌 한곳에 모아 두었다. 폐건전지 함이 모두 차면 교사가 확인하기도 전에 유아들이 말한다. “건전지 바꾸러 또 가자!”



[자원순환가게에 방문하여 새건전지로 교환 받은 유아들의 모습]

▶ 지속가능성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를 보며 “건전지 바꾸러 가자~”라고 반복하여 표현하는 유아들이 나타났고, 가정에서는 폐건전지를 모아 자원순환가게에 방문해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아이들의 경험이 일상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알림장을 통한 가정의 실천 현황]

건전지를 교환하러 가며, 아이들의 관심은 길가의 쓰레기에 있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지는 쓰레기를 보고 “선생님, 여기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가 아픈데”라고 표현하며 속상함을 표현한다. 그때 결심했다는 듯 비장하게 말하는 한 유아의 말로 우리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다.



논과 밭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이야기하는 유아들의 모습

우리 다음에는
쓰레기 주우러 오자!



▶ 교사의 고민 및 지원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만 보면 속상해하고, 지구를 걱정하는 것은 이제 유아들에겐 일상이다. 다만, 쓰레기를 보고 장갑과 집게가 없어도 손이 먼저 나가는 유아들의 모습에 어떻게 하면 유아들의 환경보호 습관을 좀 더 안전하게 지속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교사는 바깥 놀이 시간마다 집게와 비닐봉지를 챙기기 시작하였다.

▶ 놀이의 시작

바깥 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쓰레기를 교사가 주워 버리기도 하고, 유아가 직접 집게를 이용해 버리기도 하며,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일은 우리에게 특별히 계획하는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으며, 자연물을 줍기 위해 제공한 비닐봉지에도 쓰레기를 먼저 줍는 유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뭇잎에 관심을 보여 비닐을 제공하자

나뭇잎 사이의 쓰레기를 발견하고 쓰레기를 줍는 유아의 모습

▶ 지속가능성

“유아들의 관심은 부모를 움직이게 한다!” 교사들은 변화되는 부모님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표현하고, 부모님들의 행동에 잔소리를 시작했다고 한다.

덕분에 활동에 대한 가정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플로깅을 실시하고 경험을 전해주시기도 하며, 어린이집에서 경험한 친환경 제품을 지속하여 사용한다는 등의 이야기로 환경 보호를 위한 습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의 자발적 플로깅 동참]

III. 활동평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교육이나 매체를 통해 접하고 '환경문제가 심각하구나'하고 지나갈 수준이 아니다. 단발적이고 교사 주체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실천 방법에 대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유아기부터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과 같이 본 어린이집은 유아를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하기를 위해 노력한다.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및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와 어린이집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가 주도적으로 충분히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가정이 어린이집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참여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 환경,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노력하였다.

1. 영아 평가

유아-어린이집-기관-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흥미와 호기심을 표현하였다. 더 이상 교사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 재활용품의 놀잇감 화, 플로깅의 생활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지역사회의 환경 관련 자원 활용 등 유아가 활동에 주체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아들은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2. 부모 평가



부모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움과 생활화를 인식하고 어린이집 활동에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자원을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재이용, 실천하며 환경을 위한 가정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표현이 늘었고 가정에서 실천하며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주었다.



또한, 유아들의 주체로 이루어진 활동의 경우 놀이 전시회를 개최하여 부모들이 유아들의 놀이에 참여하고, 함께 경험하며 놀이 중심 교육의 중요성과 유아들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3. 교사 평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으며,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횟수가 늘었다. 또한, 교사 개인적으로도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좀 더 친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해보려 노력하는 자세가 생겼다.

교사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 보다 유아들의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에 집중하며 유아가 필요로 하는 활동, 교육은 무엇인지 관찰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어렵다고만 느껴지던 놀이중심 교육에 조금은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원내 학습 공동체'를 통해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었으며 동료 교사의 놀이활동이 자극제가 되며 서로 더 열심히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놀이에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의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며 직업적 자긍심과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4. 어린이집 평가

유아, 교사, 가정이 환경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이 일상생활 속으로 가까워지며, 어린이집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장난감,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제품, 재활용품의 사용이 늘어났으며 활동의 자료의 친환경화, 부모참여수업 시, 환경을 위한 체험 등 다양한 환경을 위한 제품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놀잇감의 변화	답례품, 선물의 변화	활동 재료의 변화
 ☑ 재활용품의 놀잇감화 재활용품을 단순히 미술재료로 활용하던 것에서 점차 놀잇감으로 제공하려는 교직원들의 시도가 나타났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재활용품의 놀잇감화가 활성화되었다. 이에 새로 구매하는 장난감, 버려지는 장난감 등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답례품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 장난감, 책 등의 영유아를 위한 답례품 제공에서 좀 더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u>제로웨이스트, 지역사회 농촌체험</u> 등으로 변경하였고, 가정에 간접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제품 사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활동, 활동재료의 친환경화 플라스틱 화분을 이용하던 것에서 <u>지퍼판 생분해 화분</u>을 사용하는 것, 부모참여수업에서 흥미위주의 활동보다는 <u>환경관련 활동, 친환경제품(커비박설거지비누)</u>을 사용하는 것 아이들의 교육활동 재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5. 지역사회 평가

유아들이 지역사회의 기관에 방문하면 어른들은 “어머~ 기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 아이들의 참여를 대견해하셨다. 유아들은 이를 통해 자긍심을 얻고 환경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어린이집의 참여로 방문 수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니어클럽은 “아이들과 만날 기회를 주셔서 할아버지들께서 너무 행복해하셨다”라고 말씀해주셨다. 아이들은 환경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또 다른 긍정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을 진행하며, 유아들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그에 따라 가정, 기관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이 지역사회를 통한 경험으로 이어지며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유아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 리더자가 되고, 유아와 부모 간의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유아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며, 기관에서 교사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 또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지역공동체 간의 정을 느끼는 다양한 의미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짐에 큰 의미를 느낀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가정, 기관, 지역사회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와 세계가 아이들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한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을 형성해나갔다. 시작은 교사의 계획이었으나, 환경 활동으로 자긍심, 뿌듯함을 경험한 유아들이 환경 활동에 관심을 다양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먼저 보이고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환경문제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환경 기념일에 대한 관심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시니어클럽과의 고장난 장난감 나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의 녹색 장터', '자원 순환 가게의 찾아가는 수거 보상'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통한 자원순환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유아로부터 시작된 활동이지만, 영아반의 참여가 조금씩 시작되며 이후 활동은 영아반의 참여로 어린이집 전체 프로그램으로 계획 중에 있다.

환경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향후 프로그램을 위해 그 아쉬움들을 남긴다.

첫째, 아이들의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에 집중하여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는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계획한 활동에 집중하다보면, 아이들의 환경적 표현을 그냥 지나치게 될 수 있다. 아이들의 표현에 집중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에 따라 안내하고, 지원하다보면 어느새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습관화하는 유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에는 다양하고 많은 환경보호 기관들이 생겨나고, 환경보호 기관이 없더라도 주민센터, 시청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검색해보고 지원해도 좋지만, 활동을 계획할 때 다양한 자원을 알고 있으면 활동을 진행하기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내가 원하는 활동이 내가 원하는 기관에 없다고 실망하고 단념하지 않고 두드리는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보다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딱 맞는 활동이 없더라도 문의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반복하여 시도하면 맞는 유아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아이들이 변하면 가정은 변화한다. 본 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으로 가정과의 소통을 위해 힘썼다. 가정에 놀이를 전달, 홍보, 안내, 지원요청 등 교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유아가 즐거움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 가정의 참여는 동반된다. 가정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놀이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산업화의 발달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쉬기 어려워 마음아픈 사회에서, 작은 실천으로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환경보호 실천의 작은 습관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V. 참고문헌

- 2010,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 2023,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환영사
- 교육부, 2011년 12월 유아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교사용자료집
- 교육부, 2022년 12월 교사를 위한 놀이지원 연수자료
- 교육부, 2023년 지속가능발전 기반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 교육부, 2020년 4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경기도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2022년 11월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사례집 「일상생활을 놀이로 지도하기」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시립루씨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안산시
프로그램명	쓰리(3) 투(2) 원(1) 출발! 3월부터 시작되는 2롭고 재밌는 1상놀이
총 괄	김선주
기획 및 운영	권소연, 최유리, 김예은, 조광희, 송윤주, 문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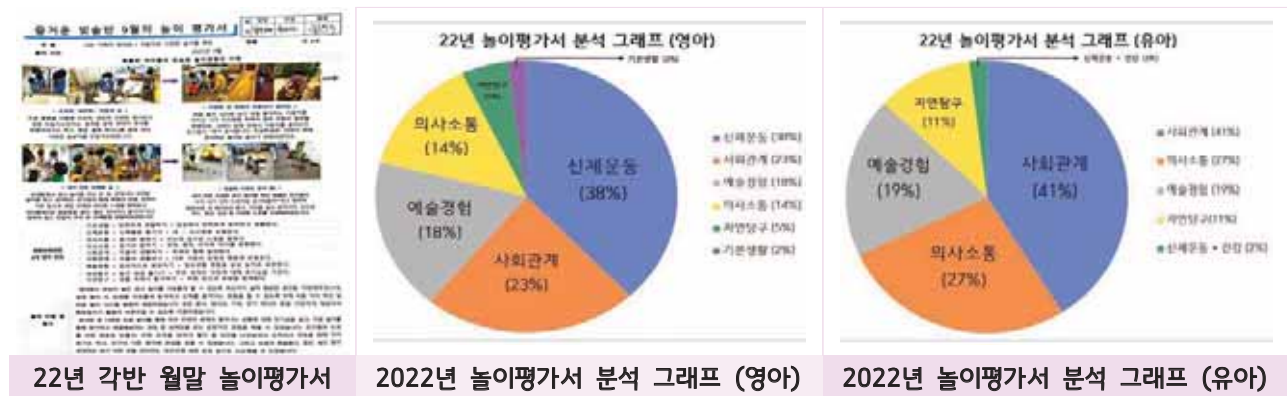
I.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 중심의 놀이와 일상을 강조하고 있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영유아의 놀이는 하고싶고 재미있는, 즐거운 행동일 뿐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배움의 과정이므로 영유아의 개별적인 발달과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놀이를 통해 영유아는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배워간다. 또한 놀이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도 성장해 간다.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에 열중하지만 먹고, 자고, 배변하기와 같은 일상생활에도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일상들도 날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밀접하게 연관되며, 영유아가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발달의 차이를 이해하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은 기저귀갈이, 점심식사, 정리정돈, 장소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도 개별 영유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해야 한다. 안전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획일적으로 진행하거나 교사 주도로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며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각반 매일의 놀이 평가, 매월의 놀이 평가를 토대로 매년 말 영유아들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 경험을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있다. 각 반에서 유의미하고 주요한 놀이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매일, 매월의 놀이 평가이므로 이를 토대로 1년간의 주요 놀이를 통해 경험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영역별로 알아보는 것이다. 22년 분석 결과 놀이를 통해 가장 많이 경험되는 영역이 영아의 경우 신체운동>사회관계>예술경험 순이었으며 기본생활영역은 가장 적게 경험된 것으로 나왔다. 유아의 경우 사회관계>의사소통>예술경험 순이었으며 건강·신체운동 영역이 가장 적게 경험된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본 어린이집 교사들이 토의한 결과, 기본생활영역과 건강영역은 교사 주도의 일상생활을 통해 많이 경험되고 있어서, 영유아 주도의 ‘놀이’를 통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적게 표현되는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일상생활에도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면, 영유아들도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놀이처럼 편안하고 재미있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본 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각반 놀이 지원과 놀이상황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원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서 <놀이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놀이학습공동체는 온라인으로는 <놀이학습공동체 밴드>를 개설하여 각반의 놀이상황과 관련된 빠르고 다각적인 소통과 피드백, 교사로서의 고민 등을 비대면으로 부담 없이 공유하고 쉽고 효과적인 해결 지원 및 협의를 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교사 소모임은 정기적·지속적으로 교사들이 교류하며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놀이 지원에 관한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린이집 일상생활은 날마다 일과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편리하고 즉각적인 온라인 <놀이학습공동체밴드> 운영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사들이 일과 중 틈틈이 서로 간의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원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습공동체 온라인밴드

23년 교사비전회의

비전회의 교사회의록

장애인복지관협력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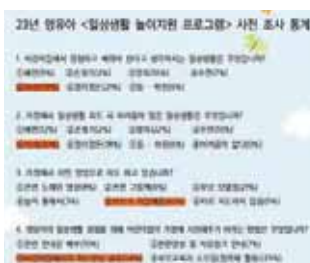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영유아기는 성장이 빠르고 민감하게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출생 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기본생활에 대한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간다. 영유아기 발달 특성상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연속성이 있어, 이 시기 형성된 일상생활 행동은 평생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박정옥, 2009)

이러한 일상에서의 습관을 영유아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형성해간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대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면서 체험하게 된 자극에 반응하고,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보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한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들이 대면으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많이 적었다. 직접 만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람도 적으니 2월 부모 상담 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관련 지도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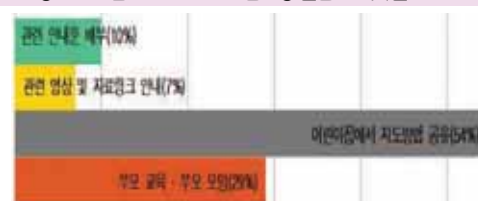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어린이집은 올해 학기 초, <영유아의 일상생활 놀이지원>에 대한 부모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결과 '가정에서 일상생활 지도 중 어려움이 많은 일상생활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식사(30%)>양치(22%)>정리정돈(18%)>배변(12%) 순으로 답변되었으며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을 위해 어린이집이 가정에 해주기 바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어린이집에서의 지도방법 공유(54%)>부모 교육·부모모임(29%)>관련 안내문 배부(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은 각반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놀이지원 사례들을 가정에 키즈노트와 유튜브 어린이집 채널에 공유하고, 다양한 양육 관련 부모교육과 부모모임을 통해 가정을 지원하면서 일상생활 놀이지원 프로그램인 <쓰리(3)투(2)원(1) 출발! 3월부터 시작되는 2롭고 재밋는 1상놀이>를 진행하였다.



가정에서 일상생활 지도 중 어려움이 많은 일상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을 위해 어린이집이 가정에 자원해주기 바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 2023년 3월 ~ 9월 현재 진행 중
- 2) 활동대상 : 어린이집 전체 원아 (만 0세 ~ 만 5세, 장애통합반)
- 3) 프로그램 연간

일상생활 놀이지원 프로그램의 연간 역시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 및 욕구를 융통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 연간과 같은 원리로 계획하였다. 영유아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내용들을 연초 교사들이 마인드맵으로 종합하여 연간의 아웃라인을 수립하고, 각 반 영유아들의 발달, 흥미와 관심, 놀이상황과 지난달(주) 놀이 흐름 등을 반영하여 매달, 매주의 지원하는 일상을 유동적으로 계획하고 변경하며 지원하였다. 프로그램 세부활동 사례는 각 반 1학기 중 진행한 '양치놀이'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매달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 발달과 욕구, 놀이상황, 놀이의 흐름 등에 따라 일상생활 놀이지원은 변경될 수 있다. 아래 표는 현재 1학기 동안의 진행 내용이며, 10월부터는 예상되는 일상지원 놀이 주제를 작성하였다.

연령 \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영아	만0세	등하원	— 식사와 양치 →		낮잠 및 휴식	손씻기	식사		배변		정리	
	만1세	등하원	낮잠 및 휴식		— 식사와 양치 →	식사		배변		손씻기	정리	
	만2세	등하원	식사	— 양치 →		손씻기	배변	식사	정리		낮잠 및 휴식	
유아	만3~5세	등하원	손씻기	정리	식사	휴식	양치	손씻기	식사	양치	배변	정리
	장애통합반	등하원	식사	손씻기	— 양치 →		배변		낮잠 및 휴식		정리	배변

4) 활동방법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1) 만0세 < 세면대는 치카 놀이터 >

신학기가 시작되고 9명의 0세 영아들이 적응기간을 거친 후 식사가 시작되었다. 점심을 맛있게 먹은 후 “점심을 먹었으니 치카치카~” 노래를 부르며 영아들에게 양치를 제안하니 0세 영아들은 아직 칫솔도, 세면대도 낯설어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싫다고 울어버린다. 즐거운 치카를 하기 위해 영아들과 세면대랑 친해지기 위한 놀이가 시작되었다.

1. 관심의 시작 - 으앙 치카가 싫어요

상호작용(관찰하기)



점심을 맛있게 먹은 후 “점심을 먹었으니 치카치카” 양치 노래를 부르자 영아가 교사에게 다가온다. 양치를 하기 전 칫솔을 보여주며 “oo이 칫솔로 치카치카 해볼까?” 하자 금방 다른 곳으로 기어가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칫솔에는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함께 세면대에 가까이 가니 손을 놓고 기어가거나 ‘으앙’하며 거부의 울음을 보인다.

세면대 공간을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적응하여 양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방법을 찾아 지원하였다.

2. 놀이 - 알록달록 세면대 앞 색깔판

자료의 변화(색깔판), 상호작용(공감과 지지), 안전(공간의 변화)



“이게 뭘까?”

“두 손으로 꼭꼭”

“선생님 손잡고 걸어볼까?”

“세면대에서 뭘 할까?”

낮선 세면대 공간에 편안하고 친숙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0세 반 담임교사 3명이 그동안 관찰한 영아들의 흥미를 의논하였다. 놀이 때 색깔과 움직임에 흥미를 보였던 것을 파악해 세면대 앞에 움직이는 색깔판을 깔아주었더니 영아가 기어가서 꼭꼭 누르기도 하고 만져본다. 색깔판 위를 선생님 손을 잡고 영아영차 걸음마하다 바로 앞의 세면대에 서서 손으로 툭툭 치면서 웅얼아도 한다.

3. 놀이 - 신나는 세면대 놀이터!

자료의 변화(고무컵, 양치컵 등), 상호작용(공감), 안전(공간의 변화)



영아의 색깔판 놀이에 흥미를 보인 다른 영아들이 다가와 자연스럽고 세면대 앞에 서보고 들고 온 놀잇감이 세면대 안물에 빠지자 물에 빠진 놀잇감을 가리키며 까르르 웃는다.

“으으어~”(물이 나오네!) “친구가 불력을 풍덩!” “고무컵에 물이 담겼네!” “양치컵으로 해볼까?” 즐거워하는 영아들의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면대에 물을 더 채우고 고무컵 등 좋아하는 놀잇감을 넣어주니 고무컵에 물을 담아보며 컵에도 흥미를 보인다. 양치컵을 제공해 주었더니 물을 담아보며 세면대에 대한 영아들의 거부감이 없어지고 친숙해 하는 모습이 보였다.

4. 놀이 - 신나는 세면대 치카치카! 및 가정연계

자료의 변화(색깔톡톡이), 상호작용(공감), 안전(공간의 변화)



짜잔! 세면대 앞 놀이터 “치카치카 푸카푸카!” “톡톡이 위에 앉아 치카” 친숙해진 세면대 앞이 여러 놀이장소가 되면서 치카도 자연스러워졌다. 가정에서도 세면대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영아들을 위해 <세면대 앞 놀이터> 놀이 지원을 전달하고 톡톡이 등 재료도 공유하였다. 원에서 놀았던 톡톡이가 있으니 집에서도 치카 거부감 줄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놀이
평가

영아들이 흥미를 보였던 색깔판과 톡톡이 등을 이용한 세면대 놀이터를 통해 치카놀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하루일과가 되었고, 영아들은 즐거운 놀이로 하는 양치를 통해 치아와 잇몸이 깨끗해지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세면대라는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영아들의 흥미를 반영한 재료 자원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숙한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2) 만1세 < 좋아하는 치카니깐 하루 종일 쪽~ >

만 1세반은 대부분 영아들이 양치를 매우 즐긴다. 이미 양치가 끝난 영아도 마무리 지으려 하지 않고, 칫솔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거 줘” 라고 한다. 교사가 ‘양치가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며 칫솔을 다시 건네어 주면 조금 더 길어진 양치를 즐거워하며 교사가 다른 놀이를 권할 때 까지 계속 즐긴다. 양치를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영아들의 욕구해결을 위해 일상생활을 더 관찰해보았다.

1. 관심의 시작 - 치카치카 내 칫솔



“이거 줘(칫솔)”

“다시 치카치카!”

“공룡도 치카치카!”

상호작용(관찰하기, 수용하기), 일과의 변화(양치시간 연장)

양치시간에 각자 칫솔을 들고 양치질을 한다. 양치를 끝낸 영아가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거 줘~” 라고 말하며 칫솔에 관심을 보인다. 교사가 더 하고 싶은지 물어보며 칫솔을 다시 제공해주며, 양치시간을 10분 정도 조정하였다. 양치시간이 끝나고 놀이 시간에도 블록으로 공룡양치질을 해주며 양치를 계속 더 즐기고 싶어 하는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

2. 놀이 - 좋아하는 칫솔로 바방이도 치카치카!



“우와 진짜 칫솔이다!”

“여기도 쓱쓱쓱!”

“자동차도 쓱쓱!”

“치약도 짜서 쭈욱~”

어린이집 교사 학습공동체 온라인 밴드에 반상황을 알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지원받아 다

놀이학습 공동체(밴드)

양한 칫솔과 다른 반에서 활용한 칫솔을 보완한다. 촉감칫솔을 추가로 제공해 주었다. 영아들은 제공된 칫솔로 놀잇감을 양치하듯 문질러보기도 하고, 교실에 있는 소품을 활용하여 치약처럼 사용하며 놀이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상호작용(참여하기), 자료의 변화(칫솔, 대형 백업 감각칫솔제공)

3. 놀이 - 칫약을 쭈욱~ 문질문질



“내가! 내가!”

“쭈욱~치약 나왔어요”

“바닥에 뚝~ 떨어졌어!”

“쓱쓱 쓱쓱 문질문질”

치약을 좋아하는 영아들은 스스로 치약을 짜보겠다고 하여 교사와 함께 치약도 짜보았다. 치약이 바닥에 떨어지자 바닥에 떨어진 치약위에 자신의 칫솔로 문질러 보며 놀이를 이어 나간다.

상호작용(수용하기, 관찰하기), 공간의 변화(놀이공간 확장)

4. 놀이 - 온몸으로 문질문질 놀이



“우와 치약이다”

“쓱쓱쓱!”

“양치컵에 쓱쓱!”

“쿵쿵 치약냄새~”

“미끌미끌해요”

“몸에도 발라볼까?”

양치놀이를 하고 싶은 영아들의 뜻을 받아들여 낮잠시간을 20분 정도 조정하여 일과를 융통적으로 운영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돛 자리를 펼쳐 칫솔, 치약놀이를 이어나가고있다. 교사가 제공해준 다양한 향의 치약을 영아가 직접 짜고, 냄새를 맡고, 몸에도 발라보고, 칫솔로 문질러보고 손과 발로 비벼보는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 평가

양치시간을 즐거워하며 양치를 계속 더 하고 싶어하는 영아들의 흥미와 욕구를 잘 수용하기 위해 교사학습 공동체 온라인 밴드에서 유익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해결해보았으며, 해결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매일 사용하는 칫솔과 치약으로 놀이로 연결되어 의미가 있었다.

3) 만2세 < 치카도 놀이도 다 할 수 있어 >

점심시간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다른 친구들이 먹는 동안 영아들은 각자 좋아하는 놀이를 시작한다. 한참 즐거운 놀이 중 선생님이 “우리 치카치가 해볼까?” 라며 양치 할 차례임을 알려주었지만, 놀이를 중단하기 싫은 영아들은 선생님의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놀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양치를 해야 하는 때에도 하던 놀이를 계속 하고 싶은 영아들의 욕구해결을 위해 놀이상황을 관찰하였다.

1. 관심의 시작 - 양치는 해야 되고, 놀이는 하고 싶고

상호작용 (관찰하기)



맛있는 점심 먹고 놀이시작! “누가 양치할래요~” “선생님 더 놀고 싶어요~”

영아가 “선생님 이거 내 인형인데... 더 놀고 싶은데” 말하며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양치하는 동안 하던 놀이가 끊기고 친구가 내가 놀던 놀잇감을 가져가기도 하니 놀이를 멈추기 싫은 듯 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2. 놀이 - 여기는 놀이 보관소! 내가 지켜줄게

상호작용 (갈등상황, 공감, 개별화) 안전 (교구장재배치)



“이거 지켜주세요” “여기에 올려두재!” “내꺼 둘 자리가 없는데..” “여기도 자리가 있어”



“블럭으로 지켜줄까?” “내가 지켜줄게~” “다했어요~자동차주세요”

영아가 직접 찾은 장소를 교사가 교구장을 옮겨 충분한 공간 확보를 도와주었더니 영아들이 벽을 쌓아주기도 하고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며 직접 친구의 놀잇감을 지켜주며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지킴이를 한 영아가 양치를 끝내고 온 친구에게 놀잇감을 건네어 주며 주고 받는게 자연스럽게 마트놀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3. 놀이 - 땡땡! 여기는 치카마트 입니다!

상호작용(놀이참여하기, 제안하기), 일과의 변화(시간조정)



“땡땡-손님 여기서 골라보세요~” “저는 하인킴이요 여기 카트(유모차)에 넣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 학습공동체 온라인 밴드에 놀이상황을 공유하여 양치시간에도 영아들의 욕구에 따라 놀이가 지속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하였다.



“저는 거울이 필요해요~” “여기 거울 있습니다” “나는 발레치카! 나는 공사장 치카!”
 마트처럼 골라 카트(유모차)에 넣어보기도 하고, 영아들이 양치할 때 자신이 놀이하던 역할의상을 그대로 입고 양치하는 등 치카 마트 놀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치질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영아들이 늘었다. 시간이 늘어남으로 양치시간을 10분 정도 조정하여 양치마트 놀이가 충분히 지속되도록 하였다.

4. 놀이 - 양치가 재미있다! (화장실에서 동물 양치놀이)

상호작용(관찰하기, 정서적 지원), 자료의 변화, 공간변화



“원숭이도 치카치가 할까?~” “여기는 내 공사장인데” “우리 화장실에서 우글우글 튼”



“큰 칫솔을 만들어야지” “기린아 내가 닦아줄게 쓱쓱” “물 담아서 우글우글 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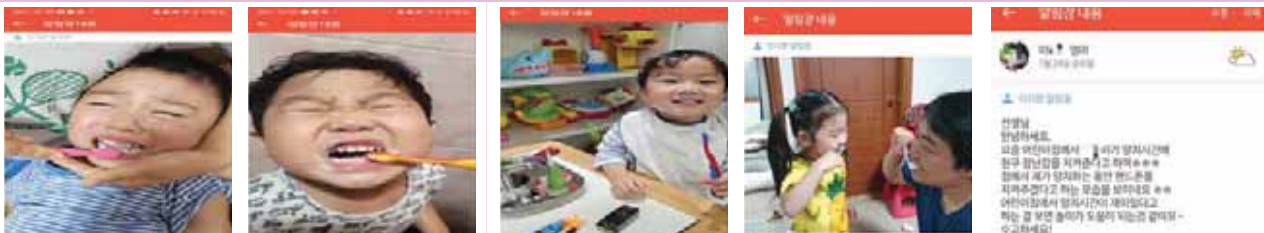
작다며 큰 칫솔을 원하여, 영아들이 직접 백업을 활용하며 만든 큰 칫솔을 만들어 놀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양치가 재미있어진 영아들이 놀이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인형에 양치질을 해주며 놀이하는 모습을 교사가 더 관찰해 보았다. 놀이를 하는 중 다른 놀이를 하는 영아와 공간에 다툼이 생기고, 동물인형을 가지고 가글도 해보기를 원하여,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속상해하는 영아의 마음을 읽어주고, 가글에 대한 욕구도 채워주기 위해 채워주기 위해 화장실로 놀이공간을 확장하며, 더 다양한 크기의 인형을 제공해주었다. 교사가 제공해준 큰 인형한테 칫솔이 너무

5. 가정연계

놀이 사전(키즈노트 알림장)

놀이 사후 (키즈노트 알림장)



가정에서도 계속 놀고싶어서 양치를 거부하는 영아들은 부모님이 억지로 데려와 양치질을 해주고 있었다. 키즈노트(알림장)을 통해 양치하면서 하던 놀이를 계속 가정에 공유하고 가정에서도 양치 중에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하였다. 부모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영아가 즐기는 놀이로 전달하는 등 가정과 지속적인 공유를 했다.

놀이 평가

놀이를 통해서 양치시간에 놀이를 중단하고 와야 한다는 영아들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영아의 욕구해결을 위해서는 작은 관심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양치시간을 싫어하던 영아들이 놀이 이후 오전 놀이시간에도 양치놀이를 하는 모습을 발견함으로 매일 의욕적으로 하던 양치도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4) 만3, 4, 5세 < 아기도 어른이도 건강하게 >

유아반은 요즘 아기와 어른이에 관심이 많다. 하나둘씩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유아들이 생기면서 어느 이가 빠졌는지, 몇 개 빠졌는지, 새 이는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치카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서로 묻고 의논하느라 바쁘다. 성장하며 생긴 건강한 궁금증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더 관찰해보았다.

1. 관심의 시작 - 나 어제 이 빠졌어! 새 이는 어떻게 나? 상호작용 (관찰하기)



“나 어제 이 빠졌어” “넌 뭘 빠졌어? 난 아래!”

“나 어제 이 빠졌어.” “나도 저번에 밥 먹다가 이 빠졌는데 어디 빠졌어?” 치아의 위치와 빠진 순서를 비교하다가 빠진 이를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이야기하던 유아. 한 유아가 “그런데 새 이는 어떻게 나는 거야?” 라고 질문하자 다른 유아가 “까치가 새 이를 가져다준대”라고 말한다.

2. 놀이 - 새 이가 나려면 소원을 빌어야 한대 공간의 변화, 상호작용 (관찰하기, 질문) 자료제공(그림책, 포장지)



“이를 만들어보자!”

“뭘로 만들지?”

“옥수수가 이랑 비슷해!”

“캐노피가 지붕같아” “포장하고 편지도 써볼까?”



“요정이 가져가게 숨기자” “놀이터에도 지붕이 있네!” “소원을 빌자”

이가 아직 빠지지 않은 유아들이 치아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찾아보겠다고 하여, 교사와 유아가 치아로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자료를 찾으러 자료실에 가서 유아가 직접 찾은 조개 껍데기, 아이클레이, 색깔단추 등을 재료로 제공하였다. 그때 옥수수를 관찰하던 유아가 옥수수 알을 치아가 빠진 부분에 대더니 “이거 이 같지 않아?”라고 말한다. 치아를 대체할 또 다른 재료를 찾은 유아들에게 교사가 옥수수알을 포장할 재료들을 제공하자 유아들은 옥수수알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편지도 쓰며 다양하게 꾸민다. 이를 던질 지붕을 찾아보다 교실에 있는 캐노피와 바깥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의 지붕에 던져보고 소원을 빈다.

교사는 유아들의 관심을 다른 유아들과 공유하고 치아가 빠졌을 때와 관련한 내용의 그림책을 함께 본 후 제공해주었다. “이를 지붕에 던지고 소원을 빌 수 있다고?” 동화를 읽은 유아들은 치아를 숨기고 소원을 빌고 싶다고 한다.

3. 놀이 - 3분 양치놀이

일과의 변화(시간조정), 자료의 자원(타이머, 노래), 상호작용(질문, 제안)



“충치가 있으면 안 가져간대!” “천천히 잘 닦아야 돼” “3분동안 숫자 세어볼까?”

새가 이빨 빠저도 안 가져가!”라고 챙겨주기도 한다. 유아가 “천천히 잘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하는 거지?” 양치의 방법과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여 333양치캠페인을 들려주니 따라 해본다. “3분을 양치질 해야 된대!” “3분이 얼마큼이야?” 3분에 대한 시간 개념이 아직 어려운 유아들. 교사가 1분이 60초임을 이야기하자 유아들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양치질을 해본다. 양치도 해야 하고, 숫자도 길게 세어보며 하려니 헛갈려서 양치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유아들은 동화책을 읽어보다 창밖으로 빠진 치아를 던지면 새가 새로운 이를 가져다주는데 충치가 있으면 치아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브라질 설화를 발견하고 놀란다. “그럼 충치가 생기면 안되겠네!” 양치 시간에 서로의 치카 모습을 보며. “양치 벌써 끝났어?? 잘 안 닦으면



“시계보면서 해보자” “긴바늘이 3바퀴 돌아야해!” “모래시계도 할수있어!” “모래시계는 3분이래!” “타이머로도 재보자!”



“3분 너무 길다! 신나는 노래로 뮤직 큐!”

교사가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을 찾아볼까?”라며 제안하자 교실에 시간을 쟁 수 있는 물건을 찾는 유아들. 교실에 걸린 시계를 발견하고 초침이 3번 돌 때까지 양치를 해보기로 한다. 교실에 있던 모래시계도 활용하고, 교사의 태블릿으로 타이머를 제공하여 양치를 해본다. “3분 되게 길다! 시간이 진짜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침이 계속 나와. 언제 끝나는 거야? 타이머로 시간을 재며 양치를 하니 3분이 천천히 가고, 길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유아들. “3분 동안 재미있게 양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교사의 질문에 유아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라고 말한다. 요즘 유아들이 흥얼거리는 피카츄 노래를 틀어주니 춤을 추며 양치를 한다. 노래를 반복하여 틀어주니 노래의 박자에 맞춰 엉덩이를 쉴룩거리며 양치를 한다. 같은 층의 만 3세 동생들이 옆에서 양치하는 것을 보고 “동생들도 양치가 너무 빨리 끝나!” “우리처럼 노래 들으면서 해봐! 신나!”라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틀어준다. 동생들과 함께 엉덩이를 쉴룩이며 즐겁게 양치를 한다.

4. 놀이 - 아이아에 양치송

일과의 변화(시간조정), 자료제공(노래반주, 가사판 재료, 태블릿), 상호작용(제안)



“우리 이렇게 닦아보자!” “여기 그림도 있어 ‘아-아-아-에-’노래 하는 것 같다!”

“노래를 들으면서 해도 3분은 너무 길어” 3분이 즐겁지만 아직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 유아들. “그건 구석구석 안 닦아서 그런 거야!” “어떻게 구석구석 닦는 건데?” 화장실 거울에 붙어있는 양치 순서도를 그림의 순서대로 따라 해보더니 아무 가락을 흥얼거리며

가락을 흥얼거리며 가사를 붙여 부른다. “그거 무슨 노래야?” “피카츄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니까 재밌다!” 순서표에 그려진 입모양에 관심을 가지며 “아~에~이~” 소리를 내며 유아들이 노래를 만들어 양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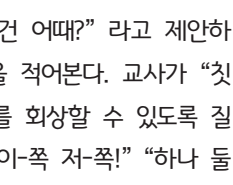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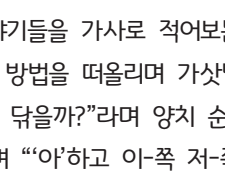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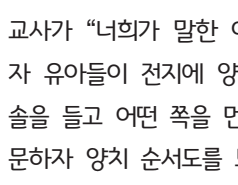
“우리 칫솔을 들고 ‘아’한 다음에 어떻게 하지?”

“글도 적고 그림도 오려서 붙이자”

“가사 순서대로 놓아볼까?”



“우리가 만든 노래 불러서 들어보자”



교사가 “너희가 말한 이야기들을 가사로 적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자 유아들이 전지에 양치 방법을 떠올리며 가사말을 적어본다. 교사가 “칫솔을 들고 어떤 쪽을 먼저 닦을까?”라며 양치 순서를 회상할 수 있도록 질문하자 양치 순서도를 보며 “아~하고 아~쪽 저~쪽 아~쪽 저~쪽!” “하나 둘 셋 넷 이건 숫자로 쓰자!”라며 이야기를 만들고 전지에 적는다. 가사를 받아 적은 유아들은 가사와 어울리는 그림도 그려 오린다. 가사판에 오린

가사와 그림을 순서에 맞게 붙여본다. “피카츄 노래에 불러보자” 유아들의 말에 교사가 노래의 반주를 찾아 틀자 가사를 붙여 부른다. “우리가 노래를 만들었네!” “녹음해보자!”라고 말하며 만든 노래를 연습한 후 반주에 맞춰 태블릿에 녹음을 한다. 직접 녹음한 노래를 화장실에서 들으며 즐겁게 양치한다. 유아들이 노래를 충분히 들으며 양치를 즐길 수 있게 일과 시간을 늘려주었다. 유아들이 만든 노래를 교사 학습공동체 밴드를 통해 다른 연령과 공유도 해보았다.



“이건 ‘아이아예송 춤’이야!” “와 잘 나왔다! 우리 영상 유튜브에 올려요!” 양치송 영상 안내 “양치송 보면서 양치해야지” 만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유아들은 춤을 만들어 추기도 하고, 3분 타이머로 이용하던 태블릿으로 영상도 찍어보았다. 촬영이 끝난 유아들이 “이거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줄래요.”라고 말한다. “유튜브에 올려요!”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럼 유튜브에 올려서 엄마 아빠한테 안내해줄까?” “오 너무 재밌겠다!” “집에서 보면서 양치하고 싶어요.” 영상을 학부모들이 보는 어린이집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뒤 QR코드로 링크를 안내하여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5. 놀이 - 이가 빠진 곳은 어떻게?

자료의 변화(그림책, 구강모형), 상호작용(제안, 질문) 부모참여(부모일일교사) 자료제공(위터픽, 어금니 칫솔 등 치과도구), 공간의 변화(공간통합)



“이 모양이 다 달라” “구석구석 어떻게 닦는거지?” “이가 빠진 곳은 치실과 위터픽을 써서 깨끗하게 해요” 치아 모양을 비교해보던 유아들,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닦지? 교사는 유아들이 치아 모양별로 양치 방법을 유추해보도록 구강 모형을 제공했다. 칫솔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형에 칫솔질해보다가 교사가 “치과의사한테 물어보자. 치과에 가볼까?”라며 제안한다. 치과를 무서워하는 유아는 “싫어요! 병원은 무서워요!”라고 말하자 한 유아가 “우리 엄마 치과에서 일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자”라고 해 치과에서 일하는 학부모를 초청하여 <건강 치아 교실>을 열었다. 치위생사인 학부모님은 양치질 방법과 다양한 기구를 활용한 치아 관리법을 알려주셨다. 유아들은 다양한 기구를 직접 실연해보며 양치 방법을 경험했다.



“어금니는 이렇게 닦는거랬지? 치실도 해볼래?” “우리가 치위생사랑 치과의사가 돼서 알려 주자.” 치위생사 부모님이 다녀간 후 치과 놀이가 활발해졌다. 기존에 있던 병원 놀이 놀잇감 뿐만 아니라 안 쓰는 위터픽, 어금니 칫솔 등을 놀잇감으로 제공하자 건강 치아 교실에서 경험한 내용이 놀이에 녹아난다. 유아들은 누워있는 유아에게 “이렇게 해야 깨끗한 새 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 양치하는 방법을 흉내내며 환자에게 알려주는 놀이를 한다.

6. 지역사회연계 - <이튼튼 구강교실>체험

지역사회연계지원



유아들에게 보건소를 소개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이튼튼 구강교실>에 참여했다. 건강한 양치 방법을 알아보고 프라그를 확인하며 검진과 불소도포 등을 통해 치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경험해보았다.

놀이
평가

새 이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을 그림책으로 지원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를 건강하게 잘 지키고픈 욕구를 유아들이 스스로 탐구하여 방법을 찾아 채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노래를 만들고 동영상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등 자신이 아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장애통합반 < 친구랑 같이 하는 양치는 좋아! >

장애 통합반 3명의 유아 중 두 명의 유아(정OO / 엄△△)는 양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상담 시 가정에서도 양치를 하자고 하면 도망가거나, 공격적인 행동이나, 우는 등 양치의 어려움을 보여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치과 진료를 자주 받아야하나 치과 진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도 교사가 양치를 권하면 칫솔을 가지고 입 주변을 두드리며 돌아다니거나,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리지 않는 등의 거부 모습을 보인다. 양치질에 관심이 별로 없는 장애 유아가 관심을 갖는 건 무엇일지를 관찰해보았다.

1. 관심의 시작 - 양치는 관심없지만, 칫솔은 조금 궁금해 상호작용 (관찰하기)



“양치하기 싫어요”



“칫솔로 놀아야지!”

양치 시간에 교사가 치약을 묻혀 “우리 양치 해볼까?” 제안하자, 고개를 돌리거나, “아아”라고 말하는 등 양치질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냥 칫솔을 가져가 책상을 문지르고, 머리, 입 주변을 두드리는 감각 추구 놀이를 반복한다.

2. 놀이 - 소리와 촉감에 귀가 쫓김!

자료의 변화(여러 가지 칫솔, 채망, 모양자, 종이, 치아 모형 놀잇감, 치약, AAC카드), 상호작용(공감), 또래 자원(상호작용)



부드럽고, 딱딱하기도 하네 ‘쓱쓱쓱’ 소리가 나요,

쓱쓱 소리가 많이 들려-

몽글몽글 거품이 난다!

양치는 아직 싫어요

다양한 촉감의 칫솔로 여러 신체 부위와, 이곳저곳을 문질러보면서 소리를 탐색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 소리 나는 물체(채망, 모양자 등)를 주니 문지르며 놀이한다. 함께 놀이하던 비 장애 유아가 “우리 치약이 내는 소리도 들어보자”라고 말하며 치약을 짜서 문지르고, 거품이 나기 시작하자 채망의 거품을 만져보기도 하고, 더욱 반복적으로 문질러보며 놀이한다 소리와 거품이 잘 나는 치아 모형을 주자 문지르며 소리를 듣고, 치약 거품도 내보며 놀이한다. 이후로 칫솔로 놀이하여 AAC카드를 보여주며 “양치할까?” 하지만, AAC카드를 던지고, 치아모양 놀잇감에 칫솔을 문지르며 놀이한다.

장애 유아 지원전략

- 유아가 직접 좋아하는 촉감의 칫솔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드러움의 강도가 다양한 칫솔을 제공해주었다.
- 칫솔을 문지르며 소리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며, 문질렀을 때 다양한 소리가 날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하였다.
- 거품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소리와 거품이 많이 나는 백업 치아를 가진 악어 놀잇감을 제공하였다.
- 언어소통에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AAC카드를 통해 상호작용 하며 “네”또는 “싫어요”하고 모델링을 해주어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래 놀이를 모방하여 놀이가 지속되도록 지원하였고, 같이 놀자는 말에 “응”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해주었다.

수행한 IEP

- | | |
|-----|--|
| 엄△△ | <p>실내놀이 2-1 교사의 놀이를 관찰한 후 모방하여 놀이해본다.</p> <p>실내놀이 2-2 도움을 받아 친구와 같은 놀잇감을 공유하며, 놀이를 시도한다.</p> |
| 정OO | <p>실내놀이 1-2 제시한 친구에게 놀잇감을 전달한다.</p> <p>실내놀이 2-1 새로운 놀잇감의 사용방법을 알고 사용한다.</p> <p>예술작업 1-1 교사의 촉진으로 도구를 바르게 잡는 자세(삼점 쥐기)를 5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p> |

3. 놀이 - 입 속에서도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

상호작용(공감하기, 정서적 지원), 또래 자원(모델링 및 상호작용)



형 입에서 거품이네!



문지르면 거품이 날까?



너도 양치해봐~



쓱쓱쓱 양치하고 싶어?



거품을 하고 싶었구나!

거품 놀이에 관심이 높아진 유아가 양치하고 있는 비장애 유아의 입에서 거품과 소리가 나자 비장애 유아의 입에 자신의 칫솔을 넣어 문지르려고 한다. 비장애 유아가 “양치해봐, 문지르면 거품 나”라고 하자, 유아도 직접 자신의 이도 문지르고, 거울에 가서 거품이 나는지 살펴본다. 이 후로 칫솔을 건네며 같이 양치하자고 하지만, 발화가 힘들어 상호작용을 어려워해서, 교사와 통합반 유아가 AAC 카드로 상호작용했던 것을 기억한 비장애 유아가 AAC 카드로 상호 작용 한다.

장애 유아 지원 전략	- 또래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또래가 지원을 하여 양치 소리와 거품을 탐색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또래와 함께 양치하는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 및 공감 쌓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발화의 어려움을 보여 AAC 카드를 통해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수행한 IEP	엄△△	간식 및 점심 4-2 칫솔에 치약을 짜주면 이에 가져갈 수 있다. 간식 및 점심 4-3 이에 가져간 칫솔을 이에 대고 문지르거나 씹어볼 수 있다.
	정OO	간식 및 점심 3-1 손에 힘을 주고 칫솔을 치아에 가져가댄다. 간식 및 점심 3-2 손을 덧잡아 5회 연속하여 칫솔질을 할 수 있다.

4. 놀이 - 내가 만든 알록달록 세면대에 우글우글 뿜!

자료의 변화(물감, 붓, 스티커, 싸인펜, PECS카드), 또래 지원 (상호작용 상호작용(공감) 인턴 (공간의 변화),



물이 더 재미있어! 푸룽푸룽 새싹아 물 줄게! 주황색 물이 흘러가요~ 세면대가 무지개로 변신 형! 양치 놀이가 하고 싶어 양치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으나, 입은 행구지 않고, 물을 손으로 탐색하는 모습만 보인다. 세면대에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색 변화에 호기심 이 높았던 점을 떠올려 직접 물감을 짜보고, 붓으로 색칠 또는 싸인펜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물담색 놀이 보다는 입안을 행구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로 양치 관련 놀이를 PECS카드를 이용해 의사 표현을 하며, 또래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지속하였다.

장애 유아 지원 전략	- 세면대에 스티커를 붙여주어 유아가 물을 빨아야 하는 공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미술 놀이에 흥미가 높아 유아가 세면대에 직접 물감을 칠하거나, 싸인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비장애 유아와 장애유아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PECS 그림자료를 제공하였다.	
수행한 IEP	엄△△	간식 및 점심 4-3 이에 가져간 칫솔을 이에 대고 문지르거나 씹어볼 수 있다. 간식 및 점심 4-4 칫솔을 잡고 5회 연속하여 칫솔질을 한다. 예술작업 1-1 쓰기 도구나 미술 재료를 쥐고 사용한다.
	정OO	간식 및 점심 3-3 모델링을 보며 스스로 칫솔을 조작하여 앞니, 혀바닥을 연속하여 2회이상 문질러 닦는다. 예술작업 1-1 교사의 촉진으로 도구를 바르게 잡는 자세(삼점쥐기)를 5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

5. 가정연계

놀이 사후 (키즈노트 알림장)

6. 지역사회연계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협약 순회지도



양치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으나, 물을 세면대에 빨는 것은 아직 어려워한다는 것을 인내하고, 가정에서도 우글우글 뿜! 놀이 등을 통해 물 빨는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관과 협약하여 순회지도 방문, 연락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놀이 평가 유아가 양치를 거부하지만 거품과 칫솔의 촉감은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이에 몰입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스스로 양치를 시도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비장애 유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보안대체의사소통기기 (AAC카드, PECS자료 등)를 비장애 유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친 사회적 지원에 도움이 되었다.

III. 활동평가

1. 영유아의 변화

23년 1학기 <쓰리(3)투(2)원(1) 출발! 3월부터 시작되는 2롭고 재밋는 1상놀이>를 통해 일상생활도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더 반영되고, 즐겁고 편안하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의 하나로, 9월에 각 반의 1학기 놀이평가서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 내용을 영역별로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22년 2월에 실시한 22년도 평가에 비해 23년 1학기에는 영아들의 놀이에서 기본생활 영역이 2%—23%, 유아들의 놀이에서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2%—21%로 더 많이 드러나 놀이 속에서 일상생활에 관련 된 부분이 많이 표현되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는 영유아의 모습에도 변화들이 관찰되었다. 놀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일상생활 이야기가 놀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공간활용의 변화	[오전 간식 시간] “우리 이제 간식 먹을까요?” “우리 소풍놀이하고 있어요. 소풍 자리에서 먹고 싶어요.” “여기서 간식 먹으니깐 더 맛있어.”	
자기표현의 변화	[놀이 중 양치 시간] “발레리나가 치카하는 거야. 치카하고 발레도 할거야.” “나는 똑딱똑딱 아저씨야. 이거 공사장 치카야.” “발레리나는 치카하고 공사장에 갈게.” “집 지면서 발레 봐봐”	
생각의 변화	[낮잠 시간] “낮잠 시간에 별을 보면 좋겠어요.” (지원 후) “오! 저기 별이 많아. 오로라도 있어.” “여기는 우주 마을이야. 우주 마을 캠핑장.”	

2. 교사의 변화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 힘이 나요

온라인 교사 밴드를 통해 다른 선생님들의 지원 고민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나만 그렇게 고민하는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동질감도 느꼈어요. 또 고민에 대한 선생님들의 조언과 격려에, 힘이 나서 적응도 해보고 교사로서의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힘이 나요.

<놀이학습 공동체> 밴드 중 만2세 빛솔반 교사 이선아



교사 학습공동체 소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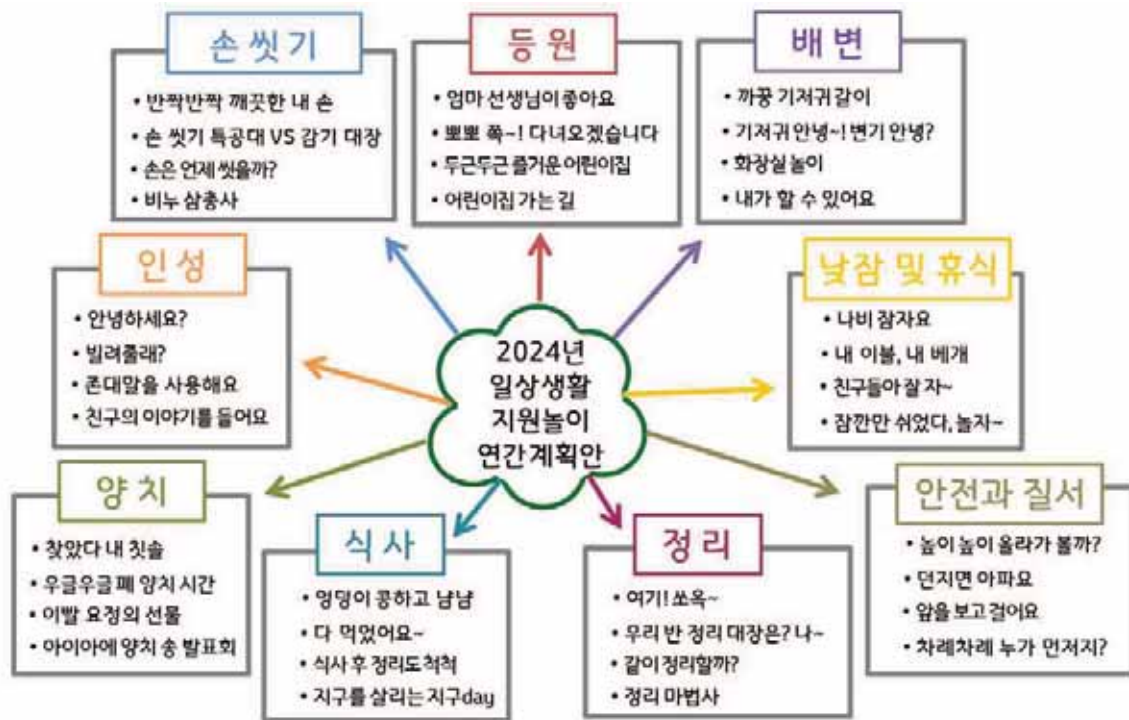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3년 2학기 프로그램 진행 계획

23년 연간 계획에는 모두 7가지의 일상생활 관련 주제들이 들어있다. 그 중 등하원, 식사, 양치 등 1학기 동안 많이 경험해 보았던 놀이 결과들을 고려하고, 앞으로의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2학기 계획도 융통적으로 조정하며 7가지 일상생활을 다채롭고 더욱 재미있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page3. 연간계획안의 표 참조)

2.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23년 1학기 교사 운영 평가에서 영유아가 일상생활 하는데 7가지 주제 외에 함께 경험하는 것들에 ‘인성, 안전과 질서’ 관련 내용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등하원 하고, 정리 하면서 영유아는 배려, 존중, 나눔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며 경험하게 되고, 식사, 양치, 낮잠 등의 일상에서는 안전과 질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24년에는 그러한 주제들을 함께 연계하여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교육 등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과 질서를 더욱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체험 놀이도 연계해 볼 것이다.



V. 참고문헌

- 한국보육학회지 (2022. 제22권 제2호 P31~45. 우현경) 영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반 교사의 놀이지원에 관한 질적 탐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2020. 보건복지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놀면서 자란다 (영아/유아) (202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학논집 (P185~202. 김미숙, 송운진 2011). 보육시설 유아의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습관 실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제16권 v.16 2016. p.242 - 248) 어린이 일상생활 구강영양지수(C-OIDP)와 구강관리 및 구강건강행태와의 관련성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2019. 구민관, 박영근) 지적장애학생 일상생활기술 지도에 대한 초등특수학급 교사들의 인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학술저널 (제72집 2012. P263~279. 김미숙, 민시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생활습관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일상생활습관의 매개효과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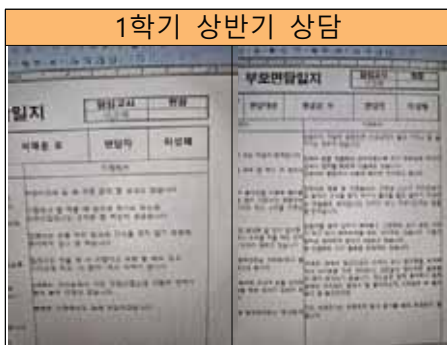
시립선유3단지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파주시
프로그램명	지금 여기 미(美)래 “놀이가 나다”
총 괄	이범선
기획 및 운영	이성혜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프로그램이 진행된 우리반 만 2세반은 6월부터 장애통합반이 되어 비장애영아 6명, 장애영아 3명 총 9명의 영아로 구성되어 학기 초부터 9명의 영아가 모두 기저귀를 차고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있다. 학기 초 적응기를 지나 4월에 진행된 부모면담에서 생일이 상반기인 부모님들께서는 봄부터 기저귀 떼고 싶은 부분을 요청과 부모님과 부모정담회를 하면서 부모님들께 어린이집에서 <놀이가 나다>라는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영아는 어린이집 생활에서 일상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더 자연스럽게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모님들과 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누었다. 비장애아 6명중 5명은 작년에 담임을 맡아 개별적인 성향을 익히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리기가 충분히 더 필요하고 호기심과 재미있는 놀이에 더욱 관심이 많으며 이에 영아별 접근을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즉, 놀이가 나다 프로그램은 영아들의 발달과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놀이를 통해 기저귀 같이, 배변훈련 뿐만 아니라 급, 간식, 낮잠, 청결과 위생과 관련된 일상생활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아와 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영아들이 일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며 영아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이 편안하고 안정된 어린이집 생활을 이루어 영아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영아중심·놀이중심 보육프로그램이다.



- 용기를 하고도 계속 놀이를 해요
- 기저귀에 쉬를 하고 '쉬했어'라고 표현하지만 편지는 안 입으려고해요
- 변기에 시도는 하지만 쉬는 안해요
- 씻는것을 싫어해요
- 밥을 잘 안먹어요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영아에게 놀이는 생활 그 자체이며, 영아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이 놀이에 소비하므로 영아기에 놀이는 영아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들은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며 놀이를 통해 언어의 발달과 신체운동 발달, 감각발달, 자율성과 독립성까지 키워줄 수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율성이 향상되는 기회가 된다. 그 중 영아기에 배변활동은 일상생활 중 영아가 신체적으로 방광과 괄약근을 조절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영아는 실수와 좌절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도 불안함과 갈등, 혼란을 겪어야 하므로 영아에게 있어 어려운 문제지만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조절력을 발휘하여 변기에 배변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면 성취감과 함께 자율성이 향상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영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자는 과정 또한 정서와 긍정적 자아 형성과 기본적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영아는 어린이집 생활에서 일상생활의 먹고 자고 싸고 씻는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놀이를 주도하며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습관 형성을 경험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

영아는 일과를 어린이집에서 보내면서 배변과 같은 일상생활을 통해 자기 뜻대로 조절해보려는 자율성을 시도하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 비언어적인 반응과 상황에 따른 언어적 표현, 몸짓, 음조 등 다양한 상황과 동작들을 매우 잘 살피고 접근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놀이감과 놀이매체를 통해서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기도 하고 교사의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영아가 보육교사에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아는 어린이집 환경을 탐색하는 데 흥미를 갖지 못할 것이고, 교육이나 자극을 받기위한 좋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경옥, 2016). 보육교사는 영아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하며 영아의 전인발달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부모와 교사 간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부모와 교사는 영아 발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홍지명, 2015).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교실에서는 영아들이 생활하는 교실은 계절의 변화를 영아들이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주제 흐름을 바탕으로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필요한 환경 구성과 교사의 정서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상호작용과 모델링으로 자연스러운 배움이 일어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감각놀이 등 다양한 놀이경험과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발달과업과 바른 생활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급간식, 낮잠, 양치, 손씻기, 가장 중요한 배변 등 일상에 관한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영아들이 익혀나가면서 스스로 시도하고 반복적인 성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 경험 모든 것이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돕는 과정으로 교사와 교사, 교사와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협력하고 소통하여 운영한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 2023년 3월~ 2023년 8월 현재

2) 활동대상 :

구분	대상	반 운영 교사	비고
2023. 3.2 ~ 2023. 5.31	서로새싹반 9명	담임교사 + 영아보조교사	농어촌 특례 인정
2023. 6.1 ~ 현재	장애통합반 운영 (장애아기본반 3명 + 일반아동반 6명)	장애통합교사 1명 + 일반반 담임교사 1명 + 영아보조 교사 1명	장애아기본반과 일반아동반 통합보육

3) 프로그램 연간

월	예상 주제	일상생활 지원	예상놀이	월		일상생활 지원	실행놀이
3월	어린이 집에 왔어요	일과놀이	낮잠 자는 곳을 둘러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3월	어린이 집 친구	일과놀이	내 이불 찾기 음식모형을 가지고 놀이해요
4월	봄이 예요	즐거운 배변놀이	내 기저귀 찾아보기/ 휴지통에 기저귀를 버리기 천기저귀 만져보기/ 물감으로 쉬 표현 미끌 미끌 천본 놀이	4월 5월 6월 7월 8월	봄 가족 동물 여름	즐거운 배변놀이 건강한 먹기 놀이 편안한 낮잠놀이	똥똥 똥똥 안녕? 변기도 안녕?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있어요. 쉬는 무슨 색깔까? 똥을 만들어 볼까? 달팽이 똥 / 먹는 것은 똥이되요. 절소야 잘 먹었니? 사자야 용가해야지! 개미, 배짱이 놀이를 해요. 선생님 내가 지구를 지켰어요. 만들어 먹어요. 이불, 포대기, 모자, 썰매 천기저귀로 놀아요. 이불만들기 & 잠옷 입은 나예요.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조용한 노래를 들어요. 책을 봐요 잠옷 입은 나와 포근한 내 인형과 잠을 자요
5월	나, 가족	편안한 낮잠놀이	손수건 이불 만들기 선생님과 자장가 노래를 부르기			건강한 먹기 놀이	
6월	동물	맛있고 건강하게 놀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마이크에 대고 말하기 식판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보기 젓가락과 숟가락을 이용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옮기기			편안한 낮잠놀이	
7월 8월	여름 이예요	깨끗한 위생놀이	거품놀이 / 비누놀이 / 목욕놀이 세균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깨끗한 청결놀이	세균이 있어요. 양치놀이를 해요. 거품으로 놀아요. 향기가 나요.
9월	탈것	재미진 배변놀이	변을 보려면 야채,과일을 듬뿍먹어야 해요 (과일,야채놀이) 채소 절구에 찜어 대변 표현하기 화장실 길 따라 가기	9월 10월	탈것 가을	재미진 배변놀이	누가 내머리에 똥 썼어?
10월	가을 이예요	즐거운 낮잠놀이	애착인형을 가지고 낮잠 자요 아기재우기 놀이	11월	색깔	잘자라 낮잠놀이	
11월	색깔	건강한 먹는 놀이	야채를 모양 틀로 찍어 보며 맛 보기 야채 썰어 오감놀이	12월	겨울 이예요.	건강한 먹는 놀이	
12월	겨울 이예요.	깨끗한 청결놀이	양치교구를 가지고 올바른 양치방법	1월		청결	
1월 2월	형님이 되어요	건강한 나	휴지놀이 기저귀안녕 팬티아 반가워 축하파티 야채주먹밥 만들기	2월	형님이 되어요.	건강한 나	

4) 활동방법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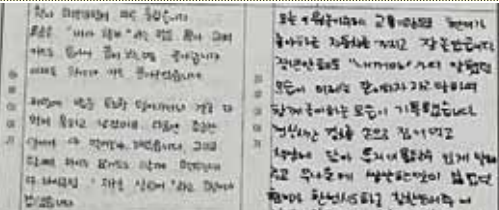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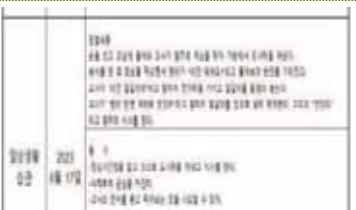
놀이주제	즐거운 배변놀이	활동시기	5월 ~ 8월
주요경험	배변에 대한 심리적 •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쉬, 똥에 대한 감각놀이와 변기에 대한 친근감을 최대화하여 영아가 실제 배변을 성공적으로 해보는 경험을 통하여 만족감과 조절력을 키운다.		
활동지원 & 활동내용	똥 • 쉬 • 변기와 친해져요.	똥똥똥 쉬쉬쉬 안녕? 변기도 안녕? 배변과 관련된 그림책을 보면서 영아들이 똥과 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영아들은 “선생님 이것 봐 똥이야” 누가 똥 샀어“ “변기에 쉬했어. 그림책을 보면서 관심을 표현하였고 ” 쉬는 어디에 하는 걸까?“우리도 변기에 해볼까?“라고 응가와 쉬가 나올 때 변기에 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실에 놀잇감 변기를 제공하여 아직 화장실의 변기가 친숙하지 않는 영아들도 놀잇감을 들고 앉아보기도 하고 변기를 뚜껑을 열고 닫으며 교실에 있는 아기인형을 변기에 앉아 쉬~라고 말하며 변기와 친숙해지도록 하였다.	배변 동화 지원  영아: “선생님 아기 쉬 했어요” 교사: 아기가 쉬를 했구나~  아기형 같이 앉아 봐요~
	화장실 변기와 친해져요.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있어요. 수족관을 지나 화장실에 가면 나에게 꼭 맞는 변기가 있어요~ 푹푹 문을 두들겨볼까? 문을 열어볼까? 실제 변기에 용변 보기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보며 변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쉬가 나왔나? 안 나왔네? 그래도 물은 내려 봐야지~ 변기와 화장실에 더욱 편해질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하였다.	   
	소변(쉬) 놀이 해요.	쉬는 무슨 색일까? 소변 색깔은 어떤 색일까? 영아들과 내 소변은 어떤 색일까? 라고 말하며 소변색깔에 관심을 가졌고 “노란색”“하얀색”이라고 대답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는 영아의 생각을 인정해 주며 영아들이 소변의 색깔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의 물감과 스포이드 도구를 제공해 주었더니 영아들은 코인티슈와 솜에 소변의 색깔을 표현하며 놀이 하면서 교사는 영아들에게 “건강한 소변색깔은 노란색이야~”라고 알려주며 놀이에 함께 참여해 보았다.	   교사: 기저귀에 물이 닿으니까 어때? 영아: 무거워 교사: 우리 쉬는 어디에 하는 걸까? 영아: 변기에서 해요 교사: 기저귀에 하면 어때? 영아: 무거워요~ 무거워진 기저귀는 쓰레기통에 함께 버려보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저귀야 안녕~

활동 지원 & 활동 내용	대변(똥) 놀이 해요.	똥을 만들어 볼까? 그림책에 다양한 똥이 나오면서 영아들과 함께 다양한 느낌의 점토를 가지고 똥을 표현해 보았다. “내 똥은 길어요” “내 똥은 동글동글해요” 라고 말하며 밀가루 반죽, 클레이반죽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나는 코끼리 똥 처럼 커!” 라고 말하며 커다란 똥을 만들어보고 손바닥으로 작게 굴러 나는 똥이 작아~ 토끼 똥이야” 라고 말하며 다양한 모양의 똥을 만들어 보며 똥에 대하여 친근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아들에게 다양한 똥에 대한 표현을 돕기 위해 전분을 지원해 주었고 영아들은 물과 섞인 전분가루를 뭉쳐 덩어리를 만들기도 하고 손에서 뿌직 소리를 내보면서 똥 응가 하면서 놀이하였다.	 길게 똥을 만들어 볼까요?  내 똥은 동글동글해요  내 똥은 동글동글해요  뿌지직 소리 나요 <똥은 말랑하고 딱딱한 똥만 있을까?> 주먹을 쥐었다 펴보면 사라지는 미끌미끌한 전분 느낌을 느껴보고 교사는 “뿌지직” 소리를 내주며 손안에서 나는 소리를 언어로 표현해 주며 놀이하였습니다. 영아들은 “방귀야 방귀라며 웃었고 교사는 맞아~응가 가 나올 때는 방귀가 뽕뽕 나오면서 신호를 보내~
	누구나 똥을 눠요.	달팽이 똥 영아들이 발견한 달팽이를 교실에 가지고 들어와 집을 만들어 주고 달팽이를 관찰이 이루어져 책을 통해서 또 실제 달팽이의 생활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달팽이가 눈 똥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았으며 당근을 먹고 주황색 똥이 나오는 달팽이를 보며 “아~ 주황색 당근을 먹으면 주황색 똥이 나오는구나~” 하며 영아들의 달팽이처럼 자신이 먹으면 어떤 똥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였다.	 산책 시 발견한 달팽이.  교실에서 달팽이를 관찰 했어요  똥을 누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모두 똥을 누어요.	먹는 것은 똥이 되요. 똥 그림 위에 여러 가지 색깔 스티커를 제시하니 영아들을 당근을 먹으면 주황색, 오이를 먹으면 초록색하면서 스티커 붙이기를 하였다. 또 커다란 똥 그림과 음식모형 스티커를 지원하였다. 영아들을 큰 똥 그림위에 음식 스티커를 붙이다가 영아들은 종이블록으로 의자를 만들어 가족 인형을 나란히 앉혀 음식 스티커를 붙이며 먹은 음식이 커다란 똥이 되었음을 나타냈다. 한 영아가 엉덩이에 스티커를 붙여보며 “음식을 먹어서 엉덩이로 똥이 나왔어” 라고 말했다. 먹으면 똥이 되는 과정을 가족 인형을 갖고 맘껏 표현하며 누구나 먹고 먹은 것은 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놀이로 표현하였다.	  

활동 지원 & 활동 내용	먹은 것은 똥이 되요. 젖소야 잘먹었니? 사자야 응가 해야지! 영아들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때 재활용 상자를 이용하여 영아들과 물감을 젖소의 무늬를 표현하고 종이를 붙여 사자의 갈기를 만들어 붙여 젖소와 사자를 만들었다. 많은 영아들은 동물 입속에 관심을 보여 교사는 입에 음식을 먹으면 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종이관을 입과 꼬리 부분을 연결해 제공하였고 영아들은 “선생님 입이야”라고 말하며 교실에 있는 음식모형을 넣어주었고. 음식을 넣었고 음식을 먹는 동물꼬리에서 음식모형이 나오면서 영아들은 “똥 나왔어”라고 이야기 했다. 교사는 “음식을 먹으니 똥꼬로 음식이 나왔네” 라고 말하자 한 영아가 “똥이야 똥!”이라고 말하며 모형변기를 끌고와 대주면서 먹고 응가를 하는 배변놀이를 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연계	부모참여활동 - 열려라 놀이 커저라 행복 엄마 아빠와 함께 놀아요. 제로웨이스트 & 건강한 전시회 우리 다함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지렁이·저탄소 생활습관 실천행동을 우리가 사는 지역 생활환경을 위해 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유아가 습관 형성 습관으로 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1일 (토) - 9월 1일 (일) 어린이집 대합실 및 전영제대어린이집 앞 오픈채 ● 다 같이 참여 기간 및 방법 : 2023년 8월 28일 - 8월 30일 (아래 참여방법 참고) <table border="1"> <thead> <tr> <th>연계</th> <th>장소</th> <th>진행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집</td> <td>제로웨이스트 전시회</td> <td>관람후 재활용품들을 이용하여 만들거 놀이 재료, 생활용품으로 만들기</td> </tr> <tr> <td>관람</td> <td>제로웨이스트 전시회</td> <td>관람후 재활용품들을 이용하여 만들거 놀이 재료, 생활용품으로 만들기</td> </tr> </tbody> </table>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재활용을 이용한 우리 반 친구들이 놀이한 놀이감을 전시회 하기로 했어요. 음식을 입에 넣고 똥꼬로 똥이 나오는 우리 젖소와 사자는 체험형 전시회를 동생 반 친구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았지요. 먹는 것도 좋고 잘 먹으면 더 튼튼해지고 응가도 잘 눈다고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 하며 또 놀고 또 놀고 좋아합니다. 가정과 소통해요. 어린이집에서 관찰해요.	연계	장소	진행 방법	어린이집	제로웨이스트 전시회	관람후 재활용품들을 이용하여 만들거 놀이 재료, 생활용품으로 만들기	관람	제로웨이스트 전시회	관람후 재활용품들을 이용하여 만들거 놀이 재료, 생활용품으로 만들기	
연계	장소	진행 방법									
어린이집	제로웨이스트 전시회	관람후 재활용품들을 이용하여 만들거 놀이 재료, 생활용품으로 만들기									
관람	제로웨이스트 전시회	관람후 재활용품들을 이용하여 만들거 놀이 재료, 생활용품으로 만들기									

놀이주제	건강한 먹기 놀이	활동시기	4월 ~ 8월
주요경험	● 골고루 먹기와 남기지 않고 먹기를 실천해볼 수 있도록 역할 놀이를 통해 거부감을 줄이고 영아의 초기 입맛 형성에 도움되고 바른 식습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원 & 활동내용	개미, 배짱이 놀이를 해요.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모형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교사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아들과 함께 먹는 놀이를 하며 “토마토를 먹으면 동이 잘 나와” “파프리카를 잘 먹으면” 눈이 좋아져~라고 얘기하자 영아들은 교사의 언어를 듣고 따라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흥내를 내며 놀이를 하였다. <배짱이가 달라졌어요> 영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반복하여 들려주며 개미와 배짱이 머리띠를 제시하여 책 내용처럼 개미, 배짱이가 되어 놀이도 하고 실제 머리띠를 하고 급식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어보았다. 영아들은 그림책 내용처럼 식습관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영아들은 친구를 기다려주며 줄을 서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배짱이와 개미의 올바른 식습관> 1.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2. 다른 친구의 음식에 손대지 않아요 3. 음식물을 입에 넣고 말하지 않아요 4. 음식을 남기지 않고 골고루 먹어요 5. 음식을 먹은 후 깨끗하게 영지컬해요	
	선생님 내가 지구를 지켰어요. 영아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식사 환경에 더욱 영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먹어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점심시간 <밥과 반찬> 노래를 들으며 식사 시간을 진행하였고 잔반통에는 남기지 않고 먹으면 지구가 웃어요를 표시하여 항상 영아들이 골고루 잘 먹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아들은 점심을 먹으며 밥 한번 먹고 반찬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라며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따라 부르며 먹어보면서 “선생님 이거 안 먹을래요”라고 말하는 영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조금씩 또는 한번씩 시도하며 먹어보는 영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잔반통에 잔반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없게 식판을 비우고는 “나도 선생님처럼 지구 지켰어요!” 라고 말하며 자랑하며 뿌듯해 하였다.	  	

	건강하게 되요.	만들어 먹어요. 영아들은 채소와 과일은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영아들이 직접 자르고 탐색해 보면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맛을 보는 영아들도 있었고 먹는 것을 거부하던 영아도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입에 넣어보는 영아도 있었다. 영아들이 직접 잘라본 야채, 과일을 골라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보면서 주스를 만들어 보았다. 교사는 영아들에게 이걸 무슨 맛이야? 라고 물어보니 “건강한 맛이야”라고 말했고 교사는 우리가 “만든 건강한 주스야” 라고 말하며 “우리 몸이 튼튼해 질 거야” 라고 말해주니 교사의 말을 따라하며 “나도 건강해 질거야”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탐색하기>잘라 보기>주스 만들기>마셔보기 
--	-------------	---	--

활동연계	남남남 잘 먹어요.	부모교육 & 가정연계 활동  건강식재료로 저녁해서 먹기, 무순, 숙주키워 맛있는 요리해서 먹기 실천해요.	교사 교육 - 식습관 
		가정과 소통해요. 	어린이집에서 관찰해요. 

일상생활습관을 놀이로 배우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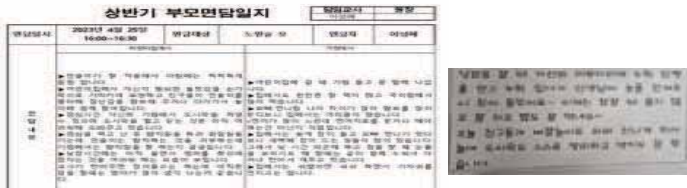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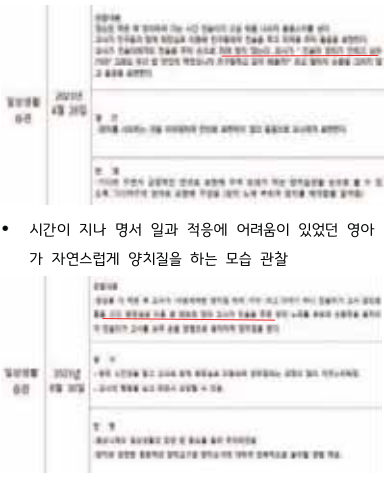




놀이주제	편안한 낮잠 놀이		활동시기	4월 ~ 6월
주요경험	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를 통해 잠자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과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편안한 정서 발달을 지원한다.			
활동지원 & 활동내용	업고 먹고 자고 일과 놀이를 해요	이불, 포대기, 머리띠, 썰매 천기저귀 놀이 배변 놀이를 보다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기저귀 천을 다양한 크기로 제시하여 두었다. 보드랍고 가벼운 천으로 유아들은 펼쳐 보이면서 까꿍 놀이처럼 인형이나 동물들을 숨겨 놓고 가만히 옆에 지켜주기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싸서 갖고 다니면 가방처럼 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포대기처럼 천기저귀를 인형 포대기처럼 사용하고 신체 일부에 입어 보였다. 교사가 머리에 묶어 주니 요리사라고 하면서 모두 음식 만드기에 몰입하기도 하고 긴 기저귀 천은 인형을 태워 갖고 다니면 썰매처럼 끌고 다니기 놀이를 하였고 조각보를 퍼즐처럼 맞춰 보이기도 하였다. 인형을 업어주거나 자신이 휴식 영역에 누워 기저귀 천을 서로 덮어 주며 휴식 영역에서 쉬는 놀이를 하였다.		       
	이불과 잠옷이 있어요.	이불 만들기 & 잠옷을 입은 나예요. 기저귀 천을 한참을 갖고 놀다가 기저귀천에 물감을 찍어 물들이기를 하여 이불을 만들어 보았다. 낮잠 시간을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 유아들의 얼굴에 잠옷을 입은 인형을 갖고 놀이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는데 유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너무 좋아하였고 잠옷을 입은 자신의 인형을 들고 다니기, 재워 보기, 빨래 집게를 꽂아 보기 등, 자는 것에 대한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일과 중에 반복하여 들려주었다.		   
	재우기 놀이를 해요	자장자장 자장자장 영아들은 놀이를 통해 교실에 있는 내 얼굴 인형, 아기인형,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내 친구를 보며 재워주는 놀이를 하였다. 특히 다양한 크기의 기저귀 천은 깔고 덮는 이불이 되거나 잠옷 입은 자신의 인형이나 포근한 내 인형을 재워주면서 엄마 아빠가 된 것처럼 인형들을 보살피면서 재워주며 놀이를 하였다.		   

활동 지원 & 활동 내용	낮잠 시간의 분위기를 충분히 익혀요.	조용한 노래를 들어요. 책을 봐요. 영아들과 함께 낮잠시간 전 교실에 자신의 이부자리를 펴보며 낮잠을 잘 곳을 정해보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교사가 책을 꺼내 읽어주며 영아들도 함께 내가 좋아하는 책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니 내 이부자리에 누워 책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어보며 내 자리를 알고 낮잠시간을 알아보았다. 자기 자리에 앉아 책을 조용히 보다가 서서히 낮잠 음악을 틀고 어둡게 하기 전까지 책을 보면서 낮잠에 대한 편안함을 극대화하였다.	
	잠을 자요	잠옷 입은 나와 포근한 내 인형과 잠을 자요. 교사는 교실에 영아들의 얼굴이 있는 낮잠인형을 만들어 제공해 주었다. 영아들은 “이거 나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가지고 놀이해 보면서 베게가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있는 인형을 가지고 아기를 재우는 놀이를 한다. 영아는 낮잠시간 폭신폭신했던 나를 닮은 인형을 가지고 잠을 자보면서. 낮잠을 자는 것에 눈물을 보이던 영아가 자신의 인형을 안고 눈물을 그치는 모습이 보여 졌다. 영아들은 자신과 닮은 인형을 안고 “잘자~”라고 인사하며 교사는 잠을 자지 않는 영아 옆에 누워 영아를 토닥여 주며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잠옷을 입은 자신을 낮잠 자리 옆에 두면서 잠에 편안해지는 영아들의 모습과 영아들의 포근한 나를 꼭 껴안고 자면서 잠 시간이 짧았던 영아들이 1시간 30분 이상 잠을 푹 자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연계활동		
활동연계	집에서도 잘자요.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잠들게 된 후 어린이집 낮잠 인형으로 갖고 놀이한 애착인형을 가정으로 보내어 가정에서도 잠 들 때 활용해보았다.	
	가정과 소통해요.		어린이집에서 관찰해요.
			

놀이주제	깨끗한 청결 놀이	활동시기	5월 ~ 8월
주요경험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은 손 씻기 방법을 통해 없앨 수 있고 양치질의 중요함을 놀이를 통해 경험하면서 거부감 없이 즐겁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원 & 활동내용	손을 씻어야 해요.	세균이 있어요. 매일 매일 손을 씻는 우리 영아들은 손은 수시로 씻어야함을 알고 영아들과 화장실을 이용하며 벽면에 붙은 그림자료를 보기도 하고 교실에서도 그림자료를 보며 손에 묻은 세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손 모양 그림에 클레이를 가지고 세균을 표현해 보며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함을 알아보고 위생교육 시간에는 내 손에 있는 세균을 관찰해 보면서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어보며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세균이 없어진다는 눈으로 확인해 보았다. 영아들은 보건소의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손 씻기 순서에 따라 꼼꼼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왔고 손톱을 세워 손바닥을 비벼 닦는 모습도 보였다. 그림책을 보면서 일상에서 수시로 손 씻기 중요성에 대하여 알려주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치를 해요.	양치놀이를 해요. 양치질이 무섭고 귀찮은 것이 아닌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교실에 있는 입 모양 교구를 제공해 주니 영아들은 음식 모형을 입에 넣어보면서 맛있게 남남 먹는 소리를 내며 먹는 놀이를 하였고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말하자 영아 중 “양치해야해”라고 말하였고 손가락으로 양치질을 하는 모습을 흉내 내었다. 교사는 칫솔교구를 제시하여 칫솔로 선생님과 양치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교실에서 책을 이용해 놀이하거나 양치 교구를 가지고 양치질하는 놀이를 하였고 교사는 올바른 칫솔질에 대하여 영아들과 놀이속에서 알려주면 양치놀잇감을 갖고 교사를 모방하여 양치질 할 수 있도록 해보았다. 양치질을 하지 않으며 영아들이 “충치가 생겨” “이가 아파”라고 표현하여 교사는 치과 병원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치과놀이로 확장되어 자연스럽게 양치질의 중요함을 상호작용하였다.  올바른 칫솔질 TIP 1. 치아의 네모진 면(앞면, 옆면, 뒷면)은 칫솔로 꼼꼼히 닦는다. 특히 혀를 대고 닦는다. 2. 칫솔의 끝이 있는 치아면(잇몸)을 닦는다. 칫솔의 끝이 혀를 대지 않는다. 3. 칫솔의 네모진 면, 앞면, 뒷면, 옆면과 혀를 닦는다. 칫솔의 끝이 혀를 대지 않는다. 4. 칫솔의 네모진 면을 세워서 칫솔의 끝이 혀를 대지 않도록 한다. 5. 칫솔의 네모진 면을 칫솔의 끝으로 닦는다. 칫솔의 끝이 혀를 대지 않는다. 6. 칫솔의 네모진 면을 칫솔의 끝으로 닦는다. 칫솔의 끝이 혀를 대지 않는다.	

활동 지원 & 활동 내용	깨끗이 씻어요.	거품으로 놀아요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리고 땀이 나면 목욕을 해야 함에 대해 알아보며 영아들과 함께 목욕놀이를 준비해 보면서 거품비누를 가지고 놀이해 보았다. 영아들은 나도 너도 아기인형도 함께 목욕놀이를 해보았다. 커다란 거품 어떤 느낌일까? 폭신 폭신히일까? 보들보들할까? 영아들과 거품의 느낌을 표현해 보며 놀이가 시작 되었고. “거품이 무서워”라고 말하는 영아, 관심을 많이 보이는 영아, 교사는 영아의 모습이 보였고 교사는. 거부가 있는 영아는 손가락으로 눌러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가지로 거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하면서 천천히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영아들은 거품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 집에서 목욕을 했던 경험을 생각하며 머리를 감기도 하고 샤워 볼을 이용해 서로서로 등을 닦아주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인형도 목욕해주고 나의 몸도 깨끗이 씻어보는 놀이경험이 되었다.	       
	내가 좋아요.	향기나 나요. 영아들과 함께 목욕놀이를 한 후 다음 날 로션놀이를 해보면서 로션의 미끌거림을 느껴보며 내 얼굴, 내발, 내 몸에 발라보며 놀이하였다.. 영아 중 “인형한테도 로션 발라 줘야해”라고 말을 하며 인형을 가지고 와 로션을 발라주며 “보들보들해졌어” “아기도 이뻐졌어” 라고 말하며 함께 놀이하는 놀이를 볼 수 있었다. 영아들은 놀이를 통해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자신의 몸에서 향기가 나고 예뻐졌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연계	가정과 소통해요.		어린이집에서 관찰해요.
		 집에서도 깨끗하게 손을 씻어요.	

2. 교직원 평가

교사 평가

부모님들의 “선생님 언제쯤 기저귀를 떼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영아들의 배변을 즐겁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놀이는 나아 일상생활 놀이를 계획해 보았다. 처음에는 변기에 시도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거부했던 영아들도 간접적으로 변기를 탐색하고 변기에 친숙해 지는 경험을 해보면서, 변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줄여나가면서 기저귀가 아닌 화장실에서 배변을 성공 해 지금은 9명의 영아 중 7명의 영아가 배변훈련을 성공해 뿌듯했다. 또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한 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가며 골고루 먹지 않았던 영아들도 먹어보는 모습이 보이면서 식습관 부분에서도 개선이 된 점들이 보였고 낮잠을 잘 때 눈물을 보이며 자주 깨는 영아들의 모습에서도 책을 보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자신의 인형을 안고 자면서 편안하게 자는 모습들이 보여 다음에는 부모님의 얼굴을 넣은 인형을 만들어 제공해 주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9명의 영아들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서 편안한 어린이집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놀이가 나아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서 모든 일상놀이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 편안한 일과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장 평가

서로새싹반은 3월에 구성될 때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8명의 영아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발달지연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 의사의 소견으로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서 6월부터는 비장애아 6명, 장애아 3명으로 장애통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 3월 시작할 때 8명의 영아가 모두 기저귀를 하고 있어 보조교사가 있더라도 하루 일과의 많은 시간을 기저귀 갈이에 시간을 들여 담임교사와 영아들의 신호와 준비도, 가정의 협력, 등을 고려하여 배변훈련을 할 것을 권유하여 가정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를 드린 후 편안한 하루 일과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배변에 관한 놀이를 환경적인 자극과 상호작용, 정서적 지지 등으로 충분히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변기에서부터 소변 놀이, 똥놀이 등 일상에 똥과 관련된 놀이를 많이 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생활놀이가 시작되었다.

우선 놀이는 직관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즉시 표현하고 해낼 때 그 만족감과 즐거움이 커지고 유능함을 발달시킬 수 있기에 매일 매일 놀잇감 변기에 앉아 쉬하고 똥을 누는 시늉을 하고 똥을 만들고 똥으로 즐거움이 가득하다 어느 순간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변기에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일관 된 교사의 접근은 상반기에 7명의 영아가 배변 훈련이 마쳐지거나 거의 진행됨을 볼 때 그 어떤 배변 훈련을 위한 학습과정보다 좋았다고 본다. 또한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내니 당연히 교사와 영아의 관계는 매우 신뢰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배변 훈련이나 급식 시간에 모두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다. 특히 기저귀를 한 명 한 명 떼어갈 때 가정에서도 매우 큰 기쁨을 표현해주셨고 가정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진행과정을 신뢰한 것이 더 좋은 효과는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된 것이라 본다.

담임교사의 아이들의 마음과 개별적인 신호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고 보조교사와 통합반 교사와 협력하여 놀이과정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일관되게 하고 또 해내는 과정은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모두가 해내는 과정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일상생활 지원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본다.

먹고, 자고, 싸는 과정이 원스톱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어떤 것 하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접근으로 동시에 다발적인 영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이 연결된 통합능력 발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영아들도 다 알고 있는 듯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이 어느 하나가 분절되어 접근되기보다 통합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표현이 적극적인 놀이로 지원하고 지지하였다는 것에서 영아들의 하루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해내는 하루 일과가 가득한 행복한 날의 연속이었음을 지켜볼 수 있었다.

3. 부모 평가

부모님들께서는 등·하원 시간에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담임선생님을 작년에 이어 연임을 하여 크게 걱정하기 않고 보냈지만 막상 배변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배변훈련을 시작해야 했는지 몰랐는데 막상 아이가 표현을 하고 어린이집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기저귀를 떼었다는 부모님들의 의견, 무엇보다도 배변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매일 똥에 관한 놀이와 책을 선생님께서 들려주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들을 등·하원 시간 등 마주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지구 건강을 함께 걱정하며 운영한 전체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식습관 지도와 같은 부분은 더욱 민감한 부분으로 가정에서도 골고루 먹기, 남기지 않고 먹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습관 지도와 같은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가정에서는 잘 먹게 된 아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였으며 상반기 부모 만족도에서는 보육과정 운영과 담임교사와 소통 등에 관한 만족이 매우 높게 나왔다.

2023년 상반기 부모 만족도 조사서

본 설문지는 본 어린이집의 개·폐업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본 어린이집의 개·폐업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본 어린이집의 개·폐업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본 어린이집의 개·폐업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본 어린이집의 개·폐업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본 어린이집의 개·폐업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프로그램 일반화 제언

우리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발달 정도에 따라 만 2세 비장애아반 6명과 장애통합반 3명 영아 9명과 5월까지지는 담임교사 1명과 보조교사가 해당반을 운영하였고 6월부터는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명, 장애통합 교사 1명, 영아반 보조교사 1명 등 배변훈련 등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낼 때 교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영아들이 배변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다양한 발달 자극 중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영아들이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었던 부분에서 3월에 모두 기저귀를 하고 시작한 만 2세 영아반이 현재 비장애아로 구성된 일반반 영아 6명이 빠르게 배변훈련이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부분을 고려할 때 가정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어린이집에서 각 개별 영아의 일상과 관련하여 긍정적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하루 일과 운영에서 배변과 급·간식 시간에는 보조교사나 다른 교직원의 도움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일상생활은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져 나갈 때 어린이집의 모든 경험이 평생 습관과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먹는 것과 싸는 것은 영아가 하고 싶은 놀이로 영아들에게 접근되어 진다면 매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견인하고 그 자체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나아가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건강하고 자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더불어 사는 인

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기본이 될 것이라 본다.

또한, 2024년도에는 일상생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 가정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영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가정연계를 계획하는 연간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해보고자 한다.

2.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월	일상생활	활동	가정연계
3월~4월	화장실 가는 것이 즐거워요 (배변)	▶ 발자국 그림 만들기	▶ 내가 만든 발자국 밟으며 화장실 가기
5월~6월	식재료는 다양해요 (급. 간식)	▶ 식재료 키우기 ▶ 식재료를 가지고 촉감놀이 ▶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기	▶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 사오기
7월~8월	내 몸을 깨끗하게 해요 (위생)	▶ 비누 클레이로 비누 만들기 ▶ 손 소독제 만들기	▶ 내가 만든 비누로 손 씻기
9월~10월	내 이불이 좋아요 (낮잠)	▶ 내 이불 위에서 뽁뽁뽁하며 놀이 ▶ 이불쌔매를 타요	▶ 엄마 아빠 인형을 안고자요
11월~12월	쑥쑥 키 커질래요 (신체.건강)	▶ 다양한 야채를 탐색해요 ▶ 키 크기 체조	▶ 야채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요
1월~2월	나도 할 수 있어요 (기본생활)	▶ 내 이불을 정리해요 ▶ 스스로 옷을 입어요	▶ 내가 고른 옷을 입어요

V. 참고문헌

권민균 외(2005). 아동발달 서울 : 학지사

전현지(2019). 교사가 경험한 영아 배변학습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2020).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강순희, 손수민, 윤매자, 한서연, 황현숙(2017). 영유아 발달 서울: 창지사

장윤지(2022).일상의 주체로서 만 1세가 경험하는 어린이집 하루일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영(2023).배변학습에 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실태, 어려움 및 요구 비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찬옥, 구수연, 이옥임(2010).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파주 : 정민사

조운주, 최일선(2013). 유아생활지도. 서울 : 창지사

이진희, 손원경, 안효진, 유연옥(2006 역). 놀이, 발달, 유아교육 파주 : 아카데미프레스

노희연(2010) 영아의 배변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놀이의 의미 탐색’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시립위례포레자이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하남시
프로그램명	놀면서 익히는 바른 기본생활습관
총 괄	박성자
기획 및 운영	김스란, 전나운

놀면서 익히는 바른 기본생활습관

I.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일상’이란 평소에는 소박한 것으로 인식하여 관심을 두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시공간의 총체적인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이경미, 200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18)에서는 ‘일상’을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로 정의하고 있다. 일상생활(the daily life)은 평상시의 생활(국립국어원, 2018)로, 매일 계속하여 반복되어 가는 생활을 말한다. 일상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이며, 어떠한 사건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김상우, 2006).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유아기의 일상생활에서 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영아가 경험하는 놀이는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주변세계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영아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영아가 놀면서 주변 세계와 사물에 대해 배우고, 친구들과 노는 가운데 신체를 발달시키며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시기(교육부, 경기도교육청, 2016)이기 때문이다. 놀이는 영유아의 삶에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의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놀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다.

기본생활 습관은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 자세를 습관화하는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 자세에는 식사, 배변, 수면습관, 청결, 절제, 질서, 예절, 협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해가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개인의 버릇이나 습관을 넘어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문화와 규범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생활습관은 각 개인의 버릇이나 습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가치와 규범이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문화로서 교육해야 하며,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기부터 잘 형성되도록 하고, 일생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유아 시기는 놀면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와 같이 교육을 통한 학습 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놀이 통하여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다. 기본생활습관 놀이를 하며 몇 가지는 노래를 부르며 익혀보도록 하였는데. 영아는 익숙한 동요를 접하면 즐거움을 몸으로 표현하며 따라 부르기도 하고 손유희나 율동, 동작을 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이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태내기부터이며 모든 감각 중에서 청각이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달된 청각으로 인해 인간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소리가 중심이 되는 음악에 무엇보다도 빨리 반응한다(백대웅, 2010).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음악적 소질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선천성은 후천적인 음악 활동에 의해 발달하게 된다(Yi, 2003). 이처럼 친숙한 음률에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개사하기는 기존 노래의 가사를 영유아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일상생활에서의 흥미로운 소재를 선택해 노래 내용에 알맞은 어휘나, 노랫말 부분 또는 전체를 바꾸는 활동이다(배진나, 2005). 노래를 이용한 일상놀이 지도 프로그램에서의 개사한 노래 부르기 활동은 만 1~2세 영아들의 음악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랫말을 교사가 개사하여 노래 부르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듯 친숙한 음악에 맞춰 기본생활을 익히면 즐겁게 놀이 하듯 기본생활습관이 몸에 익숙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바른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함에서 출발을 해보았다.

3.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모임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매 달 영아반 교사모임을 통해 각 반 상황과 어려움을 나누며 영아기 시기에 즐겁게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았다. 먼저 신입교사가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고충을 이야기 하면 선임 교사의 노하우를 알려주며 영아반 교사들에게 놀이중심활동 속 교사의 역할과 영아의 놀이에 대한 교사의 지원방안을 함께 의논하였다. 또한 매 달 정기적인 교사모임을 진행하여 놀이중심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였다. 영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다가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흥미를 발견하면 이를 놀이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교사가 제공한 환경 속에서 영아가 어떻게 놀이하는지 관찰하며 적절하게 상호작용해주며, 놀이를 확장해 나갈 때 필요한 놀잇감이나 자료들을 지원하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더불어 본 원 원장선생님이신 박성자 원장님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영아들과 다양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첫 모임



▲ 5월 모임



▲ 7월 모임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2023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9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 활동대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기본생활습관은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옛 속담에도 있듯이, 유아 보다는 영아(만1-2세) 아동들에게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다. 본 원에서 만 1, 2세에 해당하는 라온반, 초롱반 영아들에게 각 연령에 맞춘 기본생활습관 놀이를 실시하였다. 만 1세반 10명, 만 2세반 14명, 영아반교사 (보조교사포함) 5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3) 프로그램 연간

4차 표준 보육과정에 안내되어있는 기본생활습관을 참고 하여 매달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다. 각 연령에 맞춘 연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라온반(만 1세)	초롱반(만 2세)
3월	내 신발,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을 스스로 정리해요
4월	편안하게 낮잠을 자요	친구와 놀이 할 때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5월	즐겁게 먹어요*	스스로 먹어보아요*
6월	제자리에 정리해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차례를 지켜요*
7월	몸을 씻어요*	얼굴과 몸을 깨끗이 씻어요*
8월	화장실에서 배변해요*	놀잇감 놀이시 친구를 방해하지 않아요
9월	바르게 가지고 놀아요	어른께 두 손으로 받고 드려요*
10월	내 순서를 기다려요*	줄을 서서 기다려요
11월	쓰레기는 쓰레기 통에 버려요	손톱, 발톱을 깨끗이 다듬어요*
12월	소매를 걷고 손을 씻어요	콧물이 나오면 스스로 닦아요
1월	친구를 도와주어요*	친구에게 양보해요*
2월	친구에게 고마워. 미안해 라고 말해요	동생이 모르는 것을 도와주어요*

*지역사회 연계 및 학부모 참여

4)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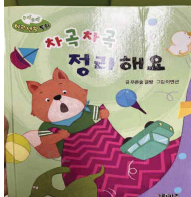
과정	내 용
계획 및 준비	-만 1, 2세 대상으로 놀이하며 바른 기본생활습관 익히기 계획 및 연구 -현재 영아반 기본생활습관 현황 파악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말하는 일상생활 지도 방향 숙지 -전문교육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파악 -영아의 바른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참고 자료 수집 및 검토 -매달 필요한 환경 구성
활동 실행	-연안에 맞추어 ‘놀면서 익히는 바른 기본생활습관’ 만들기 실행 -영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며 영아 주도적 놀이 지원 -가정통신문, 놀이계획안, 키즈노트 등으로 가정과 활발한 소통 및 연계 활동 실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진행 -반복 실행하여 보완, 수정 및 반영
결과 및 평가	-매주 주간 평가를 일지에 기록 및 반영된 활동 실시 -교사 및 부모 평가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활동기간	3월
주 제	내 신발, 신발장이 있어요/신발을 스스로 정리해요
계획 및 준비	1)표준보육과정 내용 범주 건강하게 생활하기>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2)영아 관찰 신학기 낯선 환경에 등원부터 쉽지 않다. 현관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아직 어린 영아라 울음으로 불편함을 표현한다. 신발 정리도 쉽지 않다. 3)교사의 고민 -현관에 들어섰을 때 낯설고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줄여 줄 수 있을까? -현관에 들어설 때 잠시 이목을 끌만한 이미지나 환경을 제시를 하면 어떨까? -신발장에 영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넣어 신발장 이름표를 활용해보자! 4)환경 및 자료준비 -신발장에 영아가 좋아하는 뽀로로, 상어가족 캐릭터를 붙여보기 -영아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보기
교사의 기대	편안하게 보호자와 헤어지고 신발을 정리 할 수 있다.
활동 실행	1. 등원하는 영아를 맞이한다. 2. 교사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서 내 신발 정리하는 곳을 찾아본다. 3.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신발을 정리해 본다.
활동 사진	   ▲맛있하고 평범한 신발장 ▲아기상어 캐릭터를 붙임 ▲관심을 보이며 정리함.
교사의 관찰 및 지원	◆환경 지원 캐릭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어 주어 신발장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었다. 영아의 사진을 캐릭터에 합성을 해주어 영아 얼굴을 익혀보도록 하였다. ◆교사의 관찰 올면서 등원하던 영아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관심을 보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엄마 품에서 내려 손가락으로 신발장에 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이거” 라고 말한다. 교사가 “여기 아기상어가 있네. 여기 누구 자리인가? 어! 00 이 자리네? 우리 신발 벗어서 함께 정리해볼까?” 라고 말하자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발을 벗어 본다. 신발 한쪽을 들고 아기상어 그림 위에 올려놓는다. 교사와 엄마가 “우리 00이 잘 찾았구나! 교실엔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함께 가볼까?” 라고 말하자 교사의 손을 잡고 교실로 간다.

활동기간	4월
주제	편안하게 낮잠을 자요*(가정과의 연계)
계획 및 준비	1)표준보육과정 범주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2)영아관찰 낮잠시간임을 알린다. 낮잠 이불을 깔자 자기 이불을 찾아 눕는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을 끈다. 이불을 보자마자 우는 영아도 있다. 우는 영아를 안아서 달래준다. 영아의 이불에 천천히 눕혀주고 토닥여준다. 3)교사의 고민 -영아가 우는 이유가 뭘까? (갑자기 어두워져서? 낮잠을 자기 싫어서? 잠들려고 하니 엄마 생각이 나서?) -영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교사의 기대	영아가 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활동 실행	1.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고 은은한 조명을 켜준다. 2. 낮잠 이불을 깔고 천천히 불을 끈다. 3. 교사는 영아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영아를 안아주고 조용히 토닥여 준다. (한 명씩 재워주며 영아에게 상호작용해 준다) 4. 놀이시간 중 인형 재우기 놀이 등의 놀이시간과의 연계도 해본다.
활동 사진	   ▲ 조명스피커 지원 및 인형 재우기 놀이 ▲ 학부모님들께 요청 및 소통
교사의 관찰 및 지원	◆환경 지원 조명과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조명스피커를 지원하여 낮잠 전 영아들에게 낮잠 시간임을 편안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원에서 낮잠 자기 전 미리 낮잠이불을 준비하셔서 가정에서 이불을 가지고 놀이 하거나 직접 잠을 자보는 등의 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요청 드렸다. 또한 애착물건이 있다면 애착 물건을 가져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보조교사 등 보조 인력을 요청하여 낮잠 시간에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영아의 등을 쓸어주거나 토닥여주었다. 놀이 시간 중에도 놀이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아기인형과 인형을 덮을 수 있는 손수건, 스카프 등의 놀잇감을 지원해 보았다. ◆교사의 관찰 은은한 조명을 제공하고 조용한 자장가가 나오자 하품을 하고 영아의 개인 이불을 찾아 눕는 모습을 보인다. 부피가 크긴 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애착 이불이나 인형 등을 가지고 와서 꼭 안고 편안하게 잠들기도 했다. 인력지원(보조교사)으로 해주신 덕분에 다른 친구가 잠들 때 까지 교사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일 없이 교사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활동기간	5월
주제	즐겁게 먹어요/스스로 먹어보아요*(지역사회 연계)
계획 및 준비	1)표준보육과정 범주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2)영아관찰 편식이 심한 영아가 있다. 특히 과일, 채소류는 맛보기 시도도 쉽지 않다. 3)교사의 고민 -왜 잘 먹지 않을까? - 맛이 없어서?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식감이 별로라서? -영아가 즐겁게 먹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4)환경 및 자료준비 -다양한 음식, 과일, 채소 사진을 제시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한 인형극관람 -직접 식재료를 구매, 오감놀이를 통한 식재료 탐색놀이
교사의 기대	영아가 음식에 대한 거부감 없이 즐겁게 먹을 수 있다.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여 먹을 수 있다.
활동 실행	1. 다양한 음식, 과일 채소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나눈다. 2. 어린이집 근처 과일 채소가게에 가서 식재료를 탐색하고 직접 구매 해 본다. 3. 식재료를 오감놀이를 통해 탐색 해 본다. 4.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관련 인형극을 관람하며 바른 식습관을 길러본다.
활동 사진	   ▲ 식재료 구매 ▲ 식재료 탐색 및 오감놀이 ▲ 관련 인형극 관람
교사의 관찰 및 지원	◆환경 지원 다양한 식재료 사진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환경판, 음식 싹둑 썰기, 소꿉놀이 등의 다양한 놀잇감 제시, 음식 그림에 끼적이기, 다양한 채소과일이 나오는 동요 들려주기 등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지역 마트에 가는 활동이 있어 직접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구매 해보고, 사온 식재료를 직접 잘라보며 질감을 느껴보고 맛을 보는 등의 오감놀이를 통한 과일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볼 수 있도록 했다. 하남시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건강한 식습관 관련 인형극관람을 하고 있어서 5월 주제와 부합하여 4월에 신청, 5월 25일날 관람을 하고 왔다. ◆교사의 관찰 맛보기 조차 거부했던 영아가 점차 맛보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놀이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자 즐거웠던 경험을 회상하며 ‘메롱’ 하며 혀로 맛을 보기도 하고 한 번 씹고 뱉기, 세 번 씹고 뱉기, 삼켜보기 등의 점진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먹어 볼 수 있도록 했더니 점차 편식이 줄어 드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기간	6월-1
주제	제자리에 정리해요
계획 및 준비	1)표준보육과정 범주 기본생활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2)영아관찰 정리 시간임을 알린다. 교사가 ‘우리 정리해보자’ 라고 말하지만 교사만 정리하고 영아들은 새로운 놀잇감을 꺼내거나 손에 들고 있던 놀잇감을 들고 왔다갔다만 한다. 3)교사의 고민 -왜 정리가 안될까? - 더 놀고 싶어서? 장난감을 어디에 두는지 몰라서? -영아가 놀이할 때처럼 즐겁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4)환경 및 자료준비 -‘정리’에 대한 다양한 학습 및 관련 서적 찾아보기 -교구장 및 놀잇감 바구니에 놀잇감 사진 붙이기 / 정리 관련 음원
교사의 기대	즐겁게 정리정돈 할 수 있다.
활동 실행	1. 놀잇감 사진을 찍어 바구니와 바구니 자리에 붙여놓는다. 2. ‘모두제자리’, ‘요기 여기’ 음원을 준비하여 들려준다.
활동 사진	    ▲ 바구니 및 교구장에 사진 붙여놓기 ▲ 도서를 통한 정리이야기    ▲ 모두 담기 놀이 ▲ 쏟아보기 ▲요기여기 노래 부르며 정리
교사의 관찰 및 지원	◆환경 지원 정리와 관련된 책을 지원하여 함께 책을 읽으며 정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도록 했다. 매달 환경 구성 후 놀잇감이 바뀌는데 매달 바뀌는 놀잇감 사진을 찍어 바구니와 교구장에 붙여주고 놀잇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쉽게 해주었다. ‘누가누가 멋지게 정리하나x2, 그건 바로 ㅇㅇ이!’하며 영아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다. ◆교사의 관찰 영아 발달과정 중 한꺼번에 다 모으고 쏟는 놀이를 좋아하는 시기라 장바구니에 놀잇감을 이것저것 다 담으며 좋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놀잇감을 쏟으며 까르륵 소리를 내며 웃는 영아를 보니 소리와 떨어지는 모양에 관심을 갖는 영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리 후 그 다음 하루일과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 ‘정리해보자! 정리하자’ 라는 말보다는 음원을 틀어주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에 맞춰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을 보며 정리를 하고 노래 부르며 정리를 하자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정리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활동기간	6월-2
주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차례를 지켜요
계획 및 준비	1)표준보육과정 범주 기본생활 >안전하게 생활하기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2)영아관찰 견학 날이다. 차량을 타고 견학을 간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가 ‘00아 이리 와야지. 여기 서자’라고 말해도 흥분한 영아 통솔이 쉽지 않다. 3)교사의 고민 -우왕좌왕 하지 않고 차례대로 승하차 하려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승하차를 안전하고 즐겁게 하려면? 4)환경 및 자료준비 -영아안전교육 중 ‘교통안전’ 교육과 연계하여 놀이로 승하차 경험해보기 -전체 교사 동승자교육 이수
교사의 기대	차량 승하차 시 차례를 지킬 수 있다.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 할 수 있다.
활동 실행	1. 놀이시간 중 자동차 놀이를 하며 차례차례 줄서기를 해본다. 2. 영아 안전교육 자료 및 도서를 활용하여 차량 이용 시 안전에 대해 알아본다. 3. 견학 시 미리 학부모님들께 도우미를 요청 드린다.(인력확보)
활동 사진	   ▲안전교육과 연계 ▲ 놀이시간에 차례차례 줄서기 놀이, 인형도 함께!
교사의 관찰 및 지원	◆환경 지원 교실에서도 놀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로테이프를 지원 하여 교실 바닥에 붙여주어 놀이 할 때마다 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의 상황을 놀이로 표현해보기도 했다. 산책을 나가서 단지 내 있는 스쿨버스존을 지날 때 언니오빠들이나 어른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다. 외부 견학 시 차량 승하차를 할 때마다 실전 활동을 해 볼 수 있게 하고 반복 활동을 통하여 영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 현장 체험, 견학 시 도우미로 학부모님들께서 신청하셔서 함께 차량 동승부터 도와주시기도 했다. ◆교사의 관찰 처음에는 우왕좌왕 했던 영아들이 차례를 지켜 승하차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량을 탈 때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제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출발 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도착지에 차량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사가 영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영아와 함께 안전벨트를 풀고 내릴 준비를 할 때도 천천히 차례를 지켜 차량에서 내리기도 하였다.

활동기간	7월
주제	몸을 씻어요/얼굴과 몸을 씻어요*(가정과의 연계)
계획 및 준비	1)표준보육과정 범주 기본생활>건강하게 생활하기>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 본다 2)영아관찰 더워지는 여름. 바깥놀이를 나가 다양한 놀이를 즐기다보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원으로 돌아올 때가 많다. 먼저 화장실로 들어와 수도를 열고 씻어보려는 영아도 있지만 손씻기를 힘들어 하는 영아가 있다. 3)교사의 고민 -즐겁게 손을 씻게 하려면? 4)환경 및 자료준비 -몸을 씻을 수 있는 환경 제시 -기분 좋게 씻을 수 있는 향기가 좋은 핸드워시 제공 -손씻기에 대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출장 교육 -‘주먹쥐고’ 노래에 맞춰 손씻기 노래를 만들
교사의 기대	영아가 즐겁게 씻을 수 있다.
활동 실행	1.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 ‘주먹쥐고’ 노래에 맞춰 ‘세면대로 가요. 발판위에 올라와 물을 틀고 손을 닦아요’ 노래를 반복하여 불러주며 손을 씻어본다. 2.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핸드워시를 짜서 손을 비벼서 닦아본다. 영아가 좋아하는 ‘아기 상어’노래에 맞춰 30초간 닦기를 해본다. 3. 교사의 도움을 받아 세수를 해야 하는 경우 ‘사과 같은 내 얼굴’ 동요에 맞춰 영아의 이름을 넣어 불러주며 씻은 후에는 반짝 반짝 기분이 좋아짐을 언어로 표현해준다.
활동 사진	   ▲ ‘씻기’와 관련한 도서 ▲ 노래부르며 세수해요 ▲ 손씻기 동화(8월)
교사의 관찰 및 지원	◆환경지원 7월 원내 물놀이가 계획되어 있어 물놀이 후 간단하게 몸을 씻어 보는 활동을 해보았다. 만 1세반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과 얼굴을 씻어보고 만 2세반은 스스로 세수를 하며 땀을 닦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바른 손씻기에 대한 출장교육이 하남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있어서 신청하여 8월에 다양한 동화교육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았다. ◆교사의 관찰 손씻는 상황이 불편해 하던 영아가 교사가 늘 불러주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세면대로 가서 물을 스스로 틀어 손을 씻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만 1세반은 핸드워시 펌핑이 어려워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핸드워시를 손에 적당량을 짜서 아기상어를 부르며 손을 닦았다. 세수를 할 때도 영아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러주자 웃으며 또 해달라고 하는 영아도 있었다. 이후 손씻기 동화를 들을 때도 만 1세반도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며 관심있게 듣기도 했다.

활동기간	8월
주제	화장실에서 배변해요*(가정과의 연계)
계획 및 준비	1)표준보육과정 범주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배변의사를 표현한다/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다 2)영아관찰 만 1세반의 경우 학기 초에는 수시로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아주어야했는데 6월부터 기저귀가 젖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한꺼번에 보는 소변 양이 많아짐이 관찰되었다. 교사에게 ‘쉬’하고 오는 영아의 기저귀를 보면 방금 소변을 보았는지 기저귀가 따뜻하기도 했다. 3)교사의 고민 -만1세 배변훈련은 너무 빠른 것은 아닐까? 4)환경 및 자료준비 -변기그림, 배변과 관련한 다양한 도서 제공 -인형과 배변놀이 키트, 유아변기 지원 -가정에 팬티를 보내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교사의 기대	배변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배변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 영아가 편안하게 기저귀를 뗄 수 있다.
활동 실행	1. 영아의 배변의사를 격려하며 칭찬한다. 2. 응가 그림 길을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여 변기에서 배변을 시도해본다. 3. 가정에서도 함께 해 주시도록 요청 드린다.
활동 사진	   ▲ 친구와 인형으로 배변놀이 ▲ 변기에 서보기 ▲ 응가그림 따라 화장실가기
교사의 관찰 및 지원	◆환경지원 즐겁게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응가 그림을 교실 곳곳에 붙여주어 화장실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했다. 영아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배변 관련 책과 놀잇감을 준비하였다. 영아가 배변훈련하는 본인과 또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화장실로 이동할 때 ‘형님반에 간다네’ 노래에 맞춰 “화장실로 간다네!”라고 부르며 이동 해보도록 했다. ◆교사의 관찰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시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모방하여 ‘나도’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아보았다. 물을 내리는 소리를 탐색해 보며 꾸루룩 소리를 따라 내보며 웃기도 한다. 놀이 시간에는 장바구니를 변기처럼 만들어 응가를 했다면 역할놀이를 하기도 하고 손수건을 가져와서 응가를 닦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III. 활동평가

1. 월간평가

월	평가
3월	3월 한달 영아의 관심과 흥미를 끝마친 자료를 제시하였더니 영아가 등원하며 캐릭터를 먼저 발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 2세반의 경우 캐릭터 안의 영아의 얼굴을 찾아 스스로 신발을 정리하는 영아도 있었다. 울면서 불편함을 표현하던 영아도 친숙한 그림과 영아의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기분 좋게 등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자료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 정리하고 있어요!
4월	아직 학기 초라 울면서 낮잠을 자기 힘들어 하는 영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고 낮잠 들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던 영아도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엔 애착이불을 가져오던 영아도 이불이 없이도 잠들기도 하였다.
사진 자료	 애착 물건을 안고 잠들지 않아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5월	처음 보는 음식도 맛보기를 시도하고 ‘메롱!’해서 맛보기, 한번 씹고 뱉기, 세 번 씹고 삼켜 보기등 점진적 접근을 해보았더니 맛을 보고 반복해서 먹었다. 영아의 식사를 칭찬하자 다른 영아도 관심을 가지며 “나도!” 하며 먹기도 하였다. 그 외 식재료 뿐 아니라 다양한 탐색 놀이에도 관심을 보이며 어린이집 생활에 즐겁게 참여 하였다.
사진 자료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뭐든 잘 먹을 수 있어요! 과일도 남남!

월	평가
6월-1	정리가 마냥 어렵고 그저 늘어놓는 것이 전부인 영아들도 즐겁게 웃으며 정리 할 수 있고 교사만 혼자 힘들게 정리하는 것이 아닌 교사, 영아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이 하듯 정리를 하니 영아들도 즐겁고 빠르게 정리가 되니 놀이 전환에도 도움이 되었다.
6월-2	견학 차량 이용 시 안전하게 차례를 지켜 승하차 할 수 있게 되었다. 만 1세반 같은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 견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놀이 시간 중 반복 놀이를 했더니 7월, 8월 견학 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승하차 뿐 아니라 차량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차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사진 자료	 누가누가 멋지게 정리하나! 그건 바로 OO 이!! 놀면서 정리해요! / 내릴 때도 차례차례
7월	바깥놀이를 다녀와서 교사가 “누구야~ 손 씻게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면대로 가서 스스로 손을 씻어보려고 하는 영아가 많아졌다. 손을 씻다가 세수를 스스로 해 보려고 얼굴을 문지르는 영아를 보니 씻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다.
사진 자료	 즐겁게 세수도 하고 손도 씻어보아요~^o^
8월	변기에서 배변을 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 배변 훈련 중인 영아들이 있다. 만 1세반의 경우 한 달 동안 함께 배변놀이를 해보았더니 몇 명의 영아가 팬티를 입고 배변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영아는 월령이 어려서 관심을 보이기는 하나 신체적 준비가 덜 되어 무리하게 진행 하고 있지는 않다. 화장실에서 배변 하는 영아들이 잘 해주고 있지만 스스로 옷을 벗고 입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기본생활습관 놀이를 계획해봐야겠다.
사진 자료	 화장실에 가 배변하기 전 변기(물개/시)와 찬해 쳐 보아요~ 화장실에 가 배변을 하는 것에 거부 감이 들지 않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 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배변과 관련된 책을 통해 변기소리와 발귀소리로 들어보고 재미있는 동요 를 들으며 따라 불러보기도 하며 물가와 관련된 책 을 읽어보면서 화장실에 가 배변하기 위해 준비 하는 라온이들이예요~ 만 1세반(만1세)의 배변에 대한 관심과 놀이(8월 놀이이야기 중에서..)

2. 교사의 평가

영아의 흥미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긴밀하게 관찰하고 지원해줬을 때의 영아의 놀이가 확장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고 환경과 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신입교사 000 - “너무 어린 영아인데 기본생활습관이 놀이로 풀어질까?’ 라는 염려로 시작했는데 선임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놀이 방향제시 방법 등을 알게 되었어요. 영아가 성장해 가면서 교사인 나도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

만 1세반교사 000 - “학부모님들의 협조도 감사했고 가정에서의 변화도 알려주셔서 원에서 세심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3. 가정에서의 변화

월	변화된 모습	
3월	만 2세반 △△이 학부모님 “우리 △△이가 조용해서 뭐하나 봤더니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4월	만 1세반 00 학부모님 “애착이불 부피가 커서 보내도 되나 했는데 00가 잘 잔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5월	 만 2세반 ♡♡학부모님 “가정에서도 음식에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 먹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6월	만 1세반 △△ 학부모님 “집에서 △△야 간식먹어. 하고 부르니까 갑자기 언니랑 모두제자리? 노래를 부르며 인형을 장난감통에 넣어더라고요! 집에서 저도 종종 써봐야겠습니다ㅎㅎㅎ.”	
7월	만 2세반 00 학부모님 “화장실에 가서 한참동안 안 나오길래 가보니 ‘아기상어’ 노래를 부르며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저렇게 하며 씻는데 어른인 엄마보다도 꼼꼼하게 씻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8월	 만 1세반 00 학부모님 “저희집 변기에 눈, 코, 입, 00가 좋아하는 리본 스티커를 붙여 변기 꾸미기를 했어요. 변기가 예쁘다며 변기에 관심을 더 보이는 00네요ㅎㅎㅎ 변기에 이름도 붙여주고 ‘탈라야 안녕!’ 하고 인사도 한답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 프로그램 계획

올해의 평가를 토대로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흥미도가 높고 지속 가능한 놀이는 내년에도 이어서 활동을 실행하고, 실행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교사모임을 통해 영아중심, 놀이중심으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더 나은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은 다음과 같다.

	라온반(만 1세)	초롱반(만 2세)
3월	안녕! 안녕하세요.	
주제선정이유	다시 3월,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과 만남, 첫 기관에서의 생활 적응을 돕고 편안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4월	편안하게 낮잠을 자요	친구와 놀이 할 때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주제선정이유	적응 기간을 마친 만 1세반은 편안하게 낮잠 자기를 계획해 보았다. 만 2세반의 경우 원 특성상 재원하는 영아가 많아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래와 함께 어울려 놀이할 때의 지켜야할 약속을 놀이로 표현해 보고자 계획하였다.	
5월	즐겁게 먹어요	스스로 먹어 보아요
주제선정이유	원 특성화 활동인 식재료 탐색과 연계하여 식재료를 오감으로 탐색해 보며 영아의 감각 경험을 충족시키고 직접 조작하며 변화를 경험하여 다양한 표현과 감각 발달을 촉진 시키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6월	제자리에 정리해요	차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주제선정이유	만 1세반은 제자리에 정리 하는 습관을 길러보고 올해 평가를 반영하여 바깥활동이 많아 지는 만 2세반을 위해 차량 승하차 뿐 아니라 차 안에서도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다루고자 한다.	
7월	몸을 씻어요	내 칫솔을 찾아 양치를 해요
주제선정이유	신체를 탐색하며 신체의 이름을 알아보고 손, 얼굴 뿐 아니라 양치의 중요성과 양치의 즐거움을 놀이로 표현해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8월	화장실에서 배변해요	배변 후 옷을 정리해요
주제선정이유	배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만 1세반은 배변놀이를 준비해 볼 계획이다. 올해가 마무리가 되면 현재 만 1세반 친구들은 90%정도 기저귀를 떼고 재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배변 후 스스로 옷을 정리해보는 놀이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9월	바르게 가지고 놀아요	어른께 두 손으로 받고 드려요*
주제선정이유	만 1세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강하여 다양한 놀잇감을 가지고 탐색하다가도 놀잇감을 던지거나 아직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 1세반 친구들이 놀이하며 안전하고 바르게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방법을 놀면서 직접 경험 해 볼 계획이다. 만 2세반의 경우 교사의 간단한 심부름을 할 때 예의 바른 습관을 길러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10월	내 순서를 기다려요	줄을 서서 기다려요
주제선택이유	영아중심사고를 하는 영아에게 기다림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려와 양보를 경험해보고자 한다.	
11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콧물이 나오면 스스로 닦아요
주제선택이유	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면서 콧물감기가 시작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 휴지로 콧물을 닦고 만 1세반은 내 콧물을 닦은 휴지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려보는 놀이를 해보고 만 2세반은 자조활동을 위해 스스로 휴지를 잘라 콧물을 닦는 놀이를 해보고자 한다.	
12월	소매를 걷고 손을 씻어요	겉옷을 스스로 벗어요
주제선택이유	외투, 긴옷을 입게 되는 계절, 스스로 옷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월	친구를 도와주어요	친구에게 양보해요
주제선택이유	친구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경험한 후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친구와 놀이 할 때 함께 즐겁게 어울려 놀이 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익혀보고자 한다.	
2월	친구에게 고마워. 미안해 라고 말해요	동생이 모르는 것을 도와주어요*
주제선택이유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잘못을 했다면 언어로 표현하기를 시도해 보고 유아반 형님이 되는 만 2세반은 형님반 교실을 탐색하러 온 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놀이를 해보고자 한다.	

2. 마무리

한 달만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반복의 반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정착해보려고 한다. 우리는 계속 이어 갈 것이고 영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놀이 상황과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영아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과 자료를 지원하고자 한다. 가정과의 연계상황 및 긴밀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인 영아가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영아가 처음 만나는 사회인 가정 그리고 어쩌면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겠다.

V. 참고 문헌

- 송미영(2014).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변형선(2011).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형성과의 관계
- 이현주(2020). 놀이와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 교육열, 가정에서의 놀이와 학습 관련 유아 일상생활 간의 관계
- 윤은경, 이미나(2012).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노래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2022). 2022년 인성교육우수어린이집 프로그램 사례집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교망세 안전교육 자료 및 교육계획안
- 키드키즈 교육계획안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시립화서1동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수원시
프로그램명	쑥쑥 텃밭 남남 채소
총 괄	정지연
기획 및 운영	서운이, 이정은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아기는 신체의 성장과 발육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신체활동량이 많은 시기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영아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사습관이 중요하다. 영아기는 특히 음식에 대한 선호도, 식사예절, 위생적인 습관 등 식사 행동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교정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이진희, 2010).
- ▶식습관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는 음식을 먹는 태도, 음식과 관계된 위생습관, 음식에 대한 기호, 음식에 대한 태도, 식사예절 등이 있다. 따라서 음식 골고루 먹기,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손 씻기, 주변 깨끗이 하기, 음식을 소중히 다루며 감사하는 마음 갖기, 바르게 앉아 먹기, 한자리에 앉아 먹기,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하지 않기, 음식 먹은 후 정리하는 것 돕기, 음식 먹은 후 양치질하기 등이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오양희, 2012).
- ▶영아기는 식품에 대한 기호가 뚜렷해지는 시기로 가정에서 맛보지 못한 채소, 과일일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식으로 제공될 때 거부반응이 심하다. 아이들이 새로운 식품에 익숙해질 시간이 없이 먹도록 강요한다면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채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한영숙, 2020). 영아가 직접 재료를 재배하고 수확하여 요리활동을 하게 되면, 요리활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지고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개선될 수 있다(송보가, 2010; 하정연, 2010). 따라서 영아들과 함께 텃밭에서 수확한 식물을 활용한 요리활동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언어, 사회, 정서 등 여러 영역과 연관된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텃밭에서 나온 채소를 활용한 요리활동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상경, 2005).
- ▶영아를 위한 식습관 교육은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데 기본생활습관은 영아에게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경험하기 위한 영역이다. 0~1세 영아가 신체의 청결과 위생, 수유 및 이유식 등의 식사, 편안한 휴식과 배변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경험하며 놀이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활동과 식사시간에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보자는 의미로 잔반 없는 날을 매월 시행하고 있다. 영아는 식사시간에 음식을 먹을 때에 색깔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먼저 보고 거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영아가 자유놀이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교구를 활용하여 활동할 때보다 실물자료를 활용하여 활동할 때가 놀이의 흥미도나 지속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아의 식습관 교육은 주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영아 개인의 음식에 대한 기호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서 영아의 기본생활습관교육 중에서도 식습관 태도 형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어린이집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철식품인 텃밭 채소를 활용하여 영아가 다양한 식재료를 오감으로 탐색하고,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영아의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을 개선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 ▶영아는 감각경험을 통해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므로, 영아들에게 각종 채소와 과일 등의 식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안전하며 오감각을 모두 자극할 수 있는 흥미로운 탐색

재료이다(안진선, 2011). 영아는 신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식재료를 마음껏 만지고 뭉개고 주무르면서 탐색하고 관찰하여 이를 통해, 맛, 촉감, 냄새, 모양, 크기, 색깔 등의 기초개념과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식재료를 만지는 과정에서 식재료마다 가진 독특한 모양과 색, 형태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청각능력과 촉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달고, 짜고, 시고 쓴 식재료 고유의 미각에 대한 감각 능력, 식재료 특유의 냄새를 경험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후각 능력을 키우고 식재료 잡기, 두손으로 비비기, 그릇에 넣기, 도구 사용하기 등의 운동 능력을 촉진하고 집중력과 탐구력, 창의력을 높여준다(김은정 2016). 영아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등의 식재료 탐색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은 영아의 감각경험을 충족시키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고취시키고, 정서를 순환시키며, 능동적이고 지적인 탐구성향과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켜서 궁극적으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권미혜, 방혜경, 이숙재, 2012).

▶식습관은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직결되어 있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춰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식습관의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유아의 다양한 식품에 대한 노출은 영양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음식기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또래집단의 식습관은 유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화, 2018).

▶편식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며 영아의 발달과정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영양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텃밭 프로그램이 영아들의 입장에서 내적변화를 가짐과 동시에 교사는 영아를 관찰하고 탐색하며 영아 개인의 놀이의 방향과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안정현, 2020). 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많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텃밭 가꾸기는 영아들에게 자연관찰과 직접적인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텃밭 가꾸기는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직접 가꾸는 경험뿐만 아니라 수확한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영아들이 직접 기르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식물들의 특징에 대하여 알 기회를 제공한다(한상경, 2005). 영아는 과학적이고도 창의적인 요리활동의 과정에서 기쁨, 즐거움, 흥미로운 시간과 함께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최복기 외, 2012).

▶최근 요리를 통한 교육적 효과가 다양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리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요리활동은 영아들이 직접 참여하여 음식을 만들고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영아 스스로가 요리활동을 통하여 익히고 경험하는 활동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임재택 외, 2010).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철 식품인 텃밭 채소를 활용하여 영아가 다양한 식재료를 놀이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아는 다양한 식재료를 오감으로 탐색하고,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본생활습관을 기르는 경험을 통해 영아의 식습관 향상에 효과적이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겠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8월까지

2) 활동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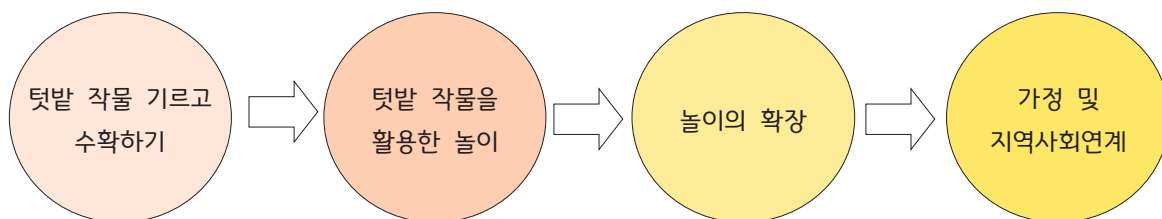
▶ 만0세 3명, 만1세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프로그램 연간

활동기간	활동주제	기본생활습관	가정연계	지역사회연계
4월	텃밭작물 가꾸기	손을 깨끗이 씻어요		
5월	새콤새콤 딸기	자리에 앉아서 먹어요	딸기잼 만들기	
6월	뽀글뽀글 상추 알록달록 채소	손가락과 포크로 먹어요	월남쌈 만들기 부모님과 텃밭에서 상추 따기	야채가게, 과일가게에 가요
7월	동글동글 감자	꼭꼭 씹어서 먹어요	텃밭 감자 가정으로 보내기 감자 치즈 구이	
8월	통통통 수박	골고루 먹어요	수박 화채	
9월 ~ 10월	길쭉이 고구마	새로운 반찬을 먹어요	고구마 키우기	
11월 ~ 12월	배추, 무우	훈린 음식을 휴지로 닦아요		

4) 활동방법

어린이집 텃밭에 채소 작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제철 수확 작물인 채소를 오감으로 탐색하고 요리 활동을 해본다. 영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놀이를 지원하거나 확장해가며 자연스럽게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한다.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 놀이 1 (기본생활습관) 🍴

◆놀이 포인트

영아의 하루 일과 중에 비중이 높은 일상생활영역 중에 기본생활습관은 매일의 일과 속에서 반복되어 이루어진다. 영아는 화장실에서 손 씻기 할 때 물에 대한 흥미가 많으며 식사시간에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후에는 손으로 먹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으려는 욕구는 강해지지만, 아직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진행하였다.



손을 깨끗이 씻어요



자리에 앉아서 먹어요



손가락과 포크로 먹어요



꼭꼭 씹어서 먹어요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먹어요

<놀이과정>

- ▶손씻기 : 일과 중에 화장실에서 손 씻기를 하며 손에 물이나 물비누를 묻히며 손씻기를 반복한다.
- ▶먹기 : 음식을 손가락과 포크를 잡고 먹기도 하지만, 손을 같이 사용해서 먹는다. 음식을 입 안에 넣고 잘 씹지 않고 삼키고,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먹는다.

<교사의 관찰 및 지원>

- ▶손씻기 : 손을 씻으며 물비누를 반복해서 묻히고 싶어 할 때 교사가 손에 거품을 묻혀 비비며 씻는 모습을 시범 보이자 영아가 교사를 따라서 손을 비벼서 씻었다.
- ▶먹기 : 도구 사용이 미숙한 영아가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교사가 손가락에 음식을 떼서 주니, 영아가 손가락을 잡고 먹었다. 편식 습관이 있는 영아에게 잘 먹는 영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니, 친구를 모방하여 안 먹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였다.

<상호작용>

“파프리카가 먹기 힘들었구나. 그러면 선생님처럼 냄새를 맡아 볼까? 어떤 냄새가 나니?”



놀이 포인트

◆실외놀이시간에 놀이터에서 놀이하다가 어린이집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발견하고 관심을 보이며 관찰을 시작하였다. 간식시간에 딸기를 먹어본 경험을 회상해보며 딸기 식물을 찾는 놀이가 진행되었다.



딸기가 자라요



딸기가 자라요



딸기 요거트 만들어요



딸기 책을 봐요, 딸기 캐스터네츠로 연주해요



딸기그림에 색칠해요



딸기물 손도장을 찍어요

<놀이과정>

텃밭을 산책하다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관찰하며 딸기 줄기에 딸기가 열린 것을 보고 “딸기”라고 말했고 딸기를 따서 들고 다닌다.

요리활동으로 식물 딸기를 제공하자 흥미를 보이며 딸기를 잡고 반복해서 먹는다. 빵칼을 잡고 딸기를 썰은 후에 요거트를 넣어 딸기요거트를 만들어 먹는다.

<교사의 관찰 및 지원>

딸기를 잘 먹으며 관심을 많이 보이는 영아들에게 벽면에 딸기그림을 게시해주고 딸기그림책을 제공해주니 영아가 딸기그림을 가리키며 “딸기”라고 말했고, 그림책을 보기도 했다. 음률영역에 딸기 캐스터네츠를 제공하자 영아가 캐스터네츠를 잡고 흔들며 놀이하였다.

<상호작용>

▶“OO이는 딸기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구나. 아주 좋은데?”

▶“친구가 OO이 입 속에 딸기를 쏙 넣어주었네.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 주고 싶어?”. “고마워! OO이도 친구 입에 넣어줄까?”



♣ 놀이 포인트

점심시간에 반찬으로 나온 상추 먹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영아들에게 교사가 상추쌈을 싸서 먹는 시범을 보이자 한 영아가 “나도 먹어”라고 말하며 상추쌈 먹기에 관심을 보였다. 실외놀이시간에 어린이집 텃밭을 산책하며 상추를 발견하고 교사가 우리가 먹어본 상추라고 말해주니, 영아가 상추를 뜯어보며 놀이가 시작되었다.



상추, 완두콩을 수확해요



상추와 열매를 탐색해요



상추와 열매로 내 얼굴을 꾸며요



비닐팩 상추를 탐색해요



상추를 킁킁 짚어봐요



상추가면을 꾸며요



상추 가면놀이해요



<놀이과정>

텃밭을 산책하며 상추와 완두콩을 찾아보고, 뜯어서 바구니에 담는다.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와 열매를 손으로 만지며 질감을 느껴보고 상추를 얼굴에 대보며 탐색한다. 얼굴 도안 위에 상추를 찢어서 올려놓고 열매를 놓아서 얼굴 꾸미기를 한다. 상추를 얼굴에 대보며 놀이하는 영아들에게 교사가 상추에 구멍을 내주니, 영아가 까꿍놀이를 한다.

<교사의 관찰 및 지원>

영아들이 상추를 만져보고 찢기도 한다. 미술도구인 롤러를 제공해주니 영아가 롤러를 잡고 상추를 두드리며 눌러 찍기를 했다. 상추를 손으로 만지기를 거부하는 영아에게 비닐에 상추를 넣어주어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추를 얼굴에 대보며 까꿍놀이를 할 때 영아들에게 가면들과 상추를 제공해주자 상추를 찢어 올려놓으며 상추가면을 만들었다. 상추가면을 쓰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까꿍놀이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상호작용>

“OO이가 상추 만져보는 것이 불편하구나. 그럼 비닐팩 안에 상추를 넣어볼까? 썩! 주물주물~ 꼭꼭꼭! 이제 OO이가 비닐팩 상추를 만질 수 있게 되었구나! 느낌이 어떠니? OO이가 즐거워 보이는구나.”

♣ 놀이 4 (알록달록 채소)



♣ 놀이 포인트

교실 역할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 채소 음식모형을 제시해 주었다. 모형에 관심을 보이며 만지고 먹으려고 입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과일, 채소 놀이가 시작되었다.



쿵쿵 냄새가 나요



<놀이과정>

여러 가지 과일, 채소모형을 탐색하며 영아가 알고 있는 과일, 채소 이름을 말했고, 교실 벽면에 게시된 그림에서 똑같은 그림을 찾아 가리킨다.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우리동네 시장에 있는 과일가게와 채소가게를 방문해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여 어린이집에 들고 왔다. 구입해 온 채소의 이름과 모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반으로 잘라서 야채 속을 탐색한다. 구입해 온 과일 중에 바나나는 영아에게 친숙한 과일이어서 바나나를 계속 먹으려 했다. 좋아하는 바나나를 먹고 손으로 주물러보며 오감으로 탐색한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교사의 관찰 및 지원>

반으로 자른 채소 탐색놀이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들에게 채소 도장 찍기 자료를 제공해주니, 영아가 채소에 몰감을 묻혀서 도안 위에 채소도장 찍기를 해보았다.



채소를 썰어요



바나나를 주물주물해요



채소도장을 찍어요



과일 그림책을 봐요



여러 가지 채소를 탐색해요



지역 연계: 채소가게에 가요

<상호작용>

▶“OO이가 상추 같은 채소나 과일 만지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제 상추를 만질 수 있게 되었구나. 대단해! 상추를 만져보니 느낌이 어떠니?”

▶“이것은 무엇일까? 먹어본 적이 있니? 어떤 맛일까? 선생님이 먹어볼까?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나네. 누가 한번 먹어볼까?”

♣ 놀이 5 (동글동글 감자)



♣ 놀이 포인트

간식으로 나온 감자를 잘 먹는 영아와 잘 먹지 않는 영아가 있었다. 어린이집 텃밭을 산책하다가 감자줄기를 발견하고 교사가 감자줄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자 감자에 관심을 가졌다. 6월이 되어 감자 캐기를 계기로 감자 탐색활동이 시작되었다.



감자가 자라요



바구니에 감자를 담고 걸어가요



감자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감자를 찾아요



감자를 굴려요



감자로 음식을 만들어요



감자에 빨대를 꽂아요

<놀이과정>

텃밭에 심어 놓은 감자 줄기를 들어 올리자 감자가 나오는 것을 신기해하며 감자를 잡고 감자 캐기를 한다. 감자를 탐색하는 중에 감자를 잡고 바닥에 굴려보며 놀이했고, 역할 쉼크대에서 감자를 씻어, 그릇에 담으며 요리하는 역할 가상놀이를 한다.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감자 요리활동을 해보았다. 감자샌드위치 만들기를 하며 감자와 계란 등의 재료를 썰며 먹는 것에 더 관심을 보였다.

<교사의 관찰 및 지원>

감자를 바닥에 공처럼 굴리며 놀이하는 영아들에게 확장활동으로 감자찾기 놀이를 하였다. 김장매트 안에 볼풀공을 넣어주고 감자를 숨겨주니 감자를 찾기 위해 분주해졌다. 영아가 매트 안에 들어가서 공 사이에서 감자를 발견하고 교사에게 자랑하며 감자 찾기 놀이는 아이들에게 무척 매력적이었다.

▶ 감자를 소꿉그릇에 담으며 역할놀이를 하는 영아들에게 바구니도 제공해주니, 영아가 바구니에 감자를 담고 쏟고를 반복하였다.

<상호작용>

- ▶ “감자를 씻어요. 뽀뽀뽀”
- ▶ “감자를 굴려요. 데굴데굴”
- ▶ “감자를 찾아보아요. 쓱쓱”
- ▶ “감자를 썰어요. 툇툇툇툇”
- ▶ “삶은 감자를 만져요. 주물주물”



♣ 놀이 포인트

영아가 간식으로 나온 수박에 관심을 갖고 맛있게 먹었다. 영아들이 좋아하는 수박을 활용한 놀이가 시작되었다.



수박그림책을 봐요



수박그림을 그려요



수박을 탐색해요



<놀이과정>

수박 그림책과 바닥에 붙여 놓은 수박 그림을 보고 “수박”이라고 말했다. 먹어본 경험을 회상하며 미소를 보인다. 실물 수박을 보자 좋아하며 손으로 수박을 만져보거나 빵칼로 수박을 쿡쿡 찌르며 탐색한다. 수박 도안 위에 물을 묻힌 붓을 잡고 물 그림 그리기를 한다. 김장 매트 안에 여러 크기의 수박 볼풀공을 준비해 주니, 영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수박 볼풀공을 잡고 위, 아래로 던지며 놀이한다.

<교사의 관찰 및 지원>

실물 수박을 활용한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에게 작은 크기의 수박을 준비해 주니, 영아가 수박을 잡고 굴려보며 놀이하였다. 수박 굴리기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에게 수박 볼풀공을 추가로 준비해 주니, 수박 볼풀공을 던지고 잡으며 신체놀이가 일어났다. 수박을 담을 수 있는 수박끈과 바구니를 함께 제공해 주니, 영아가 끈을 잡고 늘려보며 수박 끈 탐색놀이가 일어났고, 수박 볼풀공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들고 다니면서 놀이했다.



수박화채를 만들어요



수박가방을 꾸며요



수박가방을 들고 걸어요



지역연계 : 우리동네 과일가게 가요



수박 공놀이해요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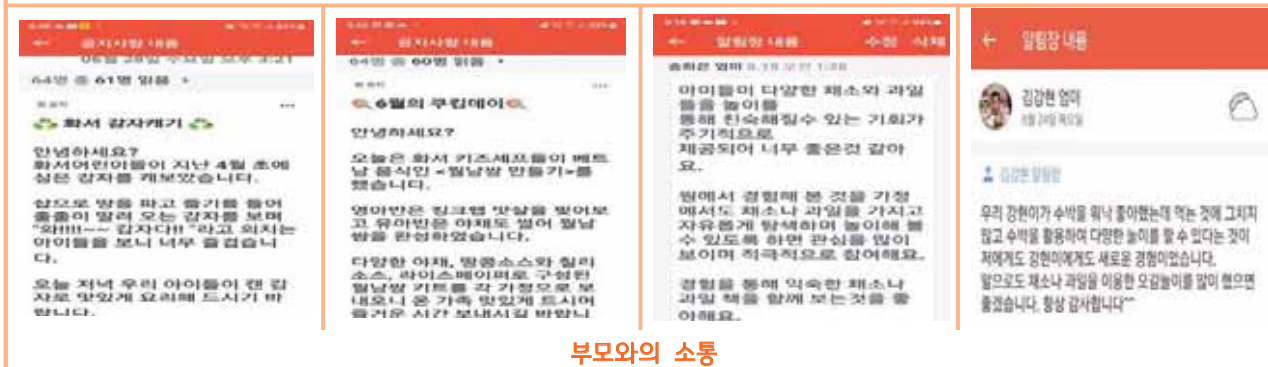
- ▶ “OO이가 좋아하는 수박노래가 나오네. 수박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니 어때니?”
- ▶ “수박 크기가 어때니? OO이 얼굴 만하네! 수박을 들어볼까? 작고 가벼운 수박이네!”

III. 활동평가

1. 부모의 평가



가정연계 활동



부모와의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님들의 평가는 아이들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 등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놀이기회가 주기적으로 제공되어 너무 좋은 것 같고, 원에서 경험해 본 것들을 가정에서도 채소나 과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탐색행동이 변화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요리를 해서 먹는 경험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고 하셨다. 또한 식사할 때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태도나 혼자서 찹쌀질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 기본생활습관이 변화되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내셨다.

2. 영아의 변화

영아들은 텃밭 가꾸기와 연계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놀이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를 탐색하는 능동적인 주체자임을 알 수 있었다. 교사가 다양한 놀이자료를 제공해주었더니, 영아의 탐색놀이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전에는 좋아하던 과일이나 채소 종류 위주로만 먹으려고 하거나 음식을 시각적으로 보고 거부하는 편식습관이 있는 영아가 많았지만,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경험을 통해 영아가 다양한 채소 종류와 친숙해 질 수 있었고, 잘 먹지 않았던 채소종류의 반찬을 먹어보려고 하는 식습관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후에도 기본생활습관과 연계한 식습관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영아의 식습관 향상에 효과적이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의 평가

영아반의 경우 이전에는 텃밭 채소나 과일 등을 활용한 활동이 식물재료를 오감으로 탐색하고 요리해 보는 활동으로 전개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아에게 식물 채소나 과일 등을 제공해주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영아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놀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영아에게 어떤 놀이를 제공하면 더 흥미롭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지의 고민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확장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프로그램 발전 방향 및 향후과제

영아의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을 개선해 볼 수 있도록 제철 식재료인 텃밭 채소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해보았다.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활동이 영아들에게 친근한 요리재료나 요리방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요리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영아가 식재료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요리재료나 요리방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미흡했었다. 전문기관의 다양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식전달, 요리참여활동, 직접 식재료를 가꾸고 손질하며 체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만0세~만1세 영아반에 한정되다 보니, 유아반보다는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웠다. 다음 프로그램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활동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높일 수 있으면 한다.

넷째,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이 필요하다.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자료 제공과 외부 강사를 초빙한 강연회 및 간담회 등을 제공하고, 원에서는 부모 자원을 활용하여 텃밭활동이나 요리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 저장음식에 대해 지역사회 관련기관 방문 체험활동을 통해 전통 저장 음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우리나라는 예부터 김치, 장아찌, 젓갈 및 식혜, 장류 등의 저장음식이 발달되어 왔으며 전통저장 음식은 과학적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다음 프로그램은 요리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제철 식재료와 우리나라 전통 저장음식과 접목된 요리활동을 계획하였다. 2024년도에는 영아뿐만 아니라 만0세~만5세까지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제목 : 채소를 활용한 저장음식 만들기

활동기간	활동주제	가정연계	지역사회연계
3월 ~ 4월	과일장아찌	가정연계활동(놀이 안내) 텃밭활동	바른 식생활교수원시 전통문화관
5월 ~ 6월	매실청	가정연계활동(놀이 안내)	수원시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한

		텃밭활동	방문교육
7월 ~ 8월	오이지	가정연계활동(놀이 안내) 텃밭활동	수원시급식관리지원센터 수아꿈 튼튼체험관
9월 ~10월	감식초	학부모 교육자료	전통 식생활체험관육 체험관
11월 ~12월	백김치	부모참여수업	경기도 식품안전체험관
1월~2월	깍두기	가정연계활동(놀이 안내)	수원시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한 방문교육

V. 참고문헌

- 김경화(2018). 영양교육 논문 분석을 통한 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제안.
- 한영숙(2020).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의 유아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강미경(2015). 텃밭가꾸기와 연계한 요리활동이 영아의 식습관과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2). 표준보육과정 운영이 실제 ; 놀이이야기 어떻게 담아낼까?.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시립신곡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김포시
프로그램명	맛있는 맛을 찾는 모험
총 괄	신수원
기획 및 운영	김은정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식생활은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맛의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풍부한 음식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바르게 섭취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건강한 삶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영유아들은 신체적으로 성장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의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의 식품에 대한 경험은 식품에 대한 기호 및 식사 행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생동안의 영양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유아의 식생활은 단지 신체발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대 유아의 식습관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편식’이다. 유아 편식이란 유아가 특정식품군의 섭취를 거의하지 않고, 선호하는 특정군의 섭취만을 편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 3-5세경의 유아는 식욕이 증가하고 원하는 간식을 요구하며 음식에 대한 기호와 식사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임으로 간식의 조절이나 편식의 지도 등 이에 따르는 지도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류 위주의 식단에 익숙해진 현대 유아들의 편식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채소에 대한 편식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식습관 태도는 소아비만, 각종 면역력 결핍으로 연결되며 유아의 건강의 적신호가 된다. 이러한 식소비 패턴과 유아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요리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요리활동은 단순히 식재료의 외관만 탐구해보는 단편적인 활동이 아닌, 식재료의 내부구조 탐색, 식감, 맛, 촉감, 물리적 힘에 의한 변화과정, 열에 의한 변화과정 등의 다양한 확장활동을 제공해 준다. 요리활동과 같이 가정과 연계하는 활동으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활동이 바로 ‘텃밭 가꾸기’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텃밭 가꾸기 활동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며, 가까이에 두고 관찰, 체험하기에 가장 유용한 자연 친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텃밭 가꾸기와 연계한 요리활동은 단순히 유아의 흥미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식습관과 연계한 활동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이 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직접 가꾼 채소에 대한 애착이 생겨 관심을 갖게 되어 긍정적 태도로 전환시켜주는 발판이 된다. 또한 유아 혼자 개인적으로 식습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보다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또래집단과 함께 식습관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공동체 안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1) 텃밭 가꾸기의 교육적 가치

유아가 환경 친화적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가능한 한 자주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과 기타 여러 활동들을 자연놀이와 연장선상에서 활용하여 자연과의 만남이 유아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텃밭 가꾸기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자연으로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2) 요리활동의 교육적 가치

요리활동은 실제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 중 하나이며, 유아 교육 내 구성원 모두가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요리활동은 단순히 흥미 있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유

아교육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우선 놀이중심의 시각으로 요리활동을 살펴보면, 유아의 요리활동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놀이인 동시에 학습이 될 수 있다. 유아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요리재료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질감도 느끼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오감각이 발달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맛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고, 질감의 차이 또한 구분해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아가 감각을 통해 느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은 유아의 신체발달 뿐 아니라 인지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8월
- 2) 활동대상 - 만 3세 유아
- 3) 프로그램 연간

✿ 만3세 놀이& 일상생활습관 연간교육계획안 ✿

구분	놀이주제	일상주제		구분	놀이주제	일상주제	
3월	우리는 고운햇살반	신학기적응		9월	우리나라로 떠나자	식습관	고구마
4월	봄을 찾으러 가자	청결	스스로 배변할 수 있어요.	10월	가을을 느껴봐		무
5월	내 이야기를 들어봐		스스로 내 몸을 깨끗이 해요	11월	신기한 환경과 생활		다 먹은 내 자리를 깨끗하게 해요
6월	여기가 우리동네야	식습관	양파	12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	안전 약속	안전한 놀이약속을 스스로 지켜요
7월	신나는 여름		상추	1월	편리한 생활도구		차례를 지키고 줄을 서요
8월	내가 좋아하는 교통기관		포도	2월	행복했던 고운햇살반	졸업 및 수료	

4) 활동방법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놀이의 시작

기대효과

-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본다.
- 자신의 식재료 취향을 알아보고, 친구들의 취향도 알아보며 다양한 식습관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다.

1. 내가 잘 먹는 야채

점심시간 밥을 먹던 유아가 자신은 양파도 잘 먹을 수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는 유아들도 자신이 잘 먹는 야채를 하나 둘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취향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나는 양파를 잘 먹어!"
 "나는 야채 중에 시금치를 제일 잘 먹는데~!"
 "나는 양파 안 좋아해."

※ 이후 유아들은 매번 식사시간 마다 자신의 음식 취향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자신의 취향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식습관까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2.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채소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 채소를 이야기하던 유아들은 나아가서 친구들의 취향을 궁금해하며 꾸준히 이야기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자신과 똑같은 채소를 좋아하는 친구는 누가 있는지 세어보는 유아가 있었다.

— 교사지원: 유아들의 취향을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림과 스티커를 지원해 주었다.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 채소에 스티커를 붙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던 유아들은 최종적으로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과일 가장 좋아하는 지 궁금해하며 다른 친구의 선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 우리가 싫어하는 과일, 채소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 채소가 나타나있는 그래프를 보던 유아가 “나는 양파가 싫은데.”라고 말하였다. 꺼려지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불호의 이유를 말해보며 취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유아들과 함께 어떤 이유로 특정한 과일, 채소를 먹기 싫은지 이야기 나누어보았다. — 교사지원: 상호작용



“○○이는
왜 양파를 싫어하냐?”
“@@이는
양파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엄마 양파를 익히면 달콤한
맛이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
말로 익은 양파를 먹으니 달콤
한 맛이 나서 좋아해요!!”

“양파는 맛이 없어 보여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반찬으로
나왔을 때 포크로 집어보려고
했는데 미끌미끌해서 먹고 싶
지 않았어요.”

※유아들은 여러 가지 채소,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이유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채소를 싫어하는 유아들 중 대부분이 생소하고 낯선 음식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양파를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
너도 한 번 먹어봐
정말 달콤해!”

“정말?
그런데 아직 조금 무서워.
나도 양파랑 친해지면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어떻게
친해지면 좋을까?

③ 평가

자신의 과일, 채소 취향을 알아보고 친구의 취향에도 관심을 가지던 유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먹기 힘들었던 채소에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 먹기에는 꺼려졌던 유아가 ‘채소와 친밀해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유아들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 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고민 끝에 유아들은 채소와 더욱 친해질 수 있는 모험을 떠나기로 놀이 방향을 정하였다.

첫 번째 모험 : 양파

기대효과

- 양파에 대해 친숙함을 가지고, 더욱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 양파를 알아가는 모험을 통해 양파와 친해지고, 먹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채소에 대한 생소함, 걱정을 줄이고 가까워지기 위한 모험을하기로 결정한 유아들은 처음으로 모험할 야채를 고르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한 유아가 “나도 달콤한 양파를 먹어보고 싶어! 양파랑 친해지는 모험을 하자”라고 말하며 양파 모험을 시작하였다.

1. 양파 밭으로 가자!

양파모험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한 유아가 “양파를 직접 캐보면 양파랑 친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며 양파밭에 가자는 의견을 내었다. 다른 유아들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파를 캐는 체험을하기를 원하였다.

— 교사지원 : 유아들이 실제로 양파를 캐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양파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였다.



※ 양파밭으로 체험학습을 떠난 유아들은 실제로 양파를 캐고 관찰하며 더욱 양파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양파밭에 다녀온 후 자신이 캐 양파를 더 자세히 관찰하던 유아들은 양파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자라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 양파로 그림을 만들어볼까?

직접 캐온 양파를 세세하게 관찰하며 흥미를 키우던 유아들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양파와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하다, 양파로 미술표현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양파로 미술표현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던 유아들은 양파껍질을 떼어 종이에 붙이며 미술놀이를 하였다. — 교사지원 : 종이와 풀, 물감 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재료를 제공하였다.



— 교사지원 : 양파 껍질 뿐만 아니라 양파를 자르면 도장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유아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법을 알려주었고, 유아들이 양파를 도장으로 사용하며 새로운 미술표현도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3. 어떻게 해야 맛있지?

양파와 어느 정도 친밀해졌다고 생각한 유아들은 어떻게 양파를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였다.

“그런데 양파를 관찰해보니까 냄새가
고약했어, 양파가 정말 맛있을까?
어떻게 먹어야하지?”

“피자에도 양파가 들어있어! 피자에 양
파를 넣어서 익혀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거야!”

양파를 익혀서 먹어야 달콤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익혀먹을지 생각하던 유아들은 맛있는 피자에 양파를 넣어 익혀 먹자는 의견을 내었다.

— 교사지원 : 요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파를 비롯한 요리재료와 도구를 준비해주었다.



유아들이 만들기 용이한 피자빵으로 피자를 대신해서 만들어보았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옥수수 등의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만들었고, 유아들이 직접 양파를 만져보고, 자르고, 냄새도 맡아본 뒤 빵 위에 올려 요리를 완성하였다. 유아들이 양파를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평가

양파모험을 통해 양파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던 유아들은 직접 양파밭에 가서 양파를 수확해보고 성취감을 느끼며 양파가 자라는 과정도 알아보았다. 또한 양파를 이용하여 미술표현을 하며 직접 양파를 만지고 까보면서 양파의 질감을 느끼고 관찰하였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요리를 통해 양파를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며 양파에 대한 생소함과 두려움을 줄이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두 번 째 모험 : 상추

● 기대효과

- 상추에 대해 친숙함을 가지고, 더욱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 직접 텃밭에 상추를 심고 기르며, 자라는 과정을 세심하게 알아볼 수 있다.
- 직접 키운 작물의 소중함을 알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양파모험을 끝낸 유아들은 다음엔 어떤 채소 모험을 떠날 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점심식사 반찬으로 상추무침이 나왔고, 먹기 힘들어하는 유아들이 많았다. 용기를 낸 한 유아가 상추를 한 번 먹어보고는 “어! 상추가 생각보다 맛있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아들은 자신들도 모험을 통해 용기를 내어 상추를 맛있게 먹는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며 두 번째 모험의 주제를 상추로 정하였다.

1. 직접 상추를 키워보자!

상추모험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 지 고민하던 중 한 유아가 “이번에는 캐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심는 것도 해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다른 유아가 “우리 어린이집 놀이터에 텃밭이 있어! 거기에도 상추를 심을 수 있나?”라고 말하며 상추를 텃밭에 심어보자는 의견을 내었다. 다른 유아들도 모두 흥미로워하는 반응을 보이며 상추를 텃밭에 심기를 원하였다. 그 후 상추를 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이야기 나누며 준비물을 정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심는 게 좋을 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 교사지원 : 유아들이 실제로 텃밭에 상추를 심어볼 수 있도록 흙과 물뿌리개, 상추 모종 등을 준비하여 지원해주었다.



※ 유아들은 직접 모종삽을 들고 흙을 고르고 상추 모종을 텃밭에 심으며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바깥놀이를 하며 수시로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가 다르게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들이 키운 상추와 깊게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우리가 심은 상추는 어떻게 자랄까?

텃밭에 상추를 직접 심은 유아들은 다른 주제의 놀이를 하면서도 상추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추가 엄청 커지는 거 아닐까?”, “아니야, 내가 심은 건 아기상추라서 아주 작은 상추에서 멈출 거 같아.”라고 이야기 하였다. — 교사지원 : 상추가 어떻게 자랄 지 이야기를 나누는 유아들에게 종이와 미술재료를 지원해주며 시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심은 상추는 보라색으로 클 거 같아!
상추 모종에도 보라색이 있었거든”

“내 상추는 뽕뽕뽕하게 자랄 거 같아.
내가 저번에 상추를 먹어봤더니 뽕뽕
죽하게 생겼었어!”



※ 상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유아들은 상추를 직접 그리며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흥미로워하였다. 또한 자신의 생각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표현한 상추의 모습도 직접 보며 더욱 풍부한 내용의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였다.

3. 우리가 심은 상추를 먹어보자!

바깥놀이 때 틈틈히 상추에 물을 주던 유아들이 “상추가 다 자란 것 같아!”라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다 자란 상추를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의견을 나누던 유아들은 자신들이 평소에도 어떨 때 상추를 먹었는지 생각해보았다.

“우리 점심 먹을 때 상추 무
침 나온 적 있었잖아! 나 그
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나는 엄마, 아빠랑 고기 먹을 때
엄마가 먹어보라고 했었어! 고기
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던데~”

“고기? 나도 고기 좋아하
는데 고기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상추를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기와 함께 상추를 먹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내었다. — 교사지원 : 유아들이 고기와 함께 상추를 바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수확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구워진 고기, 접시 등을 지원해주었다.



상추를 직접 수확하고 씻어서 바로 고기와 함께 먹으니 유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며 굉장히 즐거워하였다. 평소처럼 실내에서 밥과 함께 먹는 것보다 새로운 장소에서 특별하게 먹으니 모든 유아가 거리낌없이 상추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 가

상추 모험을 통해 텃밭에서 상추를 직접 심어보고 키운 유아들은 양파 밭에서 수확해왔던 것보다 더 크게 즐거워하며 상추에 관심을 보였다. 본인이 심은 상추에 애착을 가지고 바깥놀이 때마다 물을 주고 들여다보며 관찰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상추를 키우며 어떻게 자랄지 상상해보고, 상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며 다른 친구들의 상상도 공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 자란 상추를 수확하여 고기와 함께 먹는 경험은 모든 유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였으며, 또 다른 채소를 키워 밖에서 함께 먹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만큼 상추와 친밀감이 높아진 유아들은 후에 점심식사 식단으로 나온 상추무침도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번 째 모험 : 포도

기대효과

- 샤인머스켓과 보라색 포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 씨가 있는 포도에도 친밀함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
- 직접 포도를 수확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맛있게 먹어본다.

간식시간에 손을 씻고 나와 어떤 간식이 나오는 지 살펴본 유아가, 오늘의 간식이 보라색 포도인 것을 보고 “나는 샤인머스켓이 좋은데”라고 이야기하며 보라색 포도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다른 유아들도 “나도 샤인머스켓만 먹어 봤어”라고 이야기하며 보라색 포도에 생소해하였다. 채소는 먹기 힘들어 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달콤한 맛이 큰 과일을 생소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아들이 샤인머스켓 뿐 만 아니라 보라색 포도도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모험은 포도모험으로 정하였다.

1. 포도색이 다르네?

포도를 먹기 위해 간식을 배식 받은 유아들은 포도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포도의 질감이나 색, 맛 등 샤인머스켓과 보라색 포도가 다른 점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샤인머스켓과 보라색 포도는 무엇이 다를까?”

“샤인머스켓은 껍질을 먹을 수 있는데, 보라색 포도는 껍질을 먹을 수 없어요!”

“보라색 포도는 안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빼고 먹어야 해요!”

“둘 다 달콤한 맛이 나요! 그런데 색깔이 달라요!”

직접 포도를 먹으며 색이 다른 두 포도의 차이점을 알아보니 포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관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포도놀이를 해보자!

여전히 샤인머스켓에 비해 보라색 포도에 어색함을 느끼던 유아들은 어떻게 하면 포도와 가까워질 수 있을 지 고민하였다. 고민 끝에 포도를 만들어보거나, 포도를 직접 따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포도를 만들고 싶은 지 물어보자 물감으로 포도를 표현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 교사지원: 포도 도안과 물감 등 유아들이 원하는 미술재료를 제공해주었다.



처음에는 붓을 사용하려던 유아들이 손으로 물감을 칠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었고, 다른 도구 없이 손을 사용하여 물감을 칠해 포도를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하였다.

— 교사지원: 포도를 따보고 싶다는 유아들이 있었지만 바로 포도 밭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라색 풍선을 포도처럼 매달아 따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었다.



실내에서 포도 대신 풍선을 사용하여 포도따기 놀이를 하던 유아들은 꼭 포도밭에 가서 실제로 포도를 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교사지원: 직접 포도밭에 가서 포도따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포도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였다.



포도밭에서 직접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를 가져온 유아들은 가정으로 포도를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수확한 포도를 먹어보며 포도와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④ 평가

포도모험을 통해 샤인머스켓만 먹어보고 경험해본 유아들이 보라색 포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간식으로 포도를 먹으며 익숙한 샤인머스켓과의 비교를 통해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알아보며 가까워질 수 있었고, 포도를 그리거나 따는 등의 포도놀이를 통해 보라색 포도와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수확한 뒤 가족들과 함께 먹어본 경험은 유아들로 하여금 특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일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는 하였다.

놀이의 연계

④ 기대효과

- 부모님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작물에 더욱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골고루 먹는다.
- 부모님과 함께 키운 작물로 가정에서 요리해 먹으며 먹기 힘들었던 채소에 도전해본다.
- 직접 마트에서 채소를 구매하며, 모험했던 채소를 포함하여 다른 채소에도 관심을 가진다.

1. 가정연계 - 부모님과 함께 심어요.

여러 차례 텃밭을 가꾸고, 농장에 가서 수확하는 기쁨을 느낀 유아들이 엄마, 아빠와도 함께 텃밭을 꾸미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교사지원 : 부모님들도 텃밭놀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린어린이집을 계획하였다.



유아들끼리 텃밭을 가꾸고 꾸밀 때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으나, 가족들과 함께 하니 더욱 적극적이고 행복하며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좋은 취지의 텃밭 가꾸기라고 말씀해주시며 다음 텃밭가꾸기도 기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2. 가정연계 - 가지피자를 만들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텃밭에 심었던 가지와 방울토마토를 수확하여 가정으로 가져간 유아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지 피자를 만들어 먹은 사진을 보내왔다.



함께 가꾼 작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니, 다른 유아들도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를 요리해 먹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소에는 먹지 않았을 가지, 토마토 등을 잘 먹었다며 뿌듯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3. 지역사회연계 - 우리가 모험한 과일, 채소를 마트에서 찾아봐요!

즐겁게 모험을 즐기던 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갔더니 우리가 모험했던 과일, 채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러자 다른 유아들도 마트에 가서 과일과 채소를 찾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었다.

— 교사지원 : 바깥놀이를 다녀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 유아들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과일, 채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가 가꾸어 보았던 과일, 채소를 찾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채소들을 찾아보기도 하며 즐겁게 마트를 다녀온 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가서 채소를 사달라고 할거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평가

친구들끼리 했던 모험, 놀이들을 가족과 함께 즐기니 특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가 많았다. 평소에도 즐겁게 참여하였으나, 가족과 함께하니 더욱 즐거워하며 놀이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길게 지속되었다. 또한 식습관에 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한 연계놀이가 훨씬 크게 효과를 보였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유아들의 식습관이 긍정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놀이의 확장



기대효과

- 시장놀이를 통해 직접 야채, 과일을 판매해보며 채소가 과일의 영양소 등을 소개하고 알아본다.
- 텃밭에서 키운 작물을 포함하여 또다른 작물과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1. 우리가 직접 팔아보자!

마트에 다녀온 유아들은 본인들도 직접 채소, 과일을 팔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었다. — 교사지원: 더욱 풍부한 시장놀이가 될 수 있도록 계산기와 지갑, 지폐 등을 지원해주었다.



“당근 사세요~ 양파 사세요~ 맛있는 포도도 팔아요!”

“몸에 좋은 것도 팔아요?”

“그럼요~ 당근은 눈을 튼튼하게 하고 포도는 피부가 좋아진답니다~

“그러면 당근, 포도 둘 다 주세요!”

마트놀이를 하던 유아들은 채소, 과일이 어떤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며 판매하였다. 판매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사에게 물어보며 채소, 과일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평가

유아들은 시장놀이를 하며 모험을 떠났던 작물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과일, 채소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작물의 효능을 알아보고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III. 활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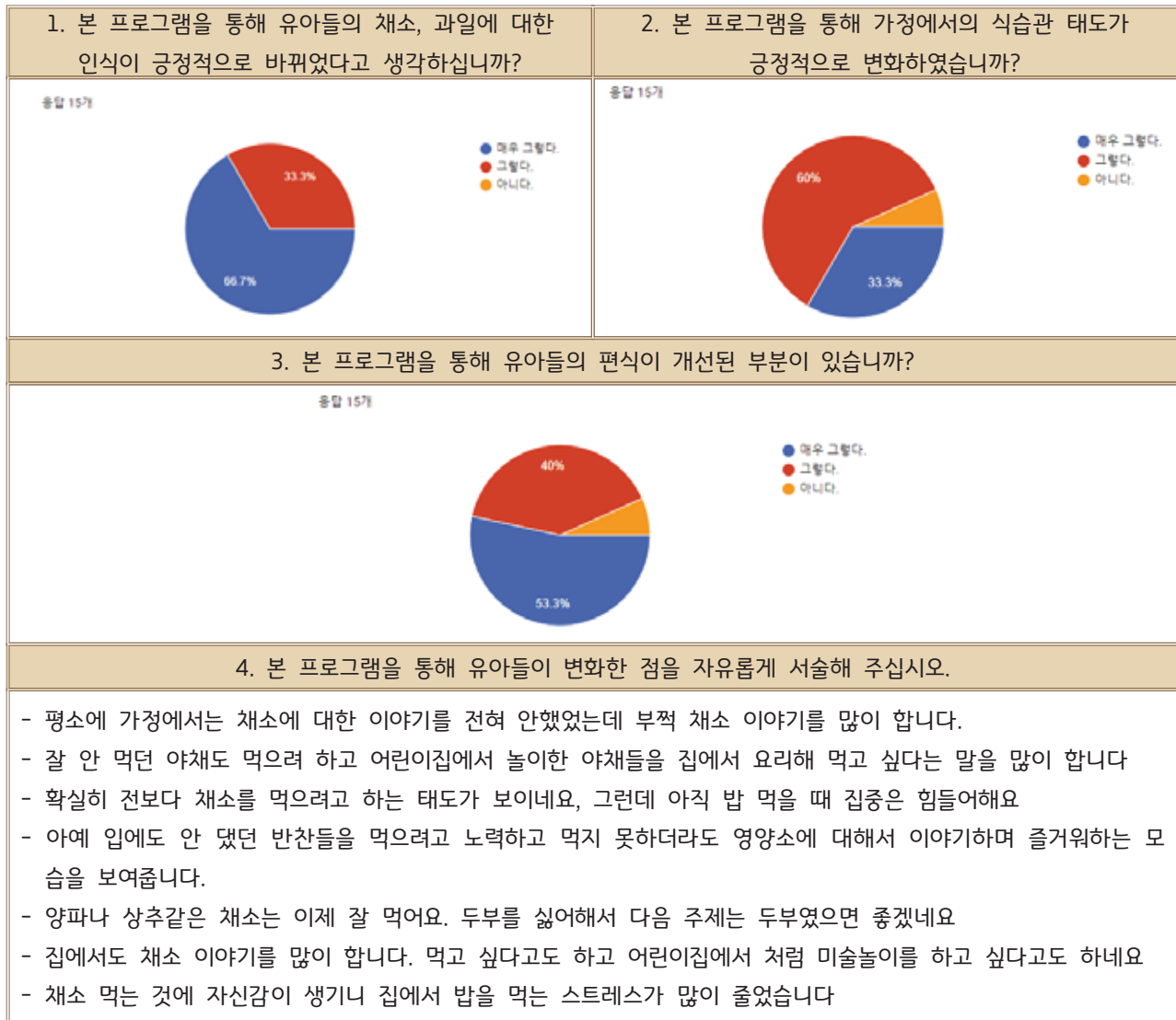
1) 교사평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유아들의 식습관이 놀이만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확신을 하기 어려웠다. 일상생활을 놀이로 풀어 유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유아들은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식사시간 마다 밥과 자신에게 익숙한 국물, 고기반찬을 제외하면 아예 시도도 안 해보던 유아가 점차 먹지 않았던 반찬들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용기를 내는 모습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도 생각된다. 또한 각각의 유아들의 변화 뿐 아니라 교실 전체 분위기도 먹기 싫은 음식은 아예 안 먹으려고 했던 기초에서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보고 맛을 보며,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아들이 힘들어하는 음식들을 모험하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놀이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2) 부모평가

일상생활, 식습관에 관한 프로그램이니 만큼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이 발견되는 지 관찰을 부탁드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부모님들의 정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5명의 학부모참여가 이루어졌다. 채소, 과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의 식

습관 태도에 관한 질문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며, 아직 변화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1개 있었다. 편식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도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었으며, 변화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개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변화를 자유롭게 서술해달라는 질문에 답변을 보면 많은 유아들이 가정에서도 채소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아직 힘들어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여전히 변하지 않은 태도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아래에는 만족도 조사의 결과 통계이다.



3) 동료교사의 평가

A교사 : 만 3세 유아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 2세, 만 3세 유아들에게 실행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 내년에는 만 2세반에도 시도해봐도 좋을 거 같아요.

B교사 : 놀이만으로 식습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합니다.

C교사 : 만 2세반에서부터 편식이 심하던 유아였는데 야채를 먹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D교사 : 편식에 많은 초점이 맞춰진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밥 먹을 때에 태도에도 초점이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E교사 : 농장에 현장학습을 가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채소를 주제로 잡으면 유아들이 더욱 좋아할 것 같습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24년도 연간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았다. 동료교사의 평가 중 놀이주제가 너무 편식에만 집중 되어있다는 평가가 있어, 편식을 포함하여 식습관 태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였으며, 편식보다 먼저 태도를 주제로 선정하여 유아들이 바른 태도를 먼저 익힌 후 채소, 과일에 대한 친밀도를 올릴 수 있도록 계획 보았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아들이 예상보다 더욱 꺼려하던 음식들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의 놀이 진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였다. 아래는 2024년 연간교육계획안이다.

★ 2024년 만 3세 놀이& 일상생활습관 연간교육계획안 ★

구분	놀이주제	일상주제		구분	놀이주제	일상주제	
3월	우리는 고운햇살반	신학기적응		9월	우리나라로 떠나자	식습관	양파
4월	봄을 찾으러 가자	청결	스스로 배변할 수 있어요.	10월	가을을 느껴봐		가지
5월	내 이야기를 들어봐		스스로 내 몸을 깨끗이 해요	11월	신기한 환경과 생활		파프리카
6월	여기가 우리동네야	식습관	바르게 앉아서 먹어요	12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	안전 약속	안전한 놀이약속을 스스로 지켜요
7월	신나는 여름		내가 먹은 자리를 정리해요	1월	편리한 생활도구		차례를 지키고 줄을 서요
8월	내가 좋아하는 교통기관		감자	2월	행복했던 고운햇살반	졸업 및 수료	

V. 참고문헌

텃밭 가꾸기와 연계한 요리활동이 유아의 식습관 및 편식 행동과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송한얼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2

유아의 편식 개선을 위한 요리활동 운영에 관한 실험연구 / 고경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유아의 편식 개선을 위한 요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김예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8

유치원에서의 요리활동이 편식 유아의 편식과 부적절한 식사행동에 미치는 효과

/ 이형복 광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2

채소 편식 완화 프로그램으로서 동화를 통한 요리활동 개념 및 그 효과 / 김혜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2

텃밭 가꾸기 활동이 유아의 식습관 및 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 / 박남연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2

텃밭 가꾸기 활동이 유아의 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 / 장영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2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아이뜰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민간
지 역	오산시
프로그램명	“알콩 달콩 단잠!”
총 괄	이미선
기획 및 운영	이은선

I.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하루 일과는 등원 및 통합보육, 오전 자유선택활동, 오전간식, 대소집단활동, 실외활동, 점심식사, 낮잠 및 휴식, 오후간식, 오후 자유선택활동, 통합보육 및 귀가로 일과가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부에선 2017년 까지만 해도 만3세 이하의 영·유아는 반드시 낮잠을 가져야 한다(보건복지부, 2017)고 하였으나 개정된 보건복지부(2018)의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이후 현재 평가제(2023) 지표에서는 “만3세 이하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은 매일 낮잠시간을 계획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만3세 이하의 경우 낮잠 및 휴식은 매우 중요하나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잠들기 힘들어 하는 유아의 경우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만3세(유아)가 되면서 밤잠에 영향을 준다는 부모님의 의견이나 낮잠을 안자겠다는 유아들이 있어 교사는 낮잠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낮잠에 관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의 낮잠 및 부모교육에 관련해 부모의 요구를 연구한 권혜진(2013)은 부모들은 대체로 현재의 낮잠 운영 방식에 만족하나, 상당수 부모의 경우 밤에 잠을재우기 힘들므로 유아가 낮잠을 자기 싫어하면 재우지 말 것을 바라고 있다고하였다. 이슬기(2008)는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을 교사와 부모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교사는 낮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부모는 낮잠이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낮잠 및 휴식시간에 특별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낮잠 및 휴식시간을 제공함에 있어 부모들의 눈치를 보거나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진옥(2013)은 주간 수면과 야간 수면과의 관계에서 유아가 낮잠을 자더라도 4시 이전에 낮잠을 끝내면 저녁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장에서는 하루일과 중 놀이중심 일과 후 낮잠이나 휴식시간이 없을 경우 오후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앞선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중요한 낮잠 및 휴식이 제공되지 않은 채로 오후 일과가 진행되면 오전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유아들은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다(박윤자, 이대균, 2012).

유아들에게 놀이는 생활의 일부이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주변 세계와 사물을 이해하며, 친구와의 갈등이나 당면하는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에게 낮잠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생리적 피곤을 회복하고 오후일과에서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보건복지부, 2018) 유아가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의 일과 중 낮잠(휴식)지도는 중요한 일과 지도중에 하나임이 분명하기에 부모님과 대상 유아가 낮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낮잠(휴식)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과 연계하여 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유아의 성장기에는 충분한 영양과 다양한 신체활동, 그리고 질 높은 수면이라고 생각한다. 만 3세 유아의 경우 하루 11~12시간을 자며 낮잠은 1번 정도 자는데(보건복지부, 2018) 질 높은 수면을위한 요소로 유아의 낮잠을 빼놓을 수는 없다. 유아기의 충분한 낮잠 및 휴식은 오전시간에 쌓인 신체의 피로를 풀어주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 뇌를 쉬게해주고 충전시켜주므로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김수정, 2015).

앞서 제시한 대로 유아들이 낮잠이나 휴식을 통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오후일과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

난다. 특히 종일반 유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놀이활동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충분한 휴식이 부족하면 오후 자유놀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또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놀이가 단절되는 문제를 발생시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비협조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김윤희, 2015). 낮잠은 오전일과를 마치고 점심식사 이 후 이른 오후에 이루어지는데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다양한 방법과 환경으로 낮잠시간을 조성해야한다. 또한 유아들은 놀이에 집중하면 피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적절하게 낮잠 및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처럼 낮잠과 놀이활동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낮잠(휴식)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전 놀이활동 경험을 계획하여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학습 수단으로서 놀이의 중요성은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유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놀이의 인지적, 사회적수준도 높아지고 놀이의 지속력이 길어진다. 또한 유아들은 영아기에 비해 단독놀이보다 또래들과 함께하는 대집단, 소집단 활동을 즐기며 협동 놀이를 즐겨한다. 이처럼 유아들은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놀이 속에서 갈등이나 경쟁 등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규범을 배우게 된다(방은영, 2016). 공인숙 외(2015)가 논한 유아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정신분석이론가 Freud(1896)는 인간의 심리적 발달과정을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정서발달 측면에서 놀이의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즉 유아들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놀이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때로는 역할놀이를 통해 불안, 공포, 분노등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정화하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방은영, 2016).

Erikson(1950)은 유아들은 놀이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여 자기 세계의 놀이단계, 미시영역 놀이단계, 거시영역 놀이단계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공인숙 외, 2015: 재인용). 또한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자아정체성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며 신체적,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고하였다. 즉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 활동을 확장해 가며 사회 역할을 이해하게되는 것이다(방은영, 2016). 또한Erikson(1950)은 유아가 처음 접하는 사회적관계인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 스스로를 또래에게 적응시키고 협동 놀이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상호작용의 기술 및 규범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였다(정희영 외, 2014: 재인용).

Vygotsky(1975)도 유아의 놀이를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또래와의 놀이 활동을 강조하였다. Vygotsky는 유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차이를 설명하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개념을 통해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행동에 반응하는 과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는 언어와 행동이다(공인숙 외, 2015: 재인용). 이러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 정서, 인지, 언어 및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는 유아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같은 문제 행동 치료에 도움을 준다(방은영, 2016).

이와 같이 일상생활 지도를 놀이활동과 연계해서 지도해 나가는 것은 유아들의 다양한 경험과 성장에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보육과정에 맞게 바람직한 낮잠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지도로써 유아의 놀이중심 프로그램에 맞춰 실행함으로써 낮잠(휴식)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2023년 3월 ~ 202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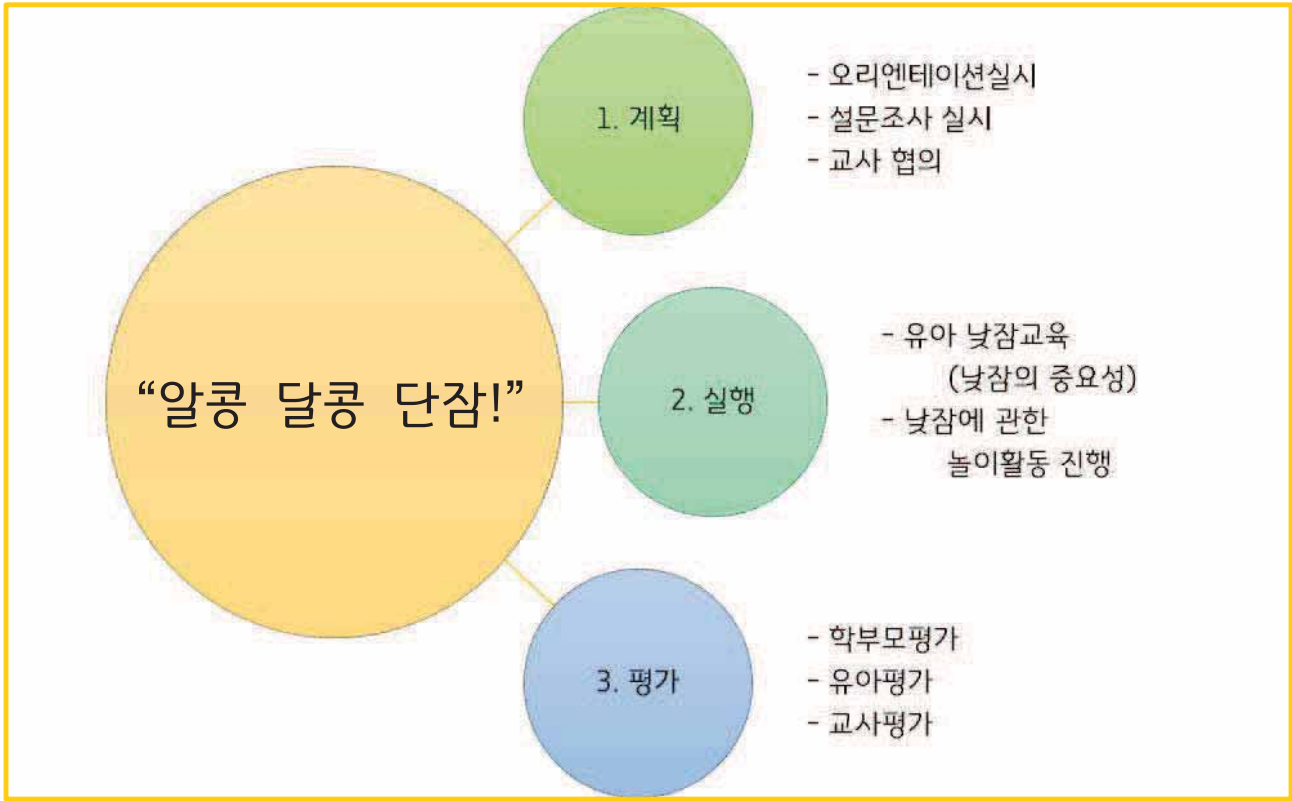
2) 활동대상

만3세(5세) 대상

3) 프로그램 연간

“알콩 달콩 단잠”(만3세)			
순서	월	진행방법	진행준비
1	2023년 3월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시 학부모 대상 낮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유아반 교사와 의견 나누기	유아기 낮잠 교육자료
2	4월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낮잠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3	5월초	유아 낮잠에 대한 필요성 교육(사전 놀이활동) - 영상 및 이야기 나누기 - 낮잠시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자료
4	6월~7월	즐거운 낮잠 시간을 위한 의견나누기(놀이활동 경험) - 낮잠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놀이활동 진행 - 낮잠 규칙 만들기 편안한 낮잠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 음악듣기 / 동화듣기 / 조명 / 이불 - 잠들기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모색	편안한 낮잠 시간이 되도록 놀이활동 진행
5	8월	중간평가 후 유아 개별 특성에 맞게 낮잠시간이나 방법 조율 - 낮잠시간의 변화에 대해 개별 체크 후 낮잠 지도 개별화	학부모 교사 및 유아 평가
6	9월~ 2024년 1월	- 중간평가 후 달라진 낮잠 패턴을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반영하여 실시 -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낮잠(휴식)을 잘 수 있도록 조력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 놀이방법을 제안해줌	낮잠 시간 평가
7	2024년 2월	- 종합평가 후 내년 유아반 낮잠지도 계획에 반영함 - 2024학년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시 유아반 학부모 대상 낮잠 프로그램 안내 및 협조요청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대한 학부모 및 유아 만족도조사

4) 활동방법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2-1. 만3세 학부모대상 낮잠 교육 실시 / 담임교사와 의견 나누기

- 2023학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만3세 학부모 대상 낮잠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 만3세반 어린이집 낮잠지도 시간과 지도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낮잠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알콩달콩 단잠” 프로그램에 대해 진행일정을 안내드린다.



부모평가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유아반 낮잠지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낮잠을 안재우고 싶다는 의견도 있으셨다. 만3세 낮잠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즐겁고 부모님이 부담없는 낮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낮잠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 드리자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해 주셨다.
교사평가	만2세 하반기부터 낮잠 드는 시간이 점차 줄고 있었고 몇 명 유아의 경우 낮잠에 대해 “자기 싫어~ 더 놀고 싶어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하셨다. 유아반이 되면서 놀이활동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낮잠시간을 늦추고 아이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낮잠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나가고 유아의 의견을 모아 낮잠 전 놀이 활동을 계획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알콩 달콩 단잠” 계획을 세우며 학부모와 아이, 교사가 함께하는 즐거운 낮잠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2-2. 만3세 학부모대상 낮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양식1. 참조)

- 학기초 적응기간이 끝나갈 무렵 학부모 대상 “낮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님과 가정 내 유아의 낮잠 패턴을 수집하고 일상 생활지원(낮잠지도)을 계획한다.
- 설문조사 내용은 유아의 낮잠과 밤잠 패턴과 낮잠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문에 앞서 우리 아이 낮잠 및 밤잠 습관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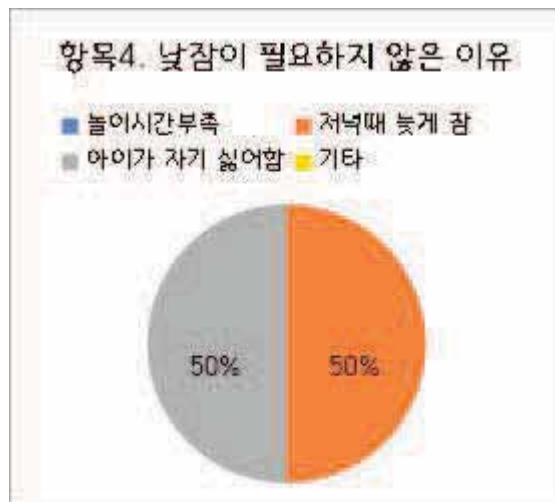
(ex. 가정에서 낮잠 시간, 저녁때 잠드는 시간, 잠들기 전 습관, 기상 시간 등)

()

번호	설문 내용
1	어린이집 일과 중 낮잠(휴식) 시간은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	낮잠(휴식)의 적정 시간은? ① 30분 ② 1시간 ③ 1시간 30분 ④ 2시간
3	낮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복선택 가능) ① 오후에 피곤해함 ② 발달상 필요함 ③ 규칙적인 습관을 위해 필요함 ④ 기타의견()
4	낮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복선택 가능) ① 놀이시간 부족 ② 저녁때 늦게 잠 ③ 아이가 자기 싫어함 ④ 기타의견()
5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 대체 활동으로 적당한 것은? (낮잠 자는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활동) ① 낮잠 동화 듣기 ② 클래식 듣기 ③ 자유 놀이 ④ 기타의견()
6	기타의견()

설문조사
결과





- 위 설문조사 결과 낮잠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였고 적정 낮잠 시간은 1시간 이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오후 놀이활동에 대한 영향과 발달 상 낮잠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낮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서는 밤잠을 늦게 자거나 유아가 낮잠을 자기 싫어해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낮잠을 자지 않을 경우 대체활동으로 동화듣기나 자유놀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
- 위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반 교사와 “알콩 달콩 단잠”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았다.
- 교사는 유아에게 낮잠에 대한 필요성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했고 먼저 낮잠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낮잠시간 전 다양한 “낮잠”을 주제로한 놀이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2-3. 유아 낮잠에 대한 필요성 교육(이야기 나누기 활동)

- “낮잠이 필요한 이유”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유아와 이야기 나누기 나눈다.
- 낮잠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아와 이야기 나누며 좀 더 편안한 낮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한다.



교사지원 계획	영상자료를 준비하고 이야기 나눈다. 유아들과 편안한 낮잠 시간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유아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놀이활동을 계획한다. 편안한 낮잠 환경을 위해 낮잠 전 조명, 온도, 습도를 체크하고 동요, 동화듣기 등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평가	유아들은 낮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보며 대부분 “몸이 튼튼해져요~” “머리도 똑똑해져요”라며 낮잠은 자야된다는 반응이었으나 “낮잠 자기 싫어요~”라는 유아에게 이유를 묻자 “더 놀고 싶어요. 캄캄해요”라고 한다. 낮잠시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2-4. 편안한 낮잠 시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 실행

- 편안한 낮잠 시간을 위해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며 유아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실행해 본다.
- 낮잠 시간에 대한 유아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수면시간이 되도록 위함이니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 보다 유아가 제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활동을 조력한다.

① “좀 더 놀고 싶어요!”

- 낮잠준비를 위해 교구장을 정리하던 중 한 유아가 “더 놀고 싶어요~”라며 놀이를 제안했고 어떤 놀이가 하고 싶은지 묻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하고 싶어요”라고 한다.
- 다른 유아들의 의견을 묻자 놀이에 동의 했고 함께 의논해서 술래를 정하고 놀이를 시작했다.
- 놀이 시작 전 낮잠 시간 전이며 놀이가 끝나면 낮잠(휴식)시간을 갖을 예정임을 얘기해 주었다.
- 돌아가며 술래를 해보고 놀이가 끝나고 각자 이불을 깔고 누웠다.

평가 및 활동사진	놀이가 끝나고 교사와 약속한 대로 이불을 펴고 각자 자리에 누웠다. 누워서 서로 마주보며 “재밌다 그치?”라며 웃음을 보였다. “다음에 또 해볼까요?” 하니 “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낮잠 음악을 들으며 잠들었다.	
-----------------	---	--

② “낮잠잘 때 함께 자고 싶은 건... 엄마?”

- 교사는 낮잠 잘 때 필요한 그림자료를 담은 활동지를 준비하고 낮잠 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며 활동한다.
- 낮잠 시간에 무엇과 함께 누우면 좋을지 생각해 본다.

평가 및 활동사진	유아들은 활동지에 있는 이불, 베개, 수면등, 인형을 골랐고 평소 낮잠 잘 때 부모님께서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유아는 동화책을 고르며 이야기 했다. 이야기 나누는 중 한 유아가 “토끼랑 같이 자고 싶어요~”라고 하자 모든 유아가 “나두 토끼랑 잘래~”라고 한다. 이불을 깔고 누운 유아들에게 토끼인형을 주자 꼬옥 껴안고 잠이 든다.
-----------------	---



③ “깜깜할 땐 불빛이 필요해요”

- 각자 이불을 깔고 자리에 누워 깜깜한 교실을 둘러본다.
- 어두워서 싫다는 유아를 위해 달 모양 조명등을 준비하고 하늘에 비춰 준다.
- 하늘에 떠있는 달빛을 보며 쉬는 시간을 가져본다.

평가
및
사진

조명을 끈 교실에 달 조명을 바닥에 비추자 유아들이 모여 달빛을 만져본다. 교사가 원근감을 조절하여 달그림이 크고 작게 변하게 하자 잡아 보려고 한다. 달조명을 천장에 비추자 유아들이 자신의 자리에 누워 “누우니까 더 잘 보인다~”라고 한다. 유아들이 천정에 비춘 달모양을 보며 잠이 든다. 이후 낮잠 시간에 이불을 깔면 “선생님~ 달 보고 싶어요”라며 회상하기도 했다.



④ “그림자 놀이 해요”

- 지난 번 달빛에 대해 이야기 하며 또 보고 싶다는 유아가 있어 낮잠이불을 깔고 핸드폰 조명을 켜 주며 그림자 놀이를 해본다.
- 박스테이프 옆면에 테이프를 붙이고 유성펜으로 무지개색으로 칠해주고 조명등 위에 올려 준다.
- 이불에 누워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며 잠을 잔다.

평가
및
사진

핸드폰등을 켜주자 불빛에 관심을 보이다 교사가 그림자를 보여주자 유아들도 불빛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림자 모양을 관심을 보인다. 한 유아가 손가락을 움직이다 개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나자 유아들이 따라하기도 했다. 박스테이프로 무지개 불빛을 보여주자 더 신기해 했고 빛에 비추며 손가락을 다양하게 움직여 그림자를 만들었다. 자리에 누워 하늘에 비춰진 무지개를 보며 “와~ 예쁘다”라며 좋아했다.



⑤ “나는야 터널 건축가”

- 친구와 마주보고 서로의 다리사이를 기어가는 유아에게 낮잠시간임을 얘기하며 이불을 꺼내주자 이불을 차곡 차곡 쌓기 시작한다.
- 쌓아 놓은 이불 밑을 한 유아가 통과하자 다른 유아들도 따라한다.
- 교사가 책상을 가운데 놔주며 이불로 터널 꾸미기를 제안하자 유아들이 이불을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 완성된 이불 터널 아래를 유아들이 기어다니며 놀이한다.

평가
및
사진

유아 한명이 낮잠이불을 쌓기 시작하자 친구들이 모여 “영차~ 영차~” 쌓았다. 이불아래를 통과하기 어려워하는 유아가 있어 교사는 책상을 배치해주고 그 위에 이불을 쌓도록 도왔고 그 책상 아래를 통과 하며 놀이가 시작되었다. 유아들은 책상 아래를 이불로 가리며 텐트처럼 숨는 공간도 만들며 좋아했다. 이불의 위생상 놀이가 길게 진행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음 번에 얇은 천을 따로 준비해서 터널놀이를 해보기로 약속했다.



⑥ “꼭 꼭 숨어라~”

- 이불을 깔고 자리에 누운 유아가 몸을 웅크리고 이불속으로 숨는다.
- “○○이가 어디있지?” 교사가 찾는 시늉을 하자 유아들이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긴다.
- 교사가 돌아가며 “○○이 여기있네~”라며 찾는다.

평가
및
사진

교사가 “○○이 여기있네~”라며 찾기 시작하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한참 찾지 않고 멈춰 있으니 살며시 이불을 열어 교사와 눈이 마주치자 열린 이불속으로 숨는다. 교사가 유아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모두 찾고 나자 바르게 누워 잠잘 준비를 한다.

Ⅲ. 활동평가

만3세 학부모 대상 “알콩 달콩 단잠” 프로그램 중간평가 결과 (양식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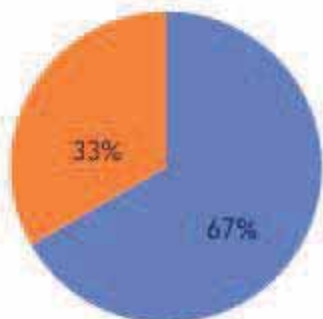
- 학기 초 가정에서의 낮잠 패턴을 조사하여 유아의 개별 낮잠 습관과 수면시간을 고려하여 활동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내용과 가정에서 느끼는 낮잠에 대한 유아의 인식개선 변화를 알아보고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고 이후 진행될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건의사항도 함께 조사하였다.

대 상	부모님/유아(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 주세요)			
내 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기타의견
① 현재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대해 적절한가요? (학기 초보다 30분~1시간정도 낮잠 시간이 줄었어요.)				
② 낮잠시간으로 인해 밤잠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③ 낮잠자기 전 활동에 대해 만족하나요? (키즈노트에 올려드린 활동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④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나요?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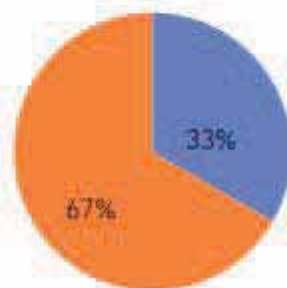
항목1. 현재 어린이집 낮잠시간의 적절성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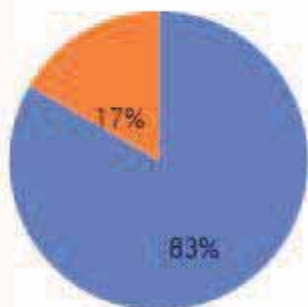
항목2. 어린이집 낮잠이 밤잠에 영향을 미치나?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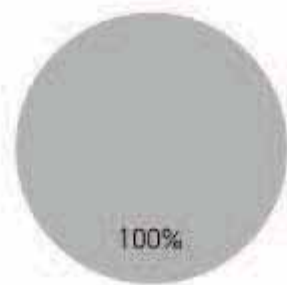
항목3. 낮잠자기 전 놀이활동에 대한 만족도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항목4.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위 결과에서 보면 낮잠 시간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해주었고 밤잠에 대한 영향도 대체로 적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원에서 낮잠을 1시간 이상 자거나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확실히 밤잠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타의견이 있었다. 또한, 낮잠 전 인식개선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한 놀이활동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이와함께 평소에 집에가서 “낮잠자기 싫어!!”라고 애기하던 유아가 낮잠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줄었다고 하였고 “알콩 달콩 단잠!”을 주제로 진행되는 낮잠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낮잠에 대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해주었다.

교사 평가

학기 초에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낮잠자는 시간이 다가오면 “더 놀고 싶어요”, “자기 싫어요”라며 낮잠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만3세 유아에게 아직 낮잠은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있기에 낮잠 시간이 ‘쉬는시간이며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적응기간이 끝나갈 쯤 부모님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취합해서 아이들 특성에 맞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놀이활동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았다. 낮잠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교수자료를 찾아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갖으며 아이들이 “낮잠 자야돼요~”라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낮잠시간에 대해 유아들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었다.

교사는 오전 자유놀이시간에 다뤘던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차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었고 유아들도 낮잠 전 하고싶은 놀이나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낮잠 전 다양한 놀이활동이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유아들은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라고 하면 “눕기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싶어요~”, “이불텐트 속에서 자고싶어요~”라며 의견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국악난타 후 국악동요를 접해서인지 “국악동요 듣고 싶어요~”라며 낮잠 전 하고 싶은 활동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낮잠시간이 오전 활동과 동떨어진 활동이 아닌 낮잠시간까지 이어지는 활동이 되었고 낮잠 시간에 대해 조금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다. 교사 또한 불끄고 음악틀고 “어서 자고 일어나서 놀자~”라며 제한을 두고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 유아들이 먼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줌으로써 낮잠(쉬는)시간이 훨씬 여유로워진 것 같다. 낮잠 전 “오늘은 우리 뭐해볼까?”라는 질문에 유아들에게는 항상 답이 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알콩 달콩 단잠”(만3세)			
순서	월	진행방법	진행준비
1	2024년 3월	-신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시 학부모 대상 낮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유아반 교사와 의견 나누기	유아기 낮잠 교육자료
2	4월	-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낮잠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3	5월초	유아 낮잠에 대한 필요성 교육(사전 놀이활동) - 영상 및 이야기 나누기 - 낮잠시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자료
4	6월~7월	즐거운 낮잠 시간을 위한 의견나누기(놀이활동 경험) - 낮잠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놀이활동 진행 - 낮잠 규칙 만들기 편안한 낮잠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 음악듣기 / 동화듣기 / 조명 / 이불 - 잠들기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모색	편안한 낮잠 시간이 되도록 놀이활동 진행
5	8월	중간평가 후 유아 개별 특성에 맞게 낮잠시간이나 방법 조율 - 낮잠시간의 변화에 대해 개별 체크 후 낮잠 지도 개별화	학부모 교사 및 유아 평가
6	9월~2024년 1월	- 중간평가 후 달라진 낮잠 패턴을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반영하여 실시 -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낮잠(휴식)을 잘 수 있도록 조력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 놀이방법을 제안해줌	낮잠 시간 평가
7	2024년 2월	종합평가 후 내년 유아반 낮잠지도 계획에 반영함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대한 학부모 및 유아 만족도조사

향후 프로그램 확장과 일반화 제언

앞서 프로그램의 취지에서 설명했듯이 개정된 표준보육과정과 평가제에서는 만3세까지는 낮잠(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만2세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낮잠자는 것을 힘들여하거나 가정에서도 밤잠의 영향으로 낮잠을 재우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 어린이집 낮잠 지도에 있어 교사의 부담이 크다. 이에 일상생활지도 중 낮잠(휴식)지도는 유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숙지하고 유아와 학부모가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낮잠시간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낮잠(휴식)시간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 유아, 학부모, 교사의 이해와 함께 낮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가정과 협력하여 즐거운 휴식시간이 되도록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하반기 활동에서는 유아의 변화된 낮잠 패턴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낮잠 시간이 되도록 유아중심으로 일상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V. 참고문헌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3).

권혜진(2013). 유치원 낮잠 일과 및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82, 185 - 206.

이슬기(2008).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제. 육아지원연구, 3(1), 147 - 170.

김진욱(201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수면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대회, 199 - 210.

박윤자, 이대균(2012). 영아반의 낮잠시간이 갖는 의미 고찰: 만 1세와 만 2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육아교육학회지, 16(2), 187 - 214.

김수정(2015). 유아의 수면 습관이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학회, 19(3), 319 - 341.

정희영, 이성복, 김성원, 윤선화, 김정희, 김선아, 방승미(2014). 유아발달. 고양: 파워북.

김윤희(2015). 만 4세 유아의 야간 수면길이와 문제행동의 관계. 유아교육학회, 35(1), 351 - 375.

이소희(2005). 보육학개론. 파주: 양서원.

방은영(2016). 놀면서 배우는 행복한 아이들. 고양: 공동체.

공인숙, 권기남, 권혜진, 김영주, 김혜라, 민하영, 이완정, 전숙영, 정윤주, 채진

영, 한미현, 황혜신(2015). 영아발달. 파주: 양서원.

(양식1. 참조)

▲▲ 바다반(만3세) 낮잠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

♥♥ 부모님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어느덧 3월 신학기를 지나면서 어린이집에서의 일과에 적응해 나가며 즐거운 추억을 하나둘 쌓고 있습니다. 만3세는 유아에 해당하지만,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발달 특성상 평가제에서는 기본생활 중 낮잠 시간(휴식시간)을 갖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원내 활동 중간에 1시간~1시간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특성상 낮잠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낮잠 후 저녁 수면의 질과 유아의 몸 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문지를 통해 원내 낮잠(휴식)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될 방법을 모색하고자 설문을 시행하오니 부모님들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진흥원 평가제에서는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토래와 다투기 쉽고, 졸음이 올 때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나기 쉬우므로 하루 일과 중 낮잠시간을 계획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를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설문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 필 ☐ 열 ☐ 요일까지 원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앞서 우리 아이 낮잠 및 밤잠 습관을 적어주세요.

(ex. 가정에서 낮잠 시간, 저녁때 잠드는 시간, 잠들기 전 습관, 기상 시간 등)
()

㉡ 각 문항에 v 표하여 주세요.

번호	설문 내용
1	어린이집 일과 중 낮잠(휴식) 시간은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	낮잠(휴식)의 적정 시간은? ① 30분 ② 1시간 ③ 1시간 30분 ④ 2시간
3	낮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복선택 가능) ① 오후에 피곤해함 ② 발달상 필요함 ③ 규칙적인 습관을 위해 필요함 ④ 기타의견()
4	낮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복선택 가능) ① 놀이시간 부족 ② 저녁때 늦게 잠 ③ 아이가 자기 싫어함 ④ 기타의견()
5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 대체 활동으로 적당한 것은? (낮잠 자는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활동) ① 낮잠 동화 듣기 ② 클래식 듣기 ③ 자유 놀이 ④ 기타의견()
6	기타의견 ()

* 원에서는 아이들과 "일곱 달콩 단잠"이라는 주제로 "낮잠 및 휴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낮잠(휴식) 시간이 편안한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놀이경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견, 원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낮잠(휴식) 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아, 부모, 교사의 중간평가 과정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식2. 참조)

“알콩 달콩 단잠” 평가(부모용)

안녕하세요?

어느덧 신학기가 지나고 1학기를 마무리하는 8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다반 친구들은 한층 더 성장하며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일과 중 “알콩 달콩 단잠”이라는 주제로 편안한 낮잠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 낮잠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원에서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부담없는 낮잠시간이 되도록 활동해 보았습니다. 원에서는 친구들과 “낮잠이 필요한 이유”와 낮잠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편안한 낮잠 시간을 위해 놀이활동을 계획해 보며 진행했습니다.

놀이활동은 유아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반영하고 있으며 낮잠 전 어불 터널놀이, 동화 듣기, 음악 듣기,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과 함께 놀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낮잠에 대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준비하였으며 작성 후 ○월 ○일 ○요일까지 원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후 “알콩 달콩 단잠”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꾸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1. 해당란에 0표 해주세요.

대 상	부모님/유아(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 주세요)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기타의견
① 현재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대해 적절한가요? (학기 초보다 30분~1시간정도 낮잠 시간이 줄었어요.)				
② 낮잠시간으로 인해 밤잠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③ 낮잠자기 전 활동에 대해 만족하나요? (키즈노트에 올려드린 활동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④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나요?				

2. 학기 초부터 즐거운 낮잠시간을 위해 “알콩 달콩 단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지도에 있어 낮잠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3. 추후 “알콩 달콩 단잠” 프로그램을 2학기 까지 이어가며 유아들의 즐거운 낮잠 시간을 지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부모님께서 의견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행복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직장
지 역	파주시
프로그램명	대대손손(Clan Hand Clan Hand 손손)
총 괄	김기선
기획 및 운영	배승리, 최미나, 유난희, 배수지, 배승비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가 완화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이 많아지며 코딱지가 생기면서 느껴지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콧구멍에 손을 넣는 영유아들이 증가하였다. 코딱지는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와 함께 들어온 먼지, 세균과 같은 이물질이 콧물과 함께 뭉쳐서 딱딱하게 굳은 것이다.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므로 감염병에 취약하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높다. 어린이집 아동은 장시간 집단생활을 하면서 아동 간의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감염 기회는 더욱 증가한다. 최근 어린이집 건강관리 현황에 의하면 영유아 상당수가 감기, 수족구병, 유행성 결막염, 장염 등의 전염병을 경험하며 전염병 유행 시 급속도로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씻게 하거나 ‘씻지 않으면 더러운 아이야’라는 등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들로 씻기를 유도하기보다는 씻는 것의 중요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놀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스스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중요한 방법들을 즐겁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프로그램의 실시 배경(이론적 배경)

1) 영유아 손 씻기

환절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호흡기 질환의 경우 공기감염보다 주로 손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손만 잘 씻어도 바이러스와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수인성 감염병을 약 50~70% 예방할 수 있다. 즉, 손 씻기를 통해 독감이나 폐렴 등 호흡기 감염, 눈병, 기생충 감염, 수족구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물로만 씻는 것보다 감염병 예방효과가 더 높다. 물만 사용해 손을 씻을 때는 세균이 93% 감소하지만 비누를 사용하면 99% 감소한다.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손 씻기를 영유아들이 스스로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 실시하게 되었다.

2) 영유아 놀이

영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영유아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놀이를 하면서 가장 잘 배운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유능함을 타고났으며,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하며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며 세상을 탐색하고 힘을 기른다(심소영, 2021). Dewey는 교육에 있어 경험을 중시하며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학습한다고 하였고, 영유아가 놀이하는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으로 영유아들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학습하는 주기적인 학습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박남자, 양승희, 이순영, 박해미, 유지연, 2004). 놀이는 영유아의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영유아에게 놀이는 탐색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유아가 새로운 사물을 탐색하고 그 사물에 완전히 몰입된 것에서 새로운 수준의 능력을 발달시켜 가고 그것이 학습으로 이어진다.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영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들의 회의와 계획을 통해 손 씻기 관련 놀이를 제공해주며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 2023년 5월 ~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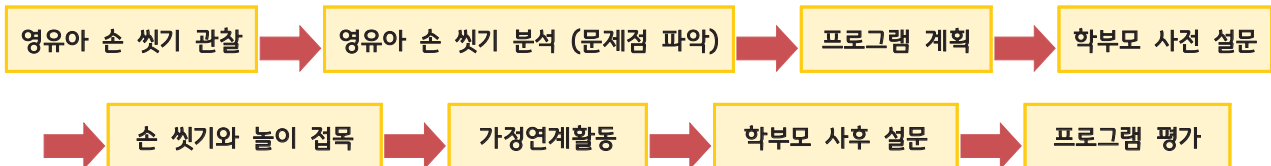
2) 활동대상 : 만 2세 ~ 만 5세

영유아
(만 2세 ~ 만 5세 총 105명)

교사
(전체 교사 15명)

학부모
(전체 학부모)

3) 프로그램 추진과정



4) 프로그램 연간

월	영유아 손 씻기 프로그램	가정연계활동
4	• 뷰박스 체험	-
5	• 세균 식빵 실험 • 손 씻기 그림책 보기 • 후추 실험 (세균은 비누를 싫어해!)	• 학부모 사전 설문지 •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뽀뽀북타임'
6	• 세균 스탬프 • 꽃 비누 (내 손안에 꽃) • 알록달록 색깔 비누	• 뽀뽀! 뽀뽀! 행복 가족 손 씻기 공모전 (동요, 동시) • 뽀뽀! 샷!
7	• 모래시계를 사용해요 • '뽀뽀! 뽀뽀!' 녹음기 • 손 씻으러 가는 길	• 누가누가 말 짓기 대장일까? (N행시) • 손 씻기 챌린지 (유아 개사 노래 이용 - 뽀뽀! 뽀뽀!)
8	• 세균 볼링 • 세균을 잡아라! • 세균아 없어져라!	• 아이와 함께 하는 올바른 손 씻기 부모교육
9	•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 • 손 씻기 순서도 만들기	• 학부모 사후 설문지

5) 활동방법

손 씻기 탐구하기	손 씻기 실천하기	손 씻기 즐기기
- 세균, 비누, 30초 등 손 씻기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활동하는 과정 - 손 씻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등의 탐구 양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 인식하지 못했던 세균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 손 씻기에 호기심을 갖고 언어, 신체 등의 활동으로 표현하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함	- 손 씻는 목적과 방법 등 손 씻기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놀이하는 과정 - 세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함으로써 손 씻는 것에 즐거움을 느낌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탐구하기

◆ 놀이의 시작

뷰박스 체험을 통해 영유아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세균을 관찰해보면서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을 가졌다. ‘더러워진 손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지거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 비누로 씻으면 손에 있는 세균이 정말 사라질까?’ 영유아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기도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보기로 하였다.

영유아의 놀이	영유아 반응 및 교사 지원
<뷰박스 체험> <세균 식빵 실험>	뷰박스를 통해 손을 관찰해보면서 우리 손에 있는 세균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손에 세균이 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영유아들과 함께 세균 식빵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교사가 식빵을 제공해준 뒤 손을 씻기 전의 손으로 만진 식빵, 비누로 손을 씻은 후 만진 식빵, 비닐장갑을 끼고 만진 식빵 세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운 손으로 만진 식빵에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손 씻기 그림책 보기>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깨끗하게 손을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을 통해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책 속에 있는 손 씻기 동작을 따라해 보았다. “선생님 손가락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요.”, “세균은 비누를 싫어한대요.”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후추 실험 (세균은 비누를 싫어해!)>	책을 읽으면서 세균이 비누를 싫어한다는 내용을 보고 영유아들이 호기심을 보여서 영유아들에게 후추 실험을 제공해주었다. 비눗물이 묻은 손을 후춧가루가 담긴 물에 넣자 후춧가루가 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우와~ 비눗물에 묻은 손을 넣으니까 세균이 도망가네!”, “정말 신기하다!”, “세균이 정말 비누를 싫어하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은 꼭 비누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실천하기

◆ 놀이의 시작

세균이 비누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본 뒤 손은 꼭 비누로 씻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비누를 손에 묻힌 후 문지르지 않고 바로 흐르는 물에 행군 후 “선생님 다 씻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올바른 손 씻기, 즐겁게 손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손 씻기를 해보기로 하였다.

영유아의 놀이	영유아 반응 및 교사 지원
<세균 스탬프> <꽃 비누 (내 손안에 꽃)>	우리가 평소에 손을 얼마나 자주 씻는지, 깨끗하게 씻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전에 손등과 손바닥에 세균 스탬프를 찍어 하원할 때 얼마나 지워졌는지 확인해보았다. “선생님 저는 세균이 다 사라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유아도 있었지만 많이 남아있는 영유아도 있어 손을 더욱 깨끗하게 씻어야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는 비누 외에 조금 더 흥미로운 요소를 더해주기 위해 꽃 비누를 제공해주었더니 즐겁게 손을 씻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알록달록 색깔 비누>	비누를 손 전체에 꼼꼼하게 묻히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색깔 비누를 제공해주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다. 평소대로 손에 비누를 묻힌 후 손을 씻으려고 보니 손 전체에 비누가 묻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선생님 여기에 비누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며 꼼꼼하게 비누칠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손에 있는 색깔 비누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씻어보며 손 씻기 권장시간인 30초를 지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모래시계를 사용해요> <‘쁘드득 싹싹’ 녹음기>	형님반에서 30초짜리 모래시계를 만들어서 모든 반에 나눠주었다. 모래시계를 돌리고 손을 씻어보면서 30초 동안 손을 씻을 수 있었으나 한 사람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가정에서 손 씻기 동요 개사한 것을 받아 형님들이 녹음기에 녹음해주어 화장실에 붙여주자 영유아들이 재생버튼을 누르고 다같이 손을 씻을 수 있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씻어야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끗하게 손을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놀이의 시작

여러 가지 손 씻기 활동을 접하던 영유아들이 손을 씻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웠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손을 씻으러 가는 길, 손을 씻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울 수 있도록 유아들과 손 씻기 길을 만들어보았다. 또한, 비누와 세균에 관심을 보이는 영유아들에게 세균을 잡으며 놀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구들을 만들어 놀이를 해보기로 하였다.

영유아의 놀이	영유아 반응 및 교사 지원
 <손 씻으러 가는 길>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 가는 길을 즐겁게 만들어 보기 위해 영유아들과 칠판에 ‘손 씻기 길’을 설계해 보았다. 유아들이 그린 손 씻기 길을 보며 교사가 마스킹 테이프로 길을 만들어 주고, 유아들이 직접 그린 세균과 비누도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 붙일지 의논하며 만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길을 만든 후 화장실을 가는 길에 세균과 비누를 발견한 영유아들은 세균 그림은 점프해 피하고, 비누는 두 발로 밟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놀이하며 즐겁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균 볼링>	세균모양으로 만든 볼링 핀과 다양한 종류의 공을 제공해 주었다. 축구공이나 볼링공 등 내가 원하는 공을 골라 던지거나 차며 세균 핀을 쓰러뜨리면서 놀이하였다. 놀이를 시작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워하던 영유아들도 있었으나, 친구가 몇 개의 세균 핀을 쓰러트렸는지 세어보고 자신과 비교해보며 기다리는 시간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친구가 세균 핀을 다 쓰러뜨리면 스스로 세균 핀을 세워주며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잘 맞출 수 있도록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균을 잡아라!>	손바닥 모양의 그림과 세균, 세균을 잡기 위한 비누 교구를 제공해 주자 영유아들은 관심을 보이며 친구와 함께 세균 잡기 놀이를 하였다. 놀이를 하며 잡은 세균의 수를 친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가 적어 울먹이는 영유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놀이를 반복하며 승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놀이에 집중하며 “비누가 세균 잡아먹었어! 이것 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놀이의 시작

실외 놀이를 나갔다가 들어와서 영유아들과 비누로 손을 씻어 보았다. 비누가 손에 골고루 묻지 않아 씻겨 지지 않은 부분이 보여 다시 씻기도 하였다. 손을 다시 씻으며 세균이 언제 손에 묻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생이 있는 영유아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 때를 동생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몇몇 영유아들이 동생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주자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동생들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영유아의 놀이	영유아 반응 및 교사 지원
 <세균아 없어져라!>	영유아들과 함께 세균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야기 나누어보고 OHP필름 위에 세균을 그려 보았다. “선생님~ 내 세균은 뽀족뽀족 해요.”라고 말하며 세균 그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균 그리기를 완성한 영유아들은 손이나 물로 지우기를 시도하였으나 지워지지 않아 교사가 손소독제를 세균 그림 위에 뿌려주고 지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세균아 저리가!!”라고 말하며 놀이를 하였다. 영유아들은 깨끗이 지워지는 세균 그림을 보며 다시 그리면서 반복해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	손 씻기 그림판을 만들기 위해 유아들과 함께 손을 언제 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글자를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유아들은 글자를 모르는 동생들을 위해 그림도 함께 그려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생들에게 보여줄 그림과 함께 글씨를 써보며 유아들이 모르는 글씨는 교사가 다른 종이에 적어주며 직접 써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그린 그림과 글자를 모아서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라는 손 씻기 판을 만들어 주었다.
 <손 씻기 순서도 만들기>	영유아들과 함께 단계별로 손을 씻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았다. 동생들에게 보여줄 사진판을 만드는 영유아들이 평소보다 꼼꼼하게 손을 씻으려 하였다. “선생님 동생들 이렇게 보여주면 손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가 손 씻는 사진을 모아 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완성된 후 동생들에게 판을 전달하며 씻는 순서를 이야기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연계활동

◆ 왜 함께해야 할까?

손 씻기 활동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가정과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손 씻기 관련한 놀이를 진행하며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영유아들의 모습과 사전 설문지를 통해 손 씻기와 관련한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정과의 연계를 진행하며 영유아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안내하고, 손 씻기를 습관 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똑똑북타임’



<만 2세, 만 3세 - 손을 씻어요, 미스터 판다>

<만 4세, 만 5세 - 와글와글 세균들의 여름 여행>

‘부모동아리-똑똑북타임 동아리’ 학부모님께서 일일 아빠 선생님이 되어 영유아들에게 손 씻기 관련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영유아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만 2세, 만 3세 영유아들에게는 ‘손을 씻어요, 미스터 판다’, 만 4세, 만 5세 유아들에게는 ‘와글와글 세균들의 여름 여행’을 읽어주었다. 아빠 선생님께서 직접 책을 읽어주자 평소와 다르게 영유아들은 아빠 선생님의 목소리와 책의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책 감상 이후 영유아들은 **아빠 선생님과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 보기로 약속하며** 마무리하였다. 일상생활 중 영유아들은 “아빠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어야 해!” 등과 같이 **아빠 선생님께서 읽어 주신 책의 내용을 회상하며 손을 씻어야 할 때를 알고, 자발적으로 손 씻기를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쁘드득! 뽀드득! 행복 가족 손 씻기 공모전 (동요, 동시)



<손 씻기 공모전 안내문>

<손 씻기 관련 동요 개사 및 동시 짓기 참가>

가정연계활동을 통해 **깨끗하게 손을 씻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건강해지고 있다고 표현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영유아들의 모습에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의논한 뒤 공지를 통해** 안내하였다. 일과 중 영유아들에게 안내하자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제공한 동요에 맞춰 개사를 하거나 동시 짓기를 시도하는 영유아들을 볼 수 있었다.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은 키즈노트를 통해 전달받은 뒤 **어린이집 화장실에 게시하거나 일과 중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쁘드득 샷!



<손 씻기 도장 안내>

<엄마, 아빠와 손 씻는 방법을 알아봐요>

<키즈노트 알림장>

“엄마, 아빠한테도 손 씻는 방법 알려줄래요!”라고 이야기하는 영유아들의 모습에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스탬프를 이용한 가정연계 활동을 계획하였고, 하원 시 영유아들의 손등과 손바닥에 세균 모양의 도장을 찍어주었다. 스탬프를 손등과 손바닥에 찍은 영유아들은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해봐야겠다!”라며 부모님과 함께할 손 씻기에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이후 가정으로 돌아간 **영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손 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 뒤 함께 손 씻기 순서에 맞춰 손을 씻어보는 경험을 하였다.**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손 씻기 방법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거나 모두 사라진 세균 도장을 통해 깨끗하게 손을 씻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누가누가 말 짓기 대장일까? (N행시)



<N행시 안내문>

<제공된 제시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N행시 참여>

‘쁘드득! 뽀드득! 행복 가족 손 씻기 공모전’을 통해 동요, 동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동요를 개사하거나 동시를 짓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 **영유아들에게 ‘손 씻기’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새로운 형식의 이벤트를 가정으로 안내**하였다. N행시 안내문을 통해 활동에 대해 안내하였고, 손 씻기와 관련한 제시어를 제공하여 학부모님들의 재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벤트에 참여한 **영유아들의 N행시는 교실 및 화장실에 부착하여 손 씻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보고, 자유롭게 말 짓기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손 씻기 챌린지 (유아 개사 노래 이용 - 뽀드득 싹싹)



<유아 개사 영상 전달>

<행복어린이집 가족 '뽀드득 싹싹 손 씻기 챌린지' 참여 영상>

'뽀드득! 뽀드득! 손 씻기 공모전'과 연계하여 동요 부분에 참여한 유아의 노래 개사 부분을 녹음하여 행복어린이집 전체 학부모에게 전달하며 챌린지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각 반 교실에서 영유아들과 노래를 듣고 따라 불러보는 것을 통해 영유아들이 '뽀드득 싹싹' 노래를 익히기 시작하였고, 점차 챌린지 영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영유아들은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노래에 맞춰 손 씻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영유아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손 씻기 챌린지 활동을 통해 가사 속에 나오는 올바른 손 씻기 순서에 맞춰 손 씻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와 함께 하는 올바른 손 씻기 부모 교육



<손 씻기 교육 주요조사>



<손 씻기 교육 포스터>



<손 씻기 교육 사진>



<손 씻기 전 뷰박스 사용>



<비누 만들기>



<색깔 비누 사용하기>



<손 씻기 후 뷰박스 사용>

행복어린이집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손 씻기 사전 설문지' 배부 후 수합 한 결과 손 씻기 교육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으며, 영유아들과 함께 손 씻기 교육에 참석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어린이집 간호사가 진행하는 '아이와 함께 하는 올바른 손 씻기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모 교육 진행 시 올바른 손 씻기를 눈으로 직접 살펴보기 위하여 뷰박스를 대여한 뒤 부모님과 함께 우리 손에 묻은 형광 물질을 손 씻기 전·후로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손 씻기 교육 후 우리 손에서 어느 부분이 잘 닦이지 않는지 알게 된 영유아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 번 손을 씻어보기를 시도하며 처음과 달리 깨끗하게 닦인 손을 살펴보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손 씻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하는 비누 만들기 체험을 계획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III. 활동평가

영유아 평가

- 영유아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인식하게 됨.
-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노력함.
- 교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손을 씻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며 손 씻기가 습관화된 모습이 보임.

교사 평가

<교사 사전 설문>	<교사 사후 설문>

<만 2세>

영아들의 일상생활속에서 손 씻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으나 교사가 이야기할 때만 손을 씻거나 손을 씻을 때 비누로 씻지 않는 경우, 비누를 묻힌 후 손을 비비지 않은채 바로 물에 행구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올바른 손 씻기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한 결과 학기 초와 비교했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손 씻기가 많이 습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아들이 먼저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기도 하고, 비누칠을 꼼꼼하게 하여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 손을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만 3세>

유아들이 손 씻기 교육을 통해 화장실 사용 및 실외활동 후, 간식이나 식사를 하기 전 손을 더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이유도 있으나 세균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손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도 알아보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손 씻기 교육 전에는 종종 화장실을 사용 후나 실외활동 후 손을 씻지 않고 오는 유아도 있었으나 손 씻기 프로그램 이후에는 적절한 때에 비누를 사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꼼꼼히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만 4세>

손씻기 교육을 하기 전 유아들은 손 씻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손 씻기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손 씻기 이기에 손 씻기 교육을 함께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손 씻기 활동들, 특히 뷰박스로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을 보거나 색깔 비누로 내가 평소 어떻게 씻는지 직접 보면서 유아들이 스스로 '깨끗한 손 씻기'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재 유아들은 손을 씻어야 할 때를 알고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으며, 손바닥 뿐만 아니라 손톱, 손가락, 손등도 꼼꼼히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만 5세>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던 유아들이 마스크를 벗자 손을 입에 넣거나 코를 파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기침과 재채기를 한 후 손을 씻지 않고 옷에 닦는 모습이 관찰되어 교사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손 씻기'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손 씻기'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유아들이 실외활동 나갔다가 온 후, 기침을 한 후 등 손을 씻어야 할 때를 알고 손 씻기의 방법과 순서에 맞춰 실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가정연계활동으로 인해 유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학부모 평가



아이가 손을 너무 잘 씻어요.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30초 동안 손을 너무 잘 씻어요!

어린이집 교육자료를 통해 o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좋은 교육 감사합니다.

아이가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 이야기 해준답니다.

아이가 손씻는 방법과 순서에 맞춰 손을 씻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육인것 같습니다. 손을 씻지 않던 아이가 너무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손 씻기 방법을 알라도 꼼꼼히 씻는 부분이 약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손씻기도 대중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할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음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앞으로의 활동 계획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감염병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감염병의 전파와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손 씻기와 같은 건강 수칙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이 된다. 손 씻기의 경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손 씻기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손 씻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영유아들의 손 씻기 습관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이행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2024년 연간프로그램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손 씻기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손 씻기 습관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므로 이번 기초자료를 보완한다면 2024년에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2. 손 씻기 프로그램의 제안 활동

첫째, 프로그램의 지속화 방안을 모색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의 경우 영유아들에게 즐거움 이외의 다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영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손 씻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법 및 지속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영유아의 놀이와 의미 있는 배움은 기관, 교사, 부모가 놀이중심, 아동중심 보육프로그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질 때 보다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손 씻기 프로그램이 보다 더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별 가정과의 효과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V. 참고문헌

- 김영복(2020). 감염병 예방과 개인위생교육: 손 씻기 교육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pp. 59-69
- 김지은, 문지혜, 신현아, 이지선, 권성의, 이정숙, 엄애선(2011). 미취학 어린이의 손씻기 교육에 따른 미생물학적 실태 분석. pp141-150
- 박낭자, 양승희, 이순영, 박해미, 유지연(2004).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 놀이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손성민, 광성원(2020).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손 씻기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지적장애 아동들의 손 씻기 빈도와 방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Vol.37 No.6
- 송원주(2022). 유아놀이에 대한 유아와 교사 관점 이해하기 : 사진유도면담법을 통해 바라본 유아와 교사의 놀이 경험.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소영(2021). 만 5세 도담반의 실내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행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숙, 권인수(2019). 학령전기 아동의 역할 놀이를 이용한 손 씻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123-132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사례집

「일상생활 지원 놀이」

인 쇄 2023년 11월

발 행 2023년 11월

발행인 정혜원

발행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주 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인쇄처 성진인쇄사

※본 사례집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